1080 누르고 福 지으세요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
060-700-1080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우리이웃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인등을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한국홈페이지 : www.chando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인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10월 12일(음력 9월 10일) 수요일 (주간) 제 547 호

'투명한 재정'이 미래다

청정도 60점 수준, 돈·권력이 원인 지적

각종단 인사·행정에 부패 요소… 세속화 우려

본사,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 대상 설문

문제의 핵심은 '돈'이었다. 계율이 지켜지지 않고, 종단과 사찰운영이 궤도를 이탈하고, 불교가 권력화·세속화되는 등 승가가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모든 이유는 결국 '돈' 때문에 비롯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현대불교가 창간 11주년을 맞아 출·재가 오피니언 리더 300명을 대상으로 '진정한 승가로 돌아가자' 주제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한국불교가 청정해지기 위해서는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은 조계·태고·천태·진각종 등 10여 개 종단의 총무원 부서장과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종회의원·종단 산하 기관(단체)장·신행단체장 300명(출·재가 각 15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출·재가 각 112명씩 224명이 응답했다. 설문방식은 9월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화로 진행됐다.

먼저 '한국불교가 청정해지기 위한 제1요건'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종단 및 사찰재정 투명화'(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스님들의 깨끗한(검소한) 사생활'(20%) '출재가 교육 강화'(11.6%) '출가정신 회복'(9%)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70%가 각 종단 인사·행정에 부정부패가 있다고 답했으며, 불교의 세속화·권력화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53%의 응답자가 우려할만한 상태(위험한 수준 15% 포함)라고 지적했다. 스님들의 소비행태에 대해서도 '풍족한 편(사치스럽다 포함)'이라는 응답이 36%나 됐다.

특히 응답자의 상당수는 설문에 응하면서 "9개의 모든 질문문항이 사실상 질문 형태만 다를 뿐 모두 '돈'문제를 묻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반응을 보여, 권력화·세속화·종단 부정부패·사찰운영 등 모든 문제는 돈과 직결되며, 그런 관점에서 한국불교 승가의 청정성은 낮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식은 출·재가자의 청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이 매긴 출가자와 재가자의 청정도 각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 중 6.26점과 5.86점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낮다' '엉망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5~6점대 점수를 주었으며, 특히 일부 출가자와 대부분의 재가자들은 '돈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청정도를 낮게 평가했다.

결국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국불교 승가의 '청정도'를 낮게 보고 있으며, 문제가 돈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문항에 따라 출·재가의 인식 편차가 큰 부분도 있었다. 스님들의 소비행태와 관련해 '풍족한 편(사치스럽다 포함)'이라고 응답한 스님들이 28%인 반면 재가자는 56%나 됐다. 또 사설사암(토굴 포함) 소유와 관련해 스님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32.2%)는 답을 가장 많이 한 반면, 재가자들은 '절대 안 되거나 안하는 것이 좋다'(64.4%)는 견해가 훨씬 우세했다.

투명한 사찰운영을 위한 우선 과제에서도 스님들은 '투명한 인사'를, 재가자들은 '투명한 불사'를 더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하지만 일부 응답자들은 "특정계층 스님과 재가자들의 모습이 전체 승가의 모습은 아니다"며 대부분의 스님들과 재가자들은 돈 문제를 포함해 권력·사치·부정부패 등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재연 스님은 "한국불교 승가가 청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재정운영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문제"라며 "이제는 그동안 회피해왔던 승가의 돈 문제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설문분석 및 관련특집
9·10·11·12·13면

한명우·박봉영 기자



보라, 저 당간지주의 기상을!

청명한 가을, 천년을 넘게 한 자리를 지켜 온 당간 지주도 한 해의 농사를 거두는 계절이다. 한반도에 선불교가 들어와 구산선문이 열리는 그 활발한 시기에 흥성했던 강릉 굴산사지를 지키고 서 있는 이 당간지주는 개산조 범일국사의 우렁찬 기상을 그대로 닮아 있다. 10월 15일, 창간 11주년을 맞은 현대불교도 세월을 뛰어넘는 정론의 기상을 흩트리지 않을 것을 다짐해 본다. '일체중생 견성성불'의 염원을 저 당간지주에 높이 달고….

사진/강릉=고영배 기자

창간 11주년 특집 48면 발행

선원장, 禪의 원류를 찾다
-고우 스님이 만난 초조 달마 스님 A5면

개혁초심으로 돌아가자
-승가의 청정도 설문으로 알아보니 A9면
-종단 A10면
-권력화 세속화 A11면
-교육 A12면
-평등 A13면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지상중계
-아제아제 바라아제, 지혜제일 사리불 A16면

나의 학문과 수행-김형효 교수 B2면

만나고 싶었습니다
'1일 독자기자'가 만난 광고 속의 스님 B5면

현대불교와 함께 사는 불자들 B7면

병향로 첫 발굴 경남 창녕에서

병향로(柄香爐)라 불리는 '자루달린 향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굴됐다. 경남고고학연구소(소장 최종규)는 2003년 7월 11일~8월 21일 경남 창녕 말흘리 유적에서 병향로를 비롯해 풍경(風磬) 19점과 금동투조 오각형장식판 21점 등 다량의 불단 장엄물을 포함, 230여점 유물을 발굴했다고 10월 6일 밝혔다. 박익순 기자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
'참회! 새로워지는 삶'
정무 스님 | 10월 12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그림·조태호

경성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B12, B13면에서 만나세요)

10대 제자 오신 광주 '빛나는 신심'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5일 개강·1천여 대중 운집

부처님 상수제자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첫 강좌가 지난 10월 5일 광주 동구 KT 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의 대한 이야기'란 주제로 열린 이날 강좌에는 지역 사암, 신행단체와 일반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강의에 앞서 동구불교협의회장 지각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치열하게 수행하며 당당하게 살았던 부처님 제자들의 삶을 통해 참 자유와 행복, 어디에도 걸림없이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빛고을 불교 아카데미에 동참한 1천여 사부대중은 지정한 좌석이 모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통로를 가득 메우는 열성을 보였다.

강좌를 공동주최한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도 인사말에서 "부처님 제자와의 만남을 계기로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기운이 확산되도록 함께 발심하자"고 말했다.

이날 '아제 아제 바라아제-사리불'을 주제로 첫 강연에 나선 미산 스님(중앙 승가대 교수)은 지혜제일 사리불의 일화와 사상을 소개했다. 스님은 "사리불 존자는 참으로 지혜를 완성하고 그 지혜를 온전하게 행한 부처님 상수제자이다"며 "존자의 일생은 겸손과 고결, 인간적인 진솔함의 연속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삶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빛고을 불교아카데미는 광주 동구불교 협의회(회장 지각)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함께 마련한 대중 불교강좌로 12월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대강당에서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관련기사 A16면

광주=이준엽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1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하는 종단, 신뢰받는 종단"

大韓佛教曹溪宗

종정 法傳

원로회의 의장 종 산 총무원장 권한대행 현 고
호계원장 월 서 교육원장 청 화
중앙종회 의장 법 등 포교원장 도 영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
WWW.BUDDHISM.OR.KR

보문종 종정 혜안 스님 입적…5일 영결식

10월 1일 열반한 보문종 제4대 종정 혜안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10월 5일 서울 보문사와 남양주 봉선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 원융종 종정 일공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 계민문도회장 광우 스님, 보문종 원로의장 혜일 스님, 운문사 주지 흥륜 스님, 동산불교대 김재일 이사장, 서찬교 성북구청장 등을 비롯해 4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보문종 총무원장 법종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보문종을 한국불교계의 큰 기둥으로 일으켜 세우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10월5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거행된 보문종 종정 혜안 스님 다비식.

영결식을 마친 스님의 법구는 봉선사로 이운돼 곧바로 다비식이 봉행됐다.

49재 법회는 11월 18일 보문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강유신 · 김강진 기자

후보 누구냐? 최대 관심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계파별 후보군 압축 · 청정선거 목소리 높아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범여권에서는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했으나 야권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출재가 단체들은 총무원장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범여권, 10일 후보발표

범여권 중심으로 구성된 '조계종 32대 총무원장 추대 상임위원회'는 10월 5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후보가 지관(원로의원 · 가산불교문화원장) 설정(前 종회의장 · 수덕사 수좌) 도영(포교원장) 스님 3명으로 압축됐다"며 "10월 10일 오후 5시 후보자 1명을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또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지성(동화사 주지), 부위원장에 장윤(중앙종회의원) · 자승(중앙종회의원), 간사에 장적(중앙종회의원) · 철안(봉선사 주지) · 종삼(화엄사 주지) · 광옥(전국비구니회 사회부장) 스님을 선출했다.

범야권, 후보토론회 계획

그러나 야권 중심의 10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6일 유성에서 간담회를 열고 "특정 정파에서 주도하는 추대위는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세몰이에 불과하며 범종단 추대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은해사, 금산사, 선운사(대리), 월정사, 쌍계사, 대흥사, 마곡사, 고운사, 범어사, 관음사(대리) 주지스님은 이날 채택된 합의문을 통해 "종단 선거일이 공고되고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한 시점에 추대위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구본사 스님들은 또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에 합의했다.

'청정선거실현 승가…' 창립

이런 가운데 출재가 단체들은 후보자 합동 종책토론회를 공동 추진하는 것은 물론, 교구본사 주지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청정선거' 서명도 받을 예정이어서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님들로 구성된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상임대표 수완)는 7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감시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29개 불교계 단체로 구성된 '청정선거문화정착 운동본부'(공동본부장 김의정 등)도 5일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화합승가포럼, 12일 세미나

최근 발족한 화합승가포럼도 12일 오후 2시 조계사 설법전에서 '조계종 32대 총무원장 인물론과 역할'을 주제로 첫 번째 포럼을 개최한다.

또 제24차 원로회의(의장 종산)도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한 담화문 발표의 건 등의 안건으로 10월 12일 오후 1시 청주 보살사에서 열린다.

한편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 종회가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남동우 · 유철주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획연재 - 조계종 총무원장 어떤 자리?

문중세에서 종회 계파 힘으로

연재순서
1. 위상과 권한
2. 어떻게 선출하나
3. 인물로 본 총무원장 上
4. 인물로 본 총무원장 下

사실상 '추대' 방식 94년이후 '선거' 심화
과열 '종단사태' 원인… '청정선거' 염원

1962년 제정된 조계종 최초 종헌에서 총무원장은 종단의 대표 권자인 종정을 보좌하는 위치였다. 이른바 권력구조상 '종정중심제'였던 이때 총무원장은 종회가 선출해 종정이 임명했다. 당시 총무원장 선출은 종회에서 조정의 과정을 거쳐 사실상 추대의 형식이었던 만큼 갈등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66년 초대종정 효봉 스님 입적이후 종정 추대과정에서 종권을 둘러싸고 문중별 파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2대 종정 청담 스님과 총무원장 경산 스님과의 불화가 대표적이다. 이 일로 종정 총무원장 등 종단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73년 서옹 스님이 종정에 취임하면서 총무원장을 임명제로 바꿀 때까지 종권을 둘러싼 종단분규는 계속됐다.

총무원장을 다시 종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은 10 · 27 법난 이후 들어선 정화중흥회의 때부터다. 중흥회의는 81년 1월 총무원장 중심제로 종헌을 개정했다.

84년 해인사 승려대회에서는 녹원 스님을 24대 총무원장으로 선출한 이후 86년까지 총무원장을 종회에서 선출했지만, 사실상 추대하는 형식이었다.

총무원장을 선출을 위해 종회 내에서 경선이 이뤄지기는 90년 의현 스님과 월탄 스님이 맞붙은 26대 총무원장 선거 때가 처음이다. 하지만 총무원장을 뽑는 본사 주지와 교구본사 의원이 총무원장의 영향권하에 있어 선거는 형식에 불과했다.

이는 현직이었던 의현 스님 외에는 다른 경쟁자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구조였다. 94년 3월 의현 스님이 총무원장 3선에 나서면서 4월 전국승려대회가 열렸고, 개혁회의가 출범했다. 개혁회의는 이때 밀실선거를 타파하기 위해 종회의원을 포함해 교구당 각 10명씩 선거인단을 두도록 하는 현행 선거인단 제도로 바꿨다.

처음에는 총무원장 직선제가 거론됐지만 보수파들의 공세에 밀려 현재의 간선제 형식으로 절충됐다. 하지만 선거가 가열되면서 금권선거로 변질되고, 법랍이 한참 높은 스님이 제자뻘 되는 선거인 스님에게 한 표를 애걸하는 상황까지 나오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여론이 비등하다.

94년 이후 선거구도도 변화됐다. 기존의 문중개념보다는 종회 내 계파와 개인적 성향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2003년 조계사에서 진행된 제 31대 총무원장 선거.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방법

현재 조계종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선거법 제13조에 따라 중앙종회의원 81명과 각 교구에서 10명씩 선출된 240명등 총 321명의 선거인단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뽑는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종헌 제52조 제53조, 종법의 총무원장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 제 5조의 규정에 의해 치러진다. 조계종 종헌 종법에 따르면 선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후 1달이다. 선거공고 4~5일 후 곧바로 교구종회 공동소집 공고를 하고, 15일안에 교구본사별로 각 10명씩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본격적인 총무원장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일로부터 투표 전일까지 10일이다. 선거 기간중의 선거운동 금기사항은 비승가적 행위(금품 수수 및 물품 제공,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 행위 등)와 각종 집회의 개최, 기부의 권유및 요구행위, 선거규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선거공고 후 30일이 되는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선거인단의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개표에 들어간다. 후보자가 한 명이면 무투표로, 2명이상이 출마하면 첫 번째 투표결과 재적 과반수 득표자의 당선이 확정된다. 해당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간에 재투표한다. 재투표에서도 재적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표를 얻은 스님이 당선인으로 결정되며 동수일 경우에는 승랍,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선출된 총무원장은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총무원장 임기(4년)는 전임 총무원장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하나, 임기가 완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총무원장의 임기는 당선자 결정일로부터 시작된다.

역대 총무원장선거와 종단사태

1980년대 종권을 두고 총무원장과 중앙종회가 힘겨루기를 벌일 때다. 종회가 열릴 때마다 총무원장을 흔들었고, 또한 종회의장이 바뀌었다. 1981년 1월 제18대 총무원장에 성수 스님이 취임한 후 84년까지 3년간 초우 법전 진경 서운 석주 녹원 스님 등 무려 7명이 총무원장직에 올랐다.

이처럼 총무원장은 아무나 할 수도 없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기에도 쉽지 않았다. 선출 이전부터 잠재된 불씨는 선출과정에서 불이 붙거나 총무원장 취임 후에도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월주 · 고산 스님이다.

1994년에 치러진 제2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월주 스님이 선출됐다. 월주 스님은 1980년 17대 총무원장에 선출됐지만 10 · 27 법난으로 인해 6개월만에 사퇴했다. 그러나 98년에 월주 스님이 다시 총무원장 출마선언을 하자 이것이 '3선인가 아닌가'를 두고 시비가 일었다. 결국 종단 사태가 발생했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곧이어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고산 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99년 10월 사법부는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 총무원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결국 고산 스님은 1년여 만에 중도사퇴했고, 99년 11월 정대 스님이 제30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동국대 이사 겸직 건이 불거지면서 중도 사퇴하고, 2003년 제 31대 총무원장에 법장 스님이 당선됐다. 김원우 · 남동우 기자

'제32대 총무원장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주 제 : '제32대 총무원장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가'
• 일 시 : 불기2549년 10월12일(수요일)오후 2시~4시
• 장 소 : 조계사 설법전

화합 승가 포럼 설립 취지문

불조의 혜명이 이 땅에 이어진지 어언 1700여년이 되었다. 수많은 좌절과 난관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 사회의 목탁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선배스님들이 있었기에 한국불교와 종단은 그 도도한 흐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가까이는 민족불교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일제에 맞섰던 선배스님들이 그러하며, 해방 후 정화운동, 1980년대 민주화운동, 1990년대 종단개혁을 이끌었던 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우리의 자랑이며 보배다.

특히 현재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선배스님들은 지난 10여 년간 승려교육체계 정비, 전근대적 종무행정의 현대화, 과학화, 재무구조의 건전화, 예 · 결산의 체계화 등 수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 중에서도 대정부 자주화는 한국불교와 스님들이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틀을 마련한 찬란한 성과였다.

그러나 성과 못지않게 과 또한 적지 않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계파에 의한 폐해다. '계파'의 폐해는 종단의 인사 재정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 우리는 계파의 스님들이 계파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기를 앙망하고 있다. 계파 모임은 처음에는 종책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생산하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다. 문중과 몇몇 중진 스님들이 좌지우지하던 폐해를 극복하고 정책이 중심이 되는 건전 종단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시작한 계파는 계파 자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질됐다. 지금 우리 종단의 선거 역시 계파간의 합종연횡으로 선거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우리는 계파의 스님들이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촉구하고 계파의 분열로 인한 종단의 상처를 기꺼이 치유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 정신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세속의 논리가 비집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부처님 법은 화합, 자비, 관용인 반면 세속의 법은 분열, 보복, 배척이다. 이것은 결국 수행자적 삶의 태도와 사고를 지니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내편과 네편을 나누어 반목하고 질시하며 반대편을 억누르는 행동조차 마다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무한 경쟁을 옹호하고 약자를 업신여기며, 크고 화려한 것만 좇는 물신주의를 숭배하고 발전과 진보만을 선으로 여기는 승단의 풍조는 이제 수행자의 가치와 사고로 전환 되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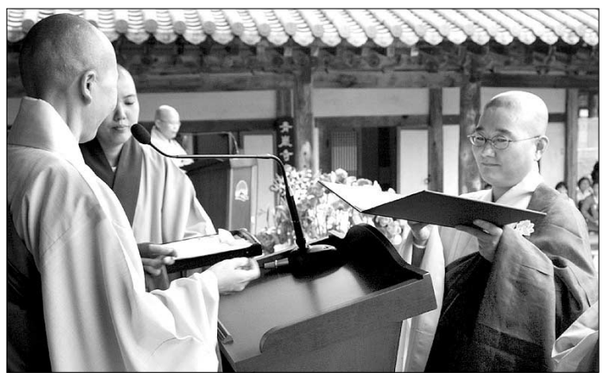
오늘날 한국불교와 승단이 안고 있는 이같은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잘못이다. 우리들 또한 문제점은 절실하게 인식하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회피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해왔다. 그 사이 종단은 병으로 신음하고 중생들을 향해서는 희망을 건네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간의 방일과 침묵을 떨치고 올바른 수행풍토 조성과 시대가 승단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일어나고자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행정신 회복을 위해 나설 것이다.
둘째, 도반들과 함께 토의하고 공부할 것이다.
셋째, 계파의 폐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종단의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넷째, 종단의 올곧은 새 지도자를 위한 여론의 흐름을 형성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정견에 입각한 올바름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화 합 승 가 포 럼

청암사 승가대학 "감격의 첫 졸업식"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 스님(맨 왼쪽)이 시견 스님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년만에 행사 처음… 선 후배 한자리

20회까지 학인 337명 배출, 곳곳서 맹활약

"반갑습니다. 처음 청암사에 비구니 승가대학 문을 열 때만 해도 집이 새는 것만 고치고 필요시설만 갖추면 졸업식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월 2일. 김천 청암사 대웅전, 청암사(주지 상덕) 승가대학(학장 지형) 제6차 불사회향 및 제1회 졸업식을 맞아 학장 지형 스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경내를 휘감았다. 1987년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갈 후학양성에 뜻을 두고 지형, 상덕 스님이 청암사에 온 지 20년 만에 처음 갖는 졸업식이다.

지형, 상덕 스님이 처음 청암사 승가대학을 열 때 함께 들어온 학인 스님은 겨우 16명. 청암사 승가대학은 어느새 1회부터 20회까지 337명의 스님을 졸업의식 없이 배출해온 것이다.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을 비롯해 직지사 주지 성웅, 해인사 강주 종묵,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 동학사 승가대학장 일초 스님을 비롯한 1000여 사부대중이 축하하는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주지 상덕 스님의 학사보고와 인사말씀, 졸업증서와 선물 수여, 훈화, 송사, 답사, 중창불사에 공헌한 분들에 대한 상패 수여, 치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학인 석현 스님(사교반)은 송사를 통해 "청암의 모든 것에서 선배님들의 땀과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며, "이렇게 자랑스러운 청암을 흔연히 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어느 회상에서든 당당한 청암인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약 20년 만에 청암사를 처음 찾았다는 1회 졸업생 시견 스님(영천 적조암)은 답사를 통해 소지품을 트럭에 싣고 처음 청암사에 들어오던 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경전을 배우고 불사를 도우며 온전히 청암과 하나였던 그때를 회상했다. 그리고 후배 학인 스님들에게 "청암 도량이 든든히 졸업생을 받쳐주는 법의 그늘임을 잊지 말고 즐겁고 충실한 강원 생활하라"고 부탁했다.

이날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앞으로 청암사의 모든 대중들은 열심히 정진해서 거룩한 혼이 깃들도록 해주시기"를 당부했고, 졸업식을 맞는 스님들에게는 "중생들의 부름을 받고 다가가 중생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해주는 꽃이 되라"는 축하의 말을 했다.

글 · 사진=배지선 기자


10월6일 저녁 촛불집회에 참석한 스님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친일재산환수법 제정하라"

조계사 촛불집회 1000명 참가 '한뜻'

"친일파 후손들은 재산 찾기를 중단하고 국회는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10월 6일 저녁, 손에 손에 촛불을 든 사람들이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친일파 이해창 후손이 제기한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내원암 스님들에 이르기까지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친일청산과 민족정기확립을 위한 조계사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친일청산! 친일재산환수법!", "민족정기 통곡한다. 친일파 재산환수법 즉각 제정하라!"등의 현수막이 내걸린 대웅전 앞마당은 어느새 사람들로 발디딜 틈 이 없다.

곧이어 시작된 집회. 대회장을 맡은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한국불교는 1600여년 동안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해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이해창 후손이 소를 취하했음에도 내원암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일파재산환수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용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반민특위가 출범한 10월 22일 이전에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자와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이어 '예쁜아이들'의 율동과 노래, 가수 정태춘 · 박은옥씨 등의 공연을 보며 친일청산의 마음을 모았다. 그리고 다 같이 외쳤다.

"친일청산 만세! 민족정기확립 만세! 특별법 통과 만세!" 어두웠던 과거의 역사가 촛불로 인해 환해지는 순간이었다.

유철주 기자

동방대학원大 박사과정 신설

태고종 종립 동방대학원대학교(총장 정상옥)가 박사과정을 신설하고 정원을 100명에서 207명으로 증원했다.

동방대학원대학교는 이번 박사학위 과정에 서화문예학과, 미래예측학과, 자연치유학과, 요가명상학과를 신설했다. 총 정원은 39명.

또 석사과정에 정원 60명의 자연치유학과, 요가명상학과, 전통무속학과를 증설해 기존의 불교문예학과, 서화문예학과, 미래예측학과 정원 60명을 합해 총 정원을 120명으로 늘렸다. 4년만에 석.박사 학위를 수여받는 통합과정에는 총 정원 48명의 서화문예학과 미래예측학과 자연치유학과 요가명상학과를 개설했다. (02)745-2141

김원우 기자

선학원 설립 의미 짚어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10월 18일 오후 2시 우이동 보광사에서 '선학원 설립의 사적 의미 고찰'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불교사 연구에서 외면 받아온 근 · 현대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근 · 현대한국불교사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02)734-9653

박익순 기자

동국대 이사후보 영배 스님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택, 이하 종관위)는 10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1차 회의를 열고, 영배 스님과 통도사 한주 태봉 스님을 놓고 재투표까지 치르는 접전끝에 영배 스님을 추천했다.

제60차 종관위회의에서 추천된 동국대 이사후보 성파 스님이 사퇴함에 따라 현 이사 영배스님이 다시 추천된 것. 이에 따라 동국대 이사회는 10일 조계종 임시중앙종회에서 현문 스님과 영배 스님 가운데 1명을 추천 동의받아 새 동국대 이사로 선출한다.

조용수 기자

템플스테이 체험 크게 늘어

올 8월까지 3만7372명…연내 5만 넘을 듯

올해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가 3만7372명으로 집계돼, 작년 전체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 3만 6902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진)은 올해 상반기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를 결산한 결과, "전체의 51%가 넘는 1만 9000여 명이 휴가철인 7, 8월에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30대 이전 참가자가 전체의 88%를 차지해 젊은 층의 참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참가자도 작년에 비해 1천여 명 이상 늘어난 4435명이 다녀간 것으로 드러났다. 템플스테이는 하반기에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올해 안에 약 5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은비 기자

"종교문화관광해설사제 신설을"

포교종책연찬회서 제기

우리나라 문화재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 이 불교문화재를 설명할 문화관광해설사를 보충하기 위해 종교문화관광해설사 제도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진명)이 10월 6일 개최한 제5차 포교종책연찬회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활용방안 연구'에 토론자로 참여한 권중서(조계종 포교사)씨는 "종교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문화관광해설사를 교육해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교대학 2년 과정을 이수한 전국의 1800여 포교사를 적극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신라문화원 진병길 원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불교에서의 활용방안과 종단적 과제' 발표를 통해 "지나친 수익성은 종교의 세속화를 불러오고 포교에 부작용으로 작용한다"며 "사찰관광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를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비 기자

불교-가톨릭, 음악으로 하나되어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와 옥천성당(주임신부 곽동철)이 9월 30일 '종교화합-대중과의 만남'을 주제로 합동음악회를 열었다(사진).

옥천성당 합창단과 청년 합창단의 화음으로 시작된 이날 음악회는 김영수 신부와 그룹사운드, 테힐라 색소폰 중앙단 등이 출연해 흥을 돋궜으며, 불교 측에서는 도탈심인당 심인합창단과 지효 스님, 법민 스님의



법고와 승무 등으로 화답하며 화합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명우 기자

학내 종교자유 실현 공익소송

종자연 등 소장 제출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공익소송이 시작됐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을 비롯한 4개 시민단체들은 10월 7일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내 종교자유 실현을 위한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종교 강요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는 청소년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 마련을 미룰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학교가 어떠한 종교행위도 강요받지 않고 종교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군산 혜성초교생 서울 체험

"이 곳에 대통령이 살아요?" "우리 동네에도 놀이기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초분교를 포함한 군산 혜성초등학교 전교생 44명이 한국철도공사 청량리기관차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 초청으로 10월 4~6일 서울 나들이 체험을 했다. 기관사 아저씨들과 함께 하는 '꿈과 희망을 실은 사랑의 열차'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체험은 불교법우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청량리기관차사무소 불자들은 KTX를 타고 상경한 아이들에게 기관차 실물 견학을 비롯해 청와대, 경복궁, 국회의사당, 코엑스 아쿠아리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어린이대공원 '인체의 신비전', 여의도 대한생명 빌딩 관람, 각종 환영행사와 롯데월드 관광 등을 제공했다.

허기림 불교법우회 법사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나혜석 추모 음악회

10월 16일 오후7시 수원포교당(주지 성관) 불교문화원 극락대원전 앞 특설무대에서 나혜석 추모 음악회 '가을밤 재즈에 취해볼까…'가 열린다. 올해 2번째인 이번 추모음악회의 주제는 '인권'. 재즈 피아니스트 임학성 밴드, 재즈 싱어 김준, 김민정씨, 색소폰 연주자 최인씨 등이 출연한다. 김우영 시인이 인권시도 낭송한다.

강지연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HYUN DAE BULKYO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The Jogye Order 0f korean Buddhism Hanmaum Seon Center

원장 대행
주지 혜원

사부대중 일동

▶본 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전화 : 사무처 031)470-3100
팩스 : 031)470-3116
홈페이지 : http://www.hanmaum.org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4구 산 5-2
TEL : 043-877-5000 FAX :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 : 064-727-3100 FAX : 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FAX :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 FAX :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 052-295-2335 FAX :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 053-767-3100 FAX : 053)765-1600
● 중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 055-345-9900 FAX : 055)346-217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5-744-1321 FAX : 055)746-7825
● 공주지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 : 041-852-9100 FAX : 041)852-9105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 054-232-3163 FAX : 054)241-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 : 043-259-5599 FAX :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
TEL : 033-651-3003 FAX :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643-0643 FAX :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1-284-1771 FAX :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 054) 555-8871 FAX : 054)556-1989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 (1-718)460-2019 / FAX : (1-718)939-3974
● Washington D.C.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 (1-703)560-5166 / FAX : (1-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 (1-323)766-1316 / FAX : (1-323)766-1916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 (1-847)674-0811 / FAX : (1-847)674-0811
- CANADA (캐나다 지원)
● Toronto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 (1-416)750-7943
-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1406) Cap. Fed. Rep. Argentina
TEL : (54-11)4921-9286 / FAX : (54-11)4921-9286
● Tucumán (뚜꾸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Yerba Buena,
cp(4107) Tucumán, Rep. Argentina
TEL :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0)2131)969551 / FAX : (49-(0)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 (66-2)391-0091
- BRASIL(브라질)
● Sao Paulo (상파울로 지원)
R. Newton prado, 540-Bom Retiro-CEP01127-000-Sáo Paulo-Brasil
TEL : (55-11) 3337-5291

"세계인이 한국불교를 클릭한다"

세계최대 영문 불교포털

부다피아, 러시아 · 중국어 등 홈피에 이어 12일 개통

6천여 종의 논문, 7만여장의 이미지 등 36개 메뉴 갖춰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앞장서 온 '현대불교 미디어센터(HBMC)'가 지구촌 불자들이 하나되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해 '영어판 부다피아(http://eng.buddhapia.com/)'를 전면 확대개편 했다.

2002년 3월 영어판 부다피아를 오픈, 국내 처음으로 인터넷 해외포교에 나선 부다피아는 지난 5월과 7월 러시아어, 중국어 등 다국어 부다피아를 잇달아 개설한데 이어 10월 12일 3년만에 명실상부한 세계최대의 영어 불교포털의 문을 연다.

오늘날 각기 다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지구촌 시민이 모이는 인드라망(Indranet)의 가상공간이 인터넷이며, 이 곳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언어가 영어임을 고려할 때 이번 영어판 부다피아의 재 탄생은 국제적인 불교포털의 신기원이 될 전망이다.

영어판 부다피아는 △논문(6천여 종) △불교 용어사전(1만9천 단어) △사찰, 문화재, 그림, 인물 사진(7만여 장) △기관/단체(2만6천여 곳) 정보 △무료 스크린 세이버 △국내외 불교사이트(URL) 링크 △불서 정보(www.yosiamun.com 제공) 등 총 36개의 메뉴를 갖추고 한국불교는 물론 불교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세계인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특히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지역별, 분야별 불교관련 기관 및 단체 2만 6천 여 곳의 주소록과 정보가 수록된 '디렉토리 서비스'는 기존 불교사이트들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부다피아 만의 세계불교 인프라다. 또한 불교용어사전을 통해 빨리어나 일어 불교용어 표기에 익숙한 영어권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 용어가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한글 부다피아와 붓다뉴스를 통해 꾸준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불교관련 소식을 선별, 영문 붓다뉴스도 첫 선을 보인다.

영어 부다피아는 불교 포털사이트답게 블로그(개인용 미니홈피), 커뮤니티(불교동호회 모임터), 웹페이지 빌더(단체 홈피) 등으로 점차 서비스를 확대, 전세계 불자 네티즌들이 한데 모여 커뮤니케이션 하는 세계 불교정보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한국을 알리는 불서 판매, 전통 불교문화상품의 온라인 거래 등을 개시해 세계인에게 한국불교문화의 저력을 보여 줄 예정이다.

부다피아는 지난 10년 간 불교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와 정보서비스의 체계 구축 등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부다피아는 향후 10년간 '현대불교 미디어센터(HBMC)'의 중심으로서 세계의 불자들과 함께 쌍방향의(interactive)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 지구촌 인터넷 정토의 허브(Hub)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한상희 기자



영문 부다피아(eng.buddhapia.com) 100배 즐기기

■ 초심자 코너(For Beginners)

◇불교 기초교리(For Beginners of Buddhism) : 외국인 초심자를 위해 불교와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이 직접 세심하게 콘텐츠를 작성.
◇경전 쉽게 읽기(Buddhist Scriptures) : 초심자들이 읽을 만한 다양한 경전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전달.
◇대장경(Buddhist Canon) : 세계 문화유산인 고려대장경을 세계인에게 알리고 법보의 소중함을 일깨움.
◇부처님 생애(Life of the Buddha) : 그림으로 보는 부처님생애, 어린이를 위한 부처님 생애, 팔상성도로 보는 부처님생애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쉽게 조명.
◇고승 법문(Dharma Talks) : 한국및 세계 고승들의 법문을 통해 깨달음의 법향을 전함.

■ 불교의 마음공부법(Practitioners)

◇수행법(Methods of Cultivation) :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북방불교의 참선과 염불선 등 다양한 수행법을 안내.
◇수행단체(Buddhist Practice Groups) : 주요 수행법별로 단체와 활동, 참여방법 등 소개.
◇세계의 고승들(Eminent Monks) : 달라이 라마, 숭산 스님, 틱낫한 스님, 마하 고사난다 스님 등 세계적인 고승들의 일화와 법문 게재.불서의 도서 목록과 도서 정보 제공.

■ 자료실(Library)

◇불교 경전(Buddhist Scriptures) : 주요 불교 경전의 영어 원문 수록.
◇불교사(History of Buddhism) : 한국 불교사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사를 소개해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임.
◇기관/단체(Groups/Organizations) : 전 세계 2만6천 여 불교기관 및 단체의 주소록 기재.
◇세계의 사찰(Temples around The world) :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요 불교국가의 사찰과 불교유적 안내.
◇불교 종단(Buddhist Orders) : 한국과 중국, 일본, 스리랑카 등 주요 불교국가의 종단 안내.
◇법맥(法脈 • Dharma Lineages) : 주요 불교국가의 종파와 고승들의 법맥 소개.
◇스크린세이버(Screen Saver) : 컴퓨터가 잠시 정지해 있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사진과 글을 통해 접하도록 함.
◇논문(Theses) : 6천여 불교논문을 DB화해 논문 제목과 내용, 요약문 등을 검색 가능.
◇도서 목록(Bibliography) : 3만 여 종 이상의 전 세계 영어 불서의 도서 목록과 도서 정보 제공.

■ 불교문화(Culture)

◇불교축제 및 행사(Festivals and Events) : 한국의 불교행사는 물론 세계의 다양한 불교행사들을 소개.
◇불교 미술(Buddhist Art) : 세계문화유산인 대장경, 석굴암 등을 비롯 아름다운 한국 불교미술을 통해 한국 불교미술의 전통과 그 정신을 소개.
◇불교 설화(Legends & Tales) : 한국 불교와 경전 상의 설화를 선별 수록.
◇HBMC 동영상(HBMC Audio/Video) : 한국 고승의 법문을 비디오를 통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게 함.
◇선시(禪詩 • Poetry of Meditation) : 고승들의 선시를 영어로 감상하는 기회.
◇불교 영화(Movies) : 불교 주제의 영화는 물론 일반적인 명화 속에 숨은 불교적 함의와 해석을 전달.
◇불교 음악(Music) : 범패를 비롯해 뉴에지 음악, 명상음악, 국악가요 등 불교적인 정서를 간직한 음악을 소개.
◇갤러리(Gallery) : 한국의 대표적인 사진작가인 안장헌씨의 불교 문화재 작품과 사찰문화연구원의 사찰 및 성보문화재 사진을 갤러리로 전시.

■ 지식센터(Learn more about)

◇불교용어사전(Dictionary for buddhist terminology) : 1만9천 불교용어(영어, 빨리어, 일어)를 수록한 불교공부 도우미.
◇불교 의식/의례(Buddhist Ceremonies) : 문화와 전통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세계의 불교 의식과 의례 소개.
◇불교의 달력(The Buddhist Calendar) : 왜 불교의 행사들은 음력을 따르는지 달력과 연관된 궁금증들을 밝혀 줌.
◇불교와 과학(Buddhism & science) : 불교 속에 숨겨져 있는 과학의 원리를 소개해 불교에 대한 흥미 유발.
◇불교와 사회(Society) :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경전적, 교리적 근거를 제시해 바른 불교적 이상사회를 유도.
◇불교 장례문화(Funerary Customs) : 세계 공통의 관심사인 죽음과 장례의식을 통해 각각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불교의 정신을 밝혀내기 위해 기획.
◇생사(윤회 • Life and Death) : 불교의 핵심 교리인 생사 즉 윤회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

■ 건강/웰빙(Health & Well-being)

◇여성과 불교(Women & Buddhism) : 여성의 인권, 출산, 건강, 음식문화 등 여성과 관련된 불교정보 제공.
◇템플스테이(Temple Stay) : 외국인들이 한국 불교에 관심을 갖고 직접 사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성지순례(Buddhist sacred sites) : 국 · 내외 불교성지를 나라별로 소개. 참배 가이드를 겸함.
◇여행/레저(Travel) : 불교성지와 연계된 일반 관광지와 관광 코스 안내.

제32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교구본사주지연합회 간담회 합의사항

제31대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대종사의 입적을 애도하며, 우리 교구본사주지들은 제32대 총무원장 선거가 공명정대하고 여법하게 이루어져 종도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구본사주지들은 오늘 교구본사주지연합회 간담회를 통해 제32대 총무원장의 자격기준으로 "첫째, 제도개혁의 핵심인 교구자치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춘 분, 둘째, 중앙종무기관을 관리행정 중심의 운영에서 수행과 포교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분, 셋째, 이사에 두루 밝고, 자비의 이타행을 적극 실천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분, 넷째, 상생과 화합의 길을 열어갈 깨끗하고 참신한 분"이라는 4가지를 제시하면서 현재 제32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일련의 흐름에 대해 우리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 다 음 -

1. 인곡당 법장대종사의 입적에 따른 추모의 열기를 왜곡시키는 추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차기 총무원장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케 하여 고인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2. 특정 정파에서 주도하는 추대위원회는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세몰이에 불과하며, 범종단 추대위원회로 인정할 수 없다.
3. 제32대 총무원장 선거일이 공고되고 총무원장 후보자들이 출마를 선언한 시점에 추대위원회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이다.
4. 우리 교구본사주지들은 우리가 제시한 몇 가지 원칙과 부합하는 총무원장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총무원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5. 공명선거를 위해 우리 교구본사주지들은 각별히 노력하고, 그 일환으로 선거일 당일 교구선거인단이 함께 교구본사에서 출발하도록 하여 여법한 선거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

※참여 본사 : 은해사, 범어사, 고운사, 선운사, 월정사, 대흥사, 쌍계사, 마곡사, 금산사, 관음사

불기 2549(2005). 10. 6.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 간담회 참석자 일동

'간화선 열풍' 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선원장스님 21명이 선(禪)의 원류를 찾아 나섰다. 선원장 스님들은 지난 9월 7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중국 선의 발상지로 초조(初祖) 달마 스님의 숭산 소림사에서부터 8조 마조 스님의 체취가 남아 있는 사찰과 유적지까지 샅샅이 순례했다. 이번 순례는 선원장스님들이 직접 선의 원류에서 온 몸으로 역대 조사들의 향훈을 체득하려 했다는 점에서 뜻 깊다. 조계종 선원장 스님들의 생생한 답사 이야기를 여덟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선원장, 禪의 원류를 찾다

– 중국 선종 초조에서 8조까지

초조 달마 : 고우 스님 (각화사 선덕)

9년 면벽의 꽃은 지금도 피어있네



달마 스님이 9년 면벽했던 소림사 달마굴. 달마굴은 소림사에서 1시간정도 올라간 곳에 있다.

숭산 소림사 달마굴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스님께서 편안케 해 주십시오."

"불안한 네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편안케 해주겠다."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벌써 너의 마음을 편안케 하였느니라."

달마 스님을 만나 한쪽 팔을 잘라 바치는 신심을 보인 끝에 달마 스님의 제자가 된 혜가 스님은 달마 스님의 이 한마디에 크게 깨달았다. 이 문답은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건너와 동토(東土)에 전한 선(禪)의 실체요 정수이며, 오늘날 한국에까지 전해져 온 선의 도도한 흐름의 첫 줄기요, 중생의 무지(無智)를 일순간에 밝힌 빛이기도 하다.

멀고 먼 길을 따라 중국에 온 달마 스님은 성실한 수행력과 구도심을 갖춘 제자 혜가를 만남으로써 인도 27대조였던 스승 반야다라의 뜻을 받들어 전법의 첫 열매를 맺는다.

달마굴에서 9년의 기다림 끝에 영근 그 열매는 중국의 선맥을 따라 한국까지 건너와 한국 선불교의 옹골찬 결실을 맺었고 수많은 선승을 낳았다.

달마와 혜가의 조우(遭遇)가 이뤄진 이후 다시 1천 4백여 년의 세월이 흘러간 2005년 9월 9일 숭산 소림사 달마굴 앞. 고우 스님(각화사 서암 주석)이 중국 선종의 초조(初祖)인 달마 스님을 만나려 하고 있었다. 9월 7일 한국의 선원장 스님 20명과 함께 한국을 출발, 선의 원류를 찾아 나선지 3일만이었다.

고우 스님의 선종사찰 답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소림사와 달마굴 답사만도 벌써 세 번째다. 선종사찰 순례단의 가이드 역할을 겸하게 된 이유도 중국 선종 사찰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벌써 여러 차례 답사를 한 것이 작용을 했다.

"앞서간 선지식들이 살던 절을 찾아 그분들이 남기고 간 체취와 흔적을 만나보고 싶어서 중국 선종 사찰을 여러 번 찾았고 이번에도 그 마음으로 답사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선원장 스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답사를 한다는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라 여겨져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고우 스님이 밝히는 선종 사찰 답사의 목적은 간단명료하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조사 스님들의 흔적을 찾아 그분들이 전하고자 했던 마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면면히 이어져온 선맥(禪脈)을 올곧게 이어가겠다는 발원을 하기 위함이었다.

회광반조(回光返照)로 마음을 바로 깨달아 들어가는 안심법문(安心法門)의 현장인 달마굴에 오르는 길은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다. 일행 중 나이가 가장 많은 고우 스님은 달마굴로 오르는 계단에 제일 먼저 접어들었다. 쨍하게 내리쬐는 뜨거운 기온 탓에 땀이 비 오듯 흘러도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건만 40분이면 족하다는 달마굴까지 한 시간 여를 더 소요했다. 결국 고우 스님은 출발 때와는 달리 달마굴에 맨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말았다. 달마굴은 몹시 좁다.

서너 사람이 들어가면 가득 차 버리는 달마굴은 달마 스님이 9년 면벽하며 선의 씨앗을 뿌릴 때를 기다린 곳이다. 달마굴에 들어서니 어색한 천연색 가사를 입혀 놓은 달마 스님의 등신불이 이제는 벽을 향하지 않고 달마굴을 찾는 수많은 대중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다. 9년 면벽을 통해 만났던 혜가 스님이 그러했듯 다시 곧바로 마음을 깨달아 들어갈 선기(禪器)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부처님의 삼처전심(三處傳心)으로부터 이어져 온 선맥은 달마 스님을 통해 중국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마 스님이 전한 선이 중국의 도교와 결합된 중국화된 불교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그건 결코 아닙니다. 달마 스님이 중국에 전한 선과 부처님이 깨달은 선의 세계는 조금의 차이도 없어요. 영산회상의 염화미소, 다자탑전의 반분좌, 사라쌍수하 곽시쌍부에서 시작해서 인도의 28대 보리달마까지 전해졌고 달마 스님은 다시 동토의 초조가 된 것입니다.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 자리에서 일초직입여래지(一超直入如來地)하는 선은 달마 스님에 의해 광활한 중국대륙에 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건너왔을 당시에는 교가 성했던 시기였어요. 논리적, 단계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말로서 불교를 이해하려 하다보니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기

달마굴에서 '안심법문' 으로 禪門 여니
시대 바뀌어도 조사의 향훈 그윽해

소림사 인근 수많은 무술도장 안타까워
엘리트들 많이 출가 '중국불교 희망적'

대해 이해를 갖추었던 무제였지만 논리로서 헤아릴 수 없는 문답 끝에 미궁에 빠져버린다.

결국 그는 앞에 앉아있는 달마 스님을 향해 다시 묻는다. "그대는 누구십니까?" 이때, 달마 스님은 '나' '너'라는 주객을 떠난 무아(無我)의 세계를 일깨워주기 위해 '불식(不識)'이라고 답한다. 그러나 그 마저도 무제는 깨닫지 못했고 달마 스님의 소림사행을 재촉하고 만다.

이때부터 달마굴의 9년 면벽이 시작된다. 달마 스님은 벽만 바라보고 묵언한 채 앉아 있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듯한 달마 스님의 깊은 묵언과 면벽 속에는 이미 중국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승려들 중에서 제자를 고르는 내밀한 작업이 깃들어 있다. 달마 스님이 깊은 침묵 속에 앉아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달마 스님을 찾아왔지만 그 등을 보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옳다 그르다는 시비분별에 익숙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허공' 같고 '벽' 같은 달마 스님의 침묵 앞에서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혜가 스님이 찾아왔다. 이미 중국으로 건너오기 전 깨달음을 얻었고 40년 동안이나 스승인 반야다라를 시봉한 달마 스님의 묵언 면벽은 중국 구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혜가 스님의 발길을 달마굴에 닿게 한 것이다.

혜가 스님은 최고조의 신심을 갖추었고 누구보다 구도 열정이 강했던 순수한 수행자였다. 눈이 내리고 그 눈이 무릎까지 차올라도 꼼짝하지 않고 법을 구했다. 그러나 달마 스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혜가는 왼쪽 팔을 잘라 눈을 붉은 선혈로 물들였다. 혜가 스님의 붉은 피는 100%의 신심과 발심의 상징이다. 혜가 스님의 단비구법(斷臂求法)은 법을 얻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서슴없이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불법의 가치를 바로 아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 불안했던 혜가 스님은 안심법문을 통해 마음을 깨닫고 인가를 받게 된다. 100%의 발심이 깨달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다. 그 문으로 들어서기 전까지 혜가 스님은 평범한 수행승에 불과했다.

그러나 섬광처럼 일어난 '유아(有我)'에서 '무아(無我)'로의 의식개혁은 혜가 스님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제 더 이상의 불안이 없는 절대 평등, 절대 평온의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혜가 스님의 의식은 엄청난 혁명을 일으켰다. 달마 스님이 9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 까다롭게 고른 제자 혜가 스님에게 의식 혁명이 일어난 그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눈은 여전히 내렸을 것이다.

그날 흩날리던 눈발은 햇살이 되어 선원장 스님들의 머리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제법 뜨겁다. 그러나 선원장 스님들은 법당을 참배할 때 반드시 가사를 수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수한 스님들의 행렬은 소림사를 찾은 관광객들과 참배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선종의 흔적을 찾아 소림사를 찾은 사람들은 소림사가 무술 수도장처럼 변모해버린 것에 조금은 실망한다. 소림사 주변에 무술을 연마하는 학교가 수백 곳에 달하고 곳곳에서 기합소리가 울리고 있어 중국 선의 초조가 머물렀던 선종의 시원(始原)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소림사엔 선원도 없다.

한국의 선원장 스님들 역시 소림사의 현재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달마굴, 입설정 등 오랜 과거속의 이야기를 형상화, 구체화해 놓고 조사스님 중심의 불교를 가꿔가는 중국 불교의 특징이 아니었다면 소림사는 선종 사찰로서의 사격(寺格)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선종 사찰 답사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현장에 있는 중국 스님들이 과거에 살았던 큰스님들의 행적이나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황당한 경우가 많았어요. 선종사찰뿐 아니고 다른 절도 문화혁명의 피해가 엄청나게 컸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답사했을 때와 비교하면 처음에 선종 사찰에 갔을 때는 별로 스님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스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젊은 엘리트들이 많이 출가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불교의 희망적인 요소입니다. 이번에 답사했을 때도 20대 미만의 젊은 스님들 30명 정도가 열을 지어 가는 걸 보고 너무 부럽다는 얘기를 스님들끼리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불교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실감 했어요."

백지와 같은 상태인 중국 불교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평한 고우 스님은 한국 불교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달마 스님이 중국에 선을 전했던 그때의 정신으로 돌아가 의식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의식개혁을 담당하는 주체가 바로 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잊지 않았다.

선은 자기와 자기의 갈등을 잠재우고 가족간의 갈등, 국가, 이념, 종교의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달마굴에서 몸을 일으키니 어느새 한국의 불교에 발길이 닿아 있다. 시공을 훌쩍 뛰어넘어 달마 스님의 법을 한국 선불교의 현재에 되살려야 한다는 발원이 꿈틀거린다. 고우 스님은 달마 스님의 굴 앞에서 생각한다. 옛 조사스님들이 몸소 밝혀 주신 길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게 하는 길은 무엇일까? 견고하게 이기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동업중생들의 삶 속에 선을 뿌리내리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 달마 스님이 9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공을 들여 혜가 스님을 만났다면 이제 다시 우리는 어디서 달마 스님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



달마굴 안에 모셔진 달마상.

"본질을 보게 되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겁니다. 우선 내가 없다, 모든 것은 연기로 존재한다는 정견을 갖추고 정견에 의해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가치관의 전환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러한 기본 토대위에 화두도 들고 염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문 수행을 가미해야 합니다.

정견에 입각한 생활을 100%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부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불교의 수행풍토는 생활은 이기심으로 하고 있으면서 선방에 들어가서 이기심을 극복하고 무아가 되려고 하는 형국입니다.

생활 따로 수행 따로인 한국 불교의 병폐를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견에 의해 가치관이 바뀐 후 생활도 무아로 하면서 선방에 들어가서 노력할 때 서로 맞물려 공부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구하던 마음을 돌이켜 바로 달마 스님의 침묵, 등돌림, 담벼락(心如障壁)같은 마음으로 들어갈 때라야 달마 스님도 혜가 스님도 부처도 내 마음과 이미 하나로서 완성되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사진제공=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소림사 경내 달마 조사상 앞에 선 고우 스님(오른쪽). 그 옆이 혜국 스님과 설우 스님이다.



소림사 대웅보전. 소림사는 선원을 운영하지 않지만 중국선의 발상지를 지키고 있다.

고우(古愚) 스님은 1937년 성주生. 25살 때 청암사 수도암에서 법희 스님을 은사로 출가. 관응스님, 고봉 스님, 혼해 스님으로부터 각각 기신론, 금강경, 원각경을 수학. 축서사 김용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 각화사 태백선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각화사 서암에 주석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HYUN DAE BULKYO

현대불교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大韓佛教 觀音宗

총무원 :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8-3
TEL 02)763-0054. 3345 FAX 02)763-5851
www.kwanum.or.kr

현대불교 창간 11주년 축하합니다

清心淨土

即身成佛 現世淨化

한국밀교 중흥종단 진각종

한국불교의 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總印 慧一

統理院長 悔淨 宗議會長 鎭山
教育院長 敬淨 查監院長 惠明

대한불교 진각종
http://www.jingak.or.k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
대표전화 : (전국)1588-5525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財團法人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재단이사장 경원 종 정 무찰 총무원장 동봉

명예이사장 붕해 장로의장 금봉 종회의장 지공 총무원부원장 혜천 서울교구 총무원직할
상임이사 혜광 장로부의장 명종 종회부의장 정수 총무국장 일웅 부산교구 유심
이 사 혜운 장로위원 수암 사무처장 도안 재무부장 영명 대전교구 도안
이 사 무찰 원경 재무국장 일명 천산교구 유정
이 사 청암 청송 종회의원 현암 교무국장 동청 산구교구 화엄
이 사 동암 송은 법재 용주 인오 교무국장 동청 전원교구 석담
이 사 동봉 원각 법안 지운 법정 규정부장 지성 동부교구 보해
이 사 도기 혜운 성각 삼주 남혜 교육부장 법해 서울대인교구 동청
이 사 지공 고시위원장 청송 덕산 보광 송암 교육국장 법광 강남교구 지성
이 사 일명 대호 법경 청표 사회부장 경운 경기남부교구 법해
이 사 법광 호계원장 용암 호암 무공 무연 사회국장 영우 경기북부교구 도혜
이 사 담화 감사원장 화엄 홍보부장 성각 경남교구 정수
감 사 혜천 포교원장 원각 홍보국장 효산 전북교구 해동
감 사 혜원 선거관리위원장 법성 충남교구 혜성
충북교구 영명
제주교구 총무원직할
교구 현철

총무원 : TEL 02) 998-8161, 2 / FAX 02) 998-8384
서울시 강북구 수유5동 440-27엄지빌딩 4층 /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大韓佛教 佛入宗

宗正 鏡照
總務院長 鏡岩
護法院長 萬昊
布教院長 惠鏡
宗會議長 石庵
釜山 慶南 宗務院長 法輪

慧相法印 光雲眞修
長老長 長老部 經織法教 譯組護布
長老長 長老部 組織法教 譯組護布
長老長 長老部 教育法教 譯組護布
長老長 長老部 教育法教 譯組護布
長老長 長老部 教育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환경 건강 마음 모두 지켜야죠

서울광역신도회 주최 제2회 한강행복문화축제 현장

가을을 시샘이라도 하듯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린 10월 첫날. 3000여 대중이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고 마음공부에 매진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수변마당에 모였다. 조계종 서울광역신도회(회장 김진관)가 마련한 제2회 한강행복문화축제가 열리는 현장이다.

지난해 열었던 달마마라톤 대회를 확대해 마련된 이날 축제는 마라톤 외에도 '아리수 환경문화연대' 발족식,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과 함께 하는 걷기 명상, 어린이 사생대회, 불자연예인 공연등 각종 문화행사로 꾸며져 참가자들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챙긴 흥겨운 날이었다.


1


2


3


4




5

비가 와도 우리는 달린다!

전날부터 내린 폭우가 잠시 주춤한 오전 9시. 1200여명의 건각(健脚)들이 5km, 10km, 하프코스, 30km 분야로 나뉘어 달리기 시작했다. 부녀, 부부, 직장동료, 신도회 도반 등 다양한 인연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우렁찬 함성과 함께 빗속을 뛰기 시작했다. 시작부터 온힘을 다해 뛰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몇몇은 달리기보다 우중(雨中) 대화에 더 열중이다. 앞질러 가는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응원까지 해주니, 선수인지 응원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출발 30여분이 지나자 5km 참가자들이 결승선을 통과하기 시작한다. 마라톤 출발과 함께 다시 시작된 빗줄기는 가늘어지지 않고 있지만, 환한 표정의 참가자들은 결승점을 향해 거친 숨을 내뱉었다.

과천 청계사 도반 20여명과 함께 참가한 박상관(45 ·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씨는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불교축제에 참석하게 돼 색다른 재미가 있다"면서도 "비가 많이 와서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달마마라톤 대회 확대해 국민 축제로 진행
마가 스님의 걷기 명상 등 참가자들에 인기
한강보존 위한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창립

한강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달마마라톤이 끝나고 열린 한강행복문화축제 개막식. 서울광역신도회 김진관 회장은 "한반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한강에서 불자와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축제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친 심신을 달래고 청정한 환경을 만드는 축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축제의 취지를 설명한다.

개막식에 이어 진행된 아리수 환경문화연대 발족식. 아리수 환경문화연대는 한강을 보전하고 가꾸기 위해 이날 공식 창립된 단체로 26개 환경 · 신도단체가 뭉쳐 탄생한 기구다. 아리수 환경문화연대 이재승 상임고문(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 모두가 환경 파수꾼이 돼 한강을 지켜나가자"며 △물사랑 실천 △한강 생태계 복원 △서울시민의 환경권 확보 등을 활동목표로 제시했다.

발족식 후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됐다. 언뜻 보기에 깨끗한 것만 같던 한강에서 많은 양의 쓰레기가 수거됐다. 봉은사 청년회 유문관 부회장은 "평소 무심하게 지나치던 한강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많을 줄 몰랐다"며 쓰레기 줍기에 열심이다. 한국수중환경협회 회원들이 건져 올린 고철과 빈병까지 한데 모으니 쓰레기가 산처럼 쌓였다.

청소가 끝나고 조계종 군종교구 주지 일면, 포교부장 일관 스님 등과 민주당 한화갑 대표, 동국대 조용길 불교대학원장, 장미화 한국불교예술인연합회장을 비롯한 대중은 현장에서 펼쳐진 정토회 빈그릇운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발우공양으로 점심식사를 하기도 했다.

흙의 신선함에 마음이 차분

점심 공양을 마친 참석자들이 다시 무대 앞에 모였다.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의 지도에 따라 걷기 명상을 하기 위해서다.

걷기명상은 몸속의 나쁜 기운들을 배출하고 머리를 채우고 있는 잡념을 비워내는 수행법. 어린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불자와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그런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마가 스님이 신발과 양말을 모두 벗고 걸어보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아직 물이 채 빠지지 않아 군데군데 질퍽거리는 곳이 많았기 때문인지 참가자들은 처음엔 당혹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걸음을 옮길 때마다 느껴지는 흙의 신선함과 싱그러움에 마음이 차분해진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모든 집착과 번뇌도 놓아버렸다. 형부-처제 사이인 이종각(54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 성미순(44 ·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씨는 "마라톤으로 쌓였던 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다"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마가 스님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여주고 이 시간 이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평화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전해주라"며 걷기명상을 마무리했다.

이날 이외에도 한강과 환경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에서는 20여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그림솜씨를 뽐냈으며, 머루와 다래, 장미화 등 불자연예인들이 진행한 축하 행사 역시 불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됐다.

불교계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한강행복문화축제. 이날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수변마당 축제의 현장처럼 우리 사회에도 갈등과 반목이 아닌 이해와 화합의 마음이 넘쳐나길 기원했다.

글=유철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1걷기명상에 참가한 불자들이 맨발로 수변마당 잔디밭을 걷고 있다. 2수중환경협회 회원들이 한강에서 쓰레기를 건져 올리는 모습. 3달마마라톤에 참가한 부부가 나란히 결승점을 통과하고 있다. 4 '아리수 환경문화연대' 발대식에서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5함성과 함께 출발선을 나가고 있는 1200여 달마마라톤 참가자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여기서 방황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한국 파동 빙의연구원 원장스님의 놀라운 의통과
투시능력으로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해결 해 드립니다.

- 첫째,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일은 예고없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지은 전생의 카르마(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 둘째,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의 악기(惡氣)로 누적된 파장으로 인해 자기 앞에 예기치 않은 사고, 질병이 나타난다.
- 치유법 : 윤회 카르마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를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 과학적이며 종교철학적 관점에서 그 원인과 해결법을 제시한다.

빙의령인지 확인 - 영가와의 대화 - 영가천도 환자 스스로 자기 몸속에 영가와 대화할 수 있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세의 쟁애인지 확인 - 상담 - 현세의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 해결한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되는 것일까?
- 병도 없이 몸이 아프며 백방치료해도 왜 효과가 없을까?
- 집안에 불화와 우환은 왜 끊이지 않을까?
- 원인모를 병과 사업실패, 직장실패, 부부실패, 집안이 편치 못한 것은 왜 그러할까?
- 묘터와 수맥으로 인하여 피해가 없는가?
- 사주에 맞지 않는 이름 사용으로 피해가 없는가?
- 원인모를 불임시에는 태아영가의 장애였는지 의심해 봐야한다.

여러번의 종교의식(천도나 제령)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분 상담

빙의(憑依)로 나타나는 증상
내 몸속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내 자신이 나를 조절할 수 없고
누군가 내 머릿속에 뭐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대표적 증상이며 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상한 행동, 환청, 환시, 우울증, 강박증세,
심리불안, 조울증,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등 갖가지 증상을 호소한다.

한국 파동빙의연구원
053)767-0036

현대불교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HYUN DAE BULKYO

포교·교육·사회복지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는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관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 도선사 전경

주지 **선묵 혜자**

대중일동

■ **포교분야**
주간 도선법보, 월간 여성불교, 홍은동 포교당, 봉천동 포교당, 성주 대흥사, 안동 세심사, 하와이 무량사

■ **교육분야**
재단법인 청담장학문화재단, 학교법인 청담학원
청담중고등학교, 도선불교 실달학원 교리반 경전반

■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청담종합사회복지관,
혜명불교양로원, 혜명보육원, 각구 어린이집 11곳

142-871 서울 강북구 우이동 264 TEL 02)993-3161~3 / FAX 02)993-3164
www.dosunsa.or.kr

봉은사와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도량 · 공부하는 도량 ·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
禪宗首寺刹 봉은사



△ 봉은사 야경

예배한다는 것은 공경하는 것이며 굴복하는 것이다.
참된 성품을 공경하는 것이며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서산대사『선가귀감』-

주지 **설담 원혜**

사부대중일동

봉은사 법회 안내

참회와 서원을 다짐하는「삼천배 철야정진 대법회」를 봉은사에서는 매년 입시기도 발원과 함께 봉행합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아만과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자기자신을 낮추는 것이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상대방을 공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을유년 삼천배 철야정진 대법회를 통하여 지난날의 삶에 대해 참회하고, 나와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는 새로운 정진을 다짐하는 시간되시길 기원합니다.
관심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2006학년도 수험생 합격발원 기원
삼천배 철야정진 대법회
- 일시 : 불기 2549년 10월 29일 토요일 (음 9.27)
- 장소 : 대웅전, 법왕루 및 사중 경내
- 문의 : 접수처 3218-4800~5

2006학년도 수험생 합격발원 기원
촛불 기원 법회
- 일시 : 불기 2549년 11월 12일(토/음10.11) 저녁예불 및 기도 후 7시
- 장소 : 대웅전 앞 마당
- 문의 : 접수처 3218-4800~5

135-090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 TEL 02)511-6070 / FAX 02)544-2141

대한불교조계종
축 서 사

주지 **무 여**

사부대중일동

- 축서사 불교교양대학 운영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TEL 054)672-7579
홈페이지 www.chooksersa.org

대한불교조계종
김 룡 사

주지 중 원

신도일동

■ 경북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410
TEL 054)552-7006

대한불교조계종
광 흥 사

주지 일 현

사부대중일동

■ 경북 안동시 서후면 자품리 813
TEL 054)841-6848

범패최초 컨래지
대한불교조계종
정법도량 남 장 사

주지 **관 도**

사부대중일동

냉림사회복지관 부설
보광어린이집 운영

경북 상주시 남장동 502번지
TEL 054)534-6331
홈페이지 www.namjangsa.com

재단법인 선학원
대한불교조계종
영주 관음사

주지 도 기

사부대중일동

관음사 어린이집 운영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원리 739번지
TEL 054)633-1138

대한불교조계종
서 악 사

주지 도 일

사부대중일동

룸비니 유치원 운영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13
TEL 054)655-1001

‘청정 요건’ 재정 투명화 – 깨끗한 사생활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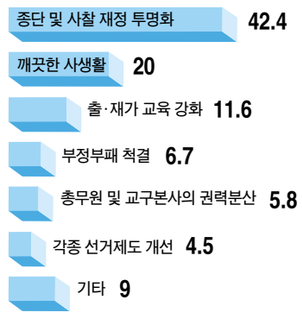
■ 현대불교신문 창간기념

‘한국불교 청정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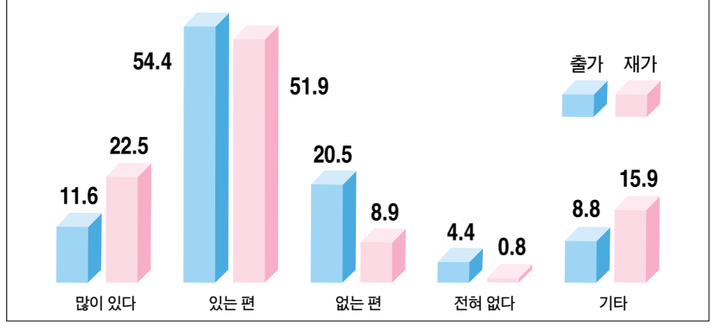
1994년 조계종 개혁. 그것은 다름 아닌 승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자는 모두의 다짐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불교의 승가는 어떤 모습인가. 청정해야 할 승가는 ‘오염’돼 가고 있고, 무분별한 세속화로 불교는 ‘상품’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변해야 한다. 이에 ‘현대불교’는 창간 11주년을 맞아 한국불교가 청정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승가로 돌아가기 위한 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출 · 재가 오피니언 리더 224명의 목소리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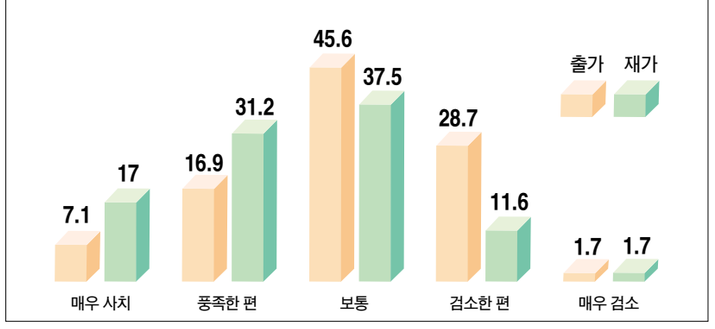
■ 청정 제1조건은? (단위%)



■ 각 종단 인사 · 행정에 부정부패가 있다고 보는가? (단위%)



■ 스님들의 소비행태 (단위%)



한국불교 청정도

이번 설문 결과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출 · 재가를 막론하고 한국불교의 청정도에 대해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생명이 청정성에 달려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견주어보면 한국불교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는 결론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출 · 재가자의 청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출 · 재가자 모두 평균 6점대를 받았다. 6점대를 매우 낮다고 분석한 이유는 5~6점을 준 응답자들이 청정도가 낮다는 반응을 보였고, 어느 정도 괜찮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8점 이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염준근 동국대 통계학과 교수는 “일정한 기준 없이 응답자가 자의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설문에서는 응답자가 적용한 기준을 평가척도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경우 평균치인 6점대를 선택한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청정도가 낮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6점을 낮은 점수로 분석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출가자 보다 재가자들이 한국불교의 청정성 훼손을 더 높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출가자는 스스로에게 6.4점, 재가자에게 6.1점을 준 반면, 재가자는 출가자에게 6.1점, 스스로에게 5.8점을 매겼다.

청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불교의 세속화 · 권력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재가자들은 출가자 보다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출가자는 ‘위험한 수준’ ‘우려할 만한 상태’라는 응답이 각각 12.5%, 33.9%였지만, 재가자는 17.8%가 ‘위험한 수준’, 41.9%가 ‘우려할만한 상태’를 꼽았다. 이를 합하면 출가자의 46.4%에 비해 재가자는 59.7%에 달한 것이다. 여기에서 출가자도 스스로 한국불교의 세속화 · 권력화에 대한 위험성을 상당히 높게 판단하고 있는 점은 간과해선 안 될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한국불교가 청정해지기 위한 제1요건을 묻는 문항에서는 출 · 재가 모두 ‘종단 및 사찰 재정 투명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시각차도 드러냈다. 재가자는 재정 투명화(58.9%), 스님들의 깨끗한 사생활(16.1%), 부정부패 척결(8.2%) 순으로 응답했지만, 출가자는 재정 투명화(25.8%), 스님들의 깨끗한(검소한) 사생활(24.3%), 출 · 재가 교육 강화(16.9%)를 차례로 꼽았다. ‘종단 및 사찰 재정 투명화’와 ‘스님들의 깨끗한 사생활’이 우선순위로 꼽힌 점은 재가는 물론 출가도 한국불교의 청정도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종단 및 사찰 운영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불교계 각 종단과 사찰운영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번 설문에서 확인됐다. ‘각 종단의 인사 · 행정에 부정부패가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가자의 66%와 재가자의 74.4%가 많이 있거나 있는 편이라고 답해 절반이 훨씬 넘는 수치를 보인 것.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많이 있다’는 응답은 스님들이 11.6%, 재가자들은 22.5%였으며, ‘있는 편’이라는 답은 출가자가 54.4%, 재가자가 51.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재가자는 물론 심지어 스님들까지도 종단운영과 관련해 부정부패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전혀 없다’는 응답은 스님들과 재가자가 각각 4.4%, 0.8%에 불과했고, ‘없는 편’이라는 응답은 출가자가 20.5%, 재가자가 8.9%였다. ‘모르겠다’를 꼽은 응답자는 출가 7.1%, 재가 13.3%였다.

투명한 사찰 운영을 위한 우선과제를 묻는 문항에서는 사찰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33.2%의 스님들과 39.5%의 재가자들이 ‘사찰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꼽았고, 스님 31.2%와 재가자 36.6%의 응답자들은 ‘재정 공개’를 선택했다. 두가지 의견 모두 재가자의 수치가 높게 나타난 점은 사찰운영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재가불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음 순위로 재가자는 ‘투명한 불사’(13.3%)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8.9%)를, 출가자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13.3%) ‘투명한 불사’(12.5%)를 들었다.

‘청정한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종법과 규정 외에 별도의 청규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출가자에서 더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끈다. 스님들은 25%가 ‘반드시 필요하다’, 32.1%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스님들의 생활

스님들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재가자에 비해 출가자들이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또 재가자들은 스님들의 소비행태와 사설사암 소유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출가자들은 ‘스님들의 사설사암(토굴 포함) 소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32.2%가 ‘문제될 것 없다’고 응답했고, ‘작은 규모라면 괜찮다’는 응답자도 19.8%에 달해 사설사암 소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재가자들은 ‘안하는 것이 좋다’(34.9%)를 가장 많이 꼽았고, ‘절대 안된다’는 응답도 29.5%나 됐다. 사설사암 소유를 부정적으로 보는 출가자의 응답도 41.9%에 달했다.

순위별로 보면, 스님들이 ‘문제될 것 없다’ ‘안하는 것이 좋다’ ‘절대 안된다’ ‘작은 규모라면 괜찮다’ 순으로 꼽은 것과 달리 재가자는 ‘안하는 것이 좋다’ ‘절대 안된다’ ‘작은 규모라면 괜찮다’ ‘문제될 것 없다’ 순으로 선택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엇갈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사설사암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출가자는 사암 재산을 ‘종단에 등록한 사설사암’으로 이해한 경우가 많았고, 재가자는 종단 등록과 관계없이 공사찰 이외의 모든 사암을 사설사암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 출가자들은 사설사암의 포교활동이 공사찰에 비해 더 활발한 현실을 높게 평가한 반면, 재가자들은 스님들이 삼보정재를 노후복지의 일환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이해한 경우가 많았다.

스님들의 소비행태를 묻는 문항에서는 출가자에 비해 재가자가 보다 비판적인 성향을 보였다. ‘매우 사치스럽다’와 ‘풍족하게 쓰는 편’을 꼽은 출가자는 각각 7.1%, 16.9%였지만, 재가자는 17%, 31.2%에 달해 출가자의 두 배가 넘었다. 반면 ‘검소한 편’이라는 응답은 출가자는 28.7%였으나 재가자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11.6%에 불과했다.

청정성 훼손 6.4~6.1점으로 재가자들 더 우려

세속화 · 권력화 46.4% 출가자들도 ‘위험한 수준’ 판단

청규 제정 부정적 견해 높고 ‘지키지 않는 풍토’ 지적

사설 사암 소유는 포교활동-노후복지 일환 의견 대립

설문조사팀
박봉영 · 유철주 · 노병철 기자
이은비 · 김강진 기자
부산 주재 천미희 기자
대구 주재 배지선 기자

설문 결과

※ 앞 괄호는 출가자, 뒷 괄호는 재가자 응답률.

1. 한국불교가 청정해지기 위한 제1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종단 및 사찰 재정 투명화 (25.8%) (58.9%)
②총무원 및 교구본사의 권력 분산 (5.3%) (6.3%)
③스님들의 깨끗한(검소한) 사생활 (24.3%) (16.1%)
④부정부패 척결 (5.3%) (8.2%)
⑤각종 선거제도 개선 (8.2%) (0.8%)
⑥출 · 재가 교육 강화 (16.9%) (6.3%)
⑦기타(출가정신 회복) (14.2%) (3.4%)

2. 귀하는 출가자의 청정도를 몇 점으로 보십니까?
평균(6.39) 평균 (6.14)

3. 귀하는 재가자의 청정도를 몇 점으로 보십니까?
평균 (6.06) 평균 (5.75)

4. 한국불교계가 세속화 · 권력화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위험한 수준이다 (12.5%) (17.8%)
②우려할만한 상태다 (33.9%) (41.9%)
③그런 경향은 있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30.4%) (24.3%)
④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 (11.6%) (7.1%)
⑤그렇지 않다 (11.6%) (8.9%)

5. 각 종단의 인사 · 행정에 부정부패가 있다고 보십니까?
①많이 있다 (11.6%) (22.5%)
②있는 편이다 (54.4%) (51.9%)
③없는 편이다 (20.5%) (8.9%)
④전혀 없다 (4.4%) (0.8%)
⑤관심없다 (1.7%) (2.6%)
⑥모르겠다 (7.1%) (13.3%)

6. 청정한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종법과 규정 외에 별도의 청규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반드시 필요하다 (25.0%) (29.4%)
②어느 정도 필요하다 (32.1%) (19.7%)
③현행 종법과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 (29.4%) (41.0%)
④필요치 않다 (13.3%) (9.9%)

7. 투명한 사찰운영을 위한 우선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재정공개 (31.2%) (36.6%)
②사찰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33.2%) (39.5%)
③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 (13.3%) (8.9%)
④투명한 불사 (12.5%) (13.3%)
⑤기타 (9.8%) (1.7%)

8. 스님들의 소비행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①매우 사치스럽다 (7.1%) (17%)
②풍족하게 쓰는 편 (16.9%) (31.2%)
③보통이다 (45.6%) (37.5%)
④검소한 편이다 (28.7%) (11.6%)
⑤매우 검소하다 (1.7%) (1.7%)

9. 스님들의 사설사암(토굴 포함) 소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절대 안된다 (20.5%) (29.5%)
②안하는 것이 좋다 (21.4%) (34.9%)
③작은 규모라면 괜찮다 (19.8%) (19.7%)
④문제될 것 없다 (32.2%) (12.5%)
⑤모르겠다 (6.1%) (3.4%)

설문 응답자 명단 (224명)

■ 출가자

개운(안산사암연합회장) 경암(불입종 총무원장) 광민(광주 무각사 주지) 광옥(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사회부장) 남정(총화종 총무원장) 대성(부산 범어사 주지) 대운(선학원 이사) 대화(본원종 총무원장) 덕문(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덕진(울산 정토사 주지) 도공(보은 법주사 주지) 도명(고양사암연합회장) 도문(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도원(부산 삼광사 주지) 돈관(불광사 경북불교대학장) 동봉(진주 여래원 주지) 두백(장성 백양사 주지) 명수(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재무부장) 몽산(해남 대흥사 주지) 무외(진각종 교법부장) 무원(천태종 사회부장) 문덕(천태종 총무부장) 백운(태고종 교무부장) 범수(군위 신흥사 주지) 범여(고창 선운사 주지) 법명(옥천 백운사 주지) 법안(조계종 기획실장) 법운(청양사암연합회장) 법운(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장) 법정(예산 수덕사 주지) 법타(영천 은해사 주지) 법해(동두천사암연합회장) 법현(태고종 사회부장) 법혜(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보각(중앙승가대 교수) 본각(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성관(실천승가회 공동의장) 성수(부여사암연합회장) 성운(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이사) 성웅(김천 직지사 주지) 성원(거제 금강사 주지) 성일(화성 신흥사 주지) 성제(영동 반야사 주지) 성직(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수진(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현(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승원(가평 상하면사암련 회장) 승혜(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규정부장) 영담(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영조(순천 송광사 주지) 우승(총지종 통리원장) 우학(영남불교대학장) 원봉(태고종 중앙종회 부의장) 원행(김제 금산사 주지) 원혜(서울 봉은사 주지) 월우(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월해(태고종 총무부장) 유정(천태종 교무부장) 의연(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이암(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이행정(진각종 문화사회부장) 일관(조계종 포교부장) 일정(보령사암연합회장) 일화(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자민(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자월(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장곡(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장적(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재운(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정각(부산 미륭사 주지) 정념(조계종 사회부장) 정덕(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정여(부산 여여선원 선원장) 정운(보령시 청소년상담실장) 정호(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종광(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종삼(구례 화엄사 주지) 종인(옥련청소년개발원장) 종훈(과천사암연합회장) 주경(서산 부석사 주지) 지거(서울 보현의 집 원장) 지관(김포 용화사 주지) 지성(대구 동화사 주지) 지완(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현(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지홍(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진옥(여수 석천사 주지) 진원(부안 내소사 주지) 진화(광주 증심사 주지) 청안(예천 용문사 주지) 초격(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춘광(천태종 총무원 부원장) 탁연(조계종 문화부장) 태진(조계종 호법부장 직무대행) 해월(법상종 총무원장) 행법(광주 선덕사 주지) 허운(조계종 재무부장) 현관(조계종 교육부장) 현진(청주 관음사 주지) 혜각(태고종 중앙종회의원) 혜봉(이천사암연합회장) 혜암(제천불교총연합회장) 혜향(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화암(양평사암연합회장) 회성(진각종 총무부장) 효림(동해 삼화사 주지) 효천(남해 화방동산 주지)

■ 재가자

강수균(대구대 교수) 고경순(대구자비의전화 회장) 고영일(우리회계법인 대표이사) 공병수(부산불교신도회 회장) 곽임호(중앙인사위원회 불자회장) 권순국(서울대 교수) 권오창(조계종 7교구신도회장) 권용애(불교저널21 편집장) 권탄준(금강대 교수) 김광하(작은손길 대표) 김덕수(대구서부경찰서법우회장) 김문기(원주신행단체협의회장) 김범수(인하대 교수) 김성식(포항청년연합회장) 김성훰(동국대 교수) 김용림(탤런트) 김용표(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김윤환(부산불교실업인회장) 김응훰(중앙승가대 교수) 김의정(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익석(대한불교청년회장) 김인수(광주 · 전남 포교사단장) 김재일(동산반야회 이사장) 김종명(경남도청불자연합회장) 김진관(조계종 서울광역신도회장) 김찬호(공주붓다라이온스클럽회장) 김창배(광주 서부경찰서불자회장) 김태완(부산 무심선원장) 김희욱(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원장) 남궁현(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류상영(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 박경준(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박광서(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박상필(청주불교방송 총괄국장) 박선애(문사수법회 법사) 박세일(서울대 교수) 박시하(불교방송 경영기획실장) 박운용(부산불교교수불자회장) 박유아(천수천안봉사단장) 박진수(대구광역시신도회 사무국장) 박추자(부산불교적십자봉사회장) 배호암(부산불교거사림회장) 백남석(인드라망생명공동체 공동대표) 사공정규(동국의료원 포항병원불교회장) 사상호(부산불교신협 이사장) 사재동(백제불교대학원 학장) 서재영(동국대 강사) 성상현(보림회 지도법사) 성태용(우리는선우 이사장) 손기원(지혜경영연구소장) 송도근(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수석부회장) 송찬우(중앙승가대 교수) 신대윤(조선대 교수) 신상용(운불련 대구지역회장) 신연섭(대구교사불자회장) 안성이(부산불교보현회장) 양성홍(조계종 포교사단장) 염준근(동국대 교수회장) 오희창(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장) 왕선자(부산여성불자회장) 우희종(서울대 교수) 유병구(풍경소리 대구지부장) 유영식(광주불교운전자불자회장) 윤세원(인천전문대 교수) 윤원철(서울대 교수) 윤창화(민족사 대표) 윤해월성(한국불교여성회 광주지부장) 이경훈(광주전남교사불자회장) 이기표(부산 보현의집 원장) 이득환(조계종 강화지역신도회장) 이만희(대불청 대구지부장) 이상구(문경불교청년회장) 이신정(광주 금륜회장) 이연재(한국언론인불자연합회장) 이웅재(JJ클산 대표) 이원철(일산불교병원 한방병원장) 이인자(前 불교여성개발원장) 이제열(유마선원장) 이종서(조계종 교법사단장) 이중표(전남대 교수) 이진옥(대전광역시청불자연합회장) 이춘용(조계종 7교구신도회 부회장) 이탁수(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 운영위원장) 이평래(한국불교학회장) 이혜숙(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 이호식(한국불교청년실업인회장) 이황우(새말귀선원장) 임승택(경찰청 불교회장) 임완숙(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 임해수(대불련 대구경북총동문회장) 임희근(불서총판 운주사 대표) 장명화(우곡선원장) 장석만(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 장영효(MBC 아카데미 이사) 장일선(부산불교자비원 후원회장) 장지현(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정병조(동국대 교수) 정성운(불교정보센터 대표) 정종학(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사무총장) 정진석(조계종 22교구신도회장) 정찬연(훰도공사불교단체협의회 교화위원장) 정형철(조계종 2교구신도회장) 정호돈(조계종 4교구신도회장) 최기영(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장) 최종석(금강대 교수) 최찬기(부산불교방송 총괄국장) 하수경(전주대 교수) 하재웅(대구 구도회장) 황진수(한성대 교수)(가나다 순)

※출가자 4명, 재가자 3명은 신분공개를 원치 않아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화합 정신 흐려지면 멍드는건 '불심'

승가는 화합된 무리가 집단의식을 구현하는 곳이며 불법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조직은 법이나 제도 같은 하나의 틀로 운영되며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해 조직의 변화를 꾀하기도 한다. 2005년 한국불교는 승가다운가? 만약 승가답지 못한다면 어떻게 운영의 틀이 변해야 하는가?

종단 운영의 틀 승가다운가?



2005년 새해 벽두를 장식한 우이동 보광사 사태. 사찰을 '접수' 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원되는 등 구태를 그대로 재현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2005년 한국불교 모습은?

2005년 불교계 새해 벽두는 서울 우이동 보광사 사태가 장식했다. 前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이 원적에 들자 남겨진 재산을 두고 상좌들 사이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찰을 '접수'하기 위해 동원된 수백여 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은 야음을 틈타 사찰에 난입해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무자비하게 휘둘렀다. 이에 맞서던 측은 기왓장을 부서 던져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망가진 '불심' 뿐이었다.

부산 선암사와 범어사 문제와 관련한 소송도 불교계 내부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선암사 토지보상금 처분과 범어사 주지 선출과 관련한 문제로 종단의 수장인 총무원장 등을 상대로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신수길)는 9월 14일 前 부산 선암사 주지 정야 스님이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정야 스님)는 종단 내의 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각 가처분신청을 했고, 총무원장당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 관해도 원고는 종단 내의 시정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고 위의 소를 제기했다"며 "이는 모두 승려법 제47조 제1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05년을 가장 뜨겁게 달군 것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공사 관련 의혹이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 등은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통해 "원가계산서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사 입찰부터 비리가 있었다"며 관련자 및 관련 업체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측은 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을 담합혐의로 고발조치했다. 그러던 중 월간중앙 사태가 발생했다.

월간중앙은 9월호에서 "조계종 4대 의혹을 캔다"라는 제목으로 '2003년 총무원장 선거 때 양 캠프 돈 얼마나 뿌렸나?' '불교박물관 공사비 2배 뻥튀겨진 이유?' '화엄사 M주지 비리 등 검찰 수사 어디로 가고 있나?' '아파트 공사에까지 미친 추문의 진상은?' 등 4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8월호에도 큰스님이 수간(獸姦) 하는 등 불교폄훼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기고문이 실려 있었다. 이에 대해 월간중앙과 중앙일보사 앞에서 항의농성이 진행됐고 결국 월간중앙측의 사과로 사건은 일단락 됐다.

시대변화에 따른 종단 운영 틀

일제는 한일합방 1년 뒤인 1911년 6월 3일 사찰령을 제정 반포하고 그 해 7월 8일 사찰령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 사찰령은 한국불교를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에 의해 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조계종의 지방종무기관인 본말사는 바로 이 사찰령과 그 시행규칙에 의해 처음으로 등장했다. 즉 현재의 교구본말사 제도는 일제의 정치적 관점에 따라 조직화된 체제이며, 이로 인해 민주적인 산중공의(山中公議)제도가 사라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을 거친 한국불교는 이른바 '정화'의 시기를 맞게 된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 발표를 계기로 시작된 정화는 비구와 대처간의 분쟁으로 이어졌다.

정화는 왜색불교 청산, 청정수행가풍 회복 등 한국불교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화 과정에서 정부권력의 묵인이나 방조를 통한 폭력이 난무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비구와 대처간의 갈등은 1970년 대처측이 분종을 선언하면서 조계종과 태고종이라는 종단간의 분쟁으로 이어졌지만, 통합종단 내에서는 종정과 총무원장과의 갈등이 심화됐다. 종단 내부권력 헤게모니를 두고 벌어진 이 싸움에는 권력 소외층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된다는 약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즉 종정과 총무원장과의 갈등은 중앙종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종헌종법은 권력독점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됐다.

일제때 조직화 된 체제, 정화 운동 · 잦은 분쟁 불씨
94년 종단 개혁 통해 민주화된 종단 운영 제도 마련
권력독점 · 문중이기주의 · 계파주의 등 '청정가풍' 역행
철저한 3권 분립 · 투명한 행정 등 개선 필요성 대두

94년 종단 개혁으로 종단 운영의 제도적 틀이 바뀌었다. 당시 개혁회의는 총무원장 및 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통해 종도들의 참종권을 확대했으며, 중앙종회의를 독립적인 의결기관으로 만들었다. 교육원과 포교원을 독립적인 별원으로 신설해 삼권분립을 실현시켰으며, 직영사찰과 특별분담금 사찰을 지정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해 재정의 중앙집중화를 꾀했다. 이 밖에도 사설사암 종단등록 의무화 및 삼보정재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며, 제한적인 내용이지만 재가신도들의 사찰운영 참여의 길도 법제화했다.

하지만 권력의 민주화를 위해 도입된 선거제도가 계파정치를 낳게 됐고, 권력독점이 권력과점으로 구조가 재편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문중주의와 교구본사가 있다. 전통적 의미에서 문중은 스승의 수행가풍을 잇기 위해 생겨난 자발적인 모임이지만, 최근 문중은 교구본사라는 행정체계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변질됐다. 여기에 폭넓은 인사권과 불징계특권 등을 지니고 있는 중앙종회가 권력 핵심으로 떠올랐다. 중앙종회는 건강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생산적인 종책을 내놓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는 이익집단으로서의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혁정신, 어디서 찾을 것인가?

부처님 입멸 후 교단은 남기신 가르침과 율장을 근거로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 주는 평등한 공동체로 유지됐다. 상가(Sangha, 僧伽)라고 불리는 불교공동체는 구성원들의 평등한 권리와 민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것은 대중공사(大衆公事) 혹은 산중공의제도라는 전통으로 근세까지 남아있었다. 따라서 보다 승가다운 종단 운영의 틀을 만들기 위해선 구성원들의 평등한 권리와 민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전통을 오늘에 맞게 되살려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선 권력 분산과 견제장치가 보다 폭넓게 준비돼야 한다. 권력의 형성 과정부터 공개되고 저변이 더 넓어져야 한다. 철저히 3권 분립을 실시하고, 권력별로 권한과 책임을 더욱 분명히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사회 일반이 요구하는 투명화 수준에 맞게 사찰과 종단의 살림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권력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조계종은 94년 종단 개혁 때 선거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중앙종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선 몇 억, 총무원장에 당선되기 위해선 몇 십억을 써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는 등 선거로 인한 폐해가 점점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시작으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그 결과 △현행제도 보완 △선거인단 축소(교구본사주지+중앙종회의원) △추대(합의추대위 구성, 선거인단 추첨) △총무원장 권한 축소 등 4가지 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대종사의 갑작스런 원적으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법 개정과 함께 불거진 것이 총무원장 중심의 권력구조에 대한 고민이었다. 현재처럼 총무원의 임직원과 각 사찰 주지를 임면하고 재산을 감독하며 처분 승인권을 갖는 등 권력이 총무원장에게 집중되면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종단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총무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교구본사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이미 '지방호족화'돼 있는 교구본사 내부의 민주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비구승 중심의 권력구조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종권 분쟁이 되풀이 되는 것은 비구승만의 종단 운영 관리방식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건강한 새 주체를 영입하기 위해선 비구니와 우바새 우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종단대의 기구 및 집행부 등 권력구조를 명실상부하고 사부대중이 동등한 권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신도 교육 시스템 및 신도 교육 프로그램 마련, 사회활동 프로그램 정립, 신도 지도자 인력 양성시스템 확충, 인적 네트워크 구성, 신도회 재정자립 등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문화재관람료 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 문화재관람료에 의지해 사찰을 유지운영하거나 불사를 하는 재정구조 때문에 포교 활동이 등한시됐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단체들이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의 부당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유지, 보수 등을 국가예산에 편성토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남동우 기자

도움말 주신 분 : 법산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법안 스님(조계종 기획실장), 김희욱(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원장), 조기룡(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김경호(前 조계종 개혁회의 홍보과장)

새로운 동방문화의 길잡이
동 방 대 학 원 대 학 교
2006학년 전기 신입생 모집

석 사 과 정	박 사 과 정	석.박사 통합과정
서화 문예학과	서화 문예학과	서화 문예학과
불교 문예학과		
미래 예측학과	미래 예측학과	미래 예측학과
자연 치유학과	자연 치유학과	자연 치유학과
요가 명상학과		
전통 무속학과		

대한민국 · 서울 · 성북동에서 만나요.
www. dongbang. ac. kr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 2동 292-1 대표전화 02)745-2141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달마 관음 지장
뒷면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연꽃 차걸이 ※ 50개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6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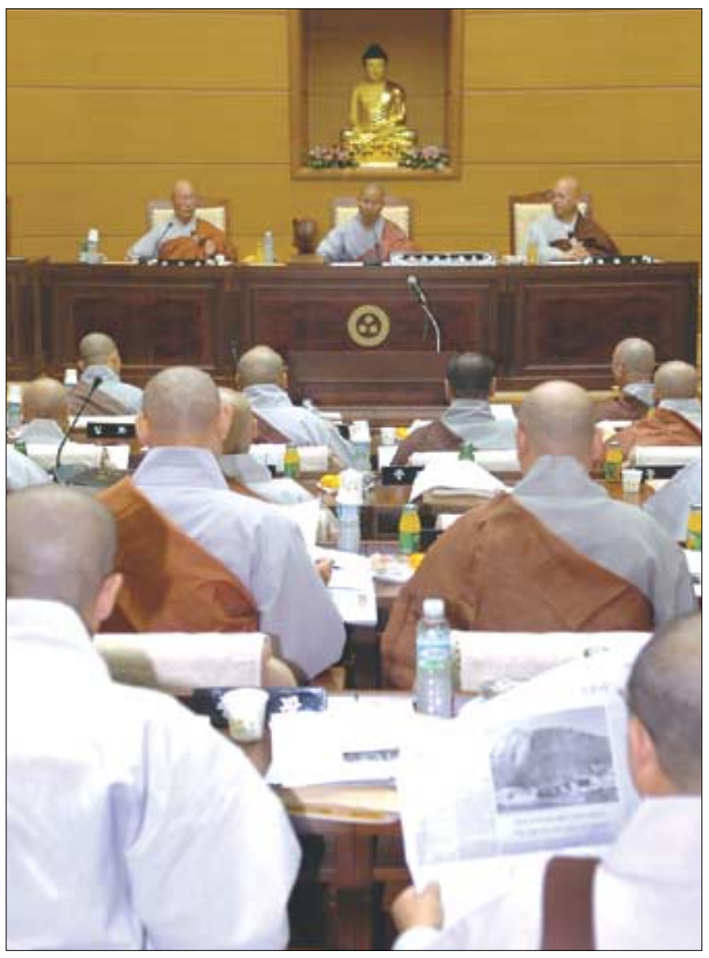
'힘과 잇속' 따르면 불교 아니다

불교의 삼보 중 하나인 '승보.' 스님들의 모임인 승단이 불보, 법보와 함께 존경과 귀의의 대상이 된 것은 역대 큰스님들이 보여준 치열한 수행력과 지계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사회가 급격히 붕괴되는 20세기로 접어든 이후 스님들의 이런 위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속세와 단절한 채 수행에 몰두하는 '수행자'로서 스님과 수행과 교화를 함께 하는 '성직자' 사이의 경계가 매우 빨리 무너지고 있다. 그 가운데 종교가 정치권력의 들러리를 서거나 이권사업에 개입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비판도 낯설지 않는 상황이다. 불교계는 세속화 권력화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안은 무엇일까?

승가의 권력화·세속화만은 막아야

숫자·재정능력 앞세워 사회 각 분야에 영향력 과시
부여된 권리 의무 남용, 나눠먹기 체제 고착 등 문제


중앙종회 등 종단기구들이 권력다툼을 지양하고 불교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과의 위험한 '악수'

 # 불교는 제3의 권력?

'천성산지킴이' 지율 스님이 천성산 관통터널 건설 철회를 주장하며 100일간 단식정진을 벌이던 지난 2월. 이 사건과는 별개로, 그 무렵 네티즌 사이에서는 '종교의 권력화'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한쪽에서는 '환경보호와 인권운동을 위해 종교단체가 힘을 모아 정부와 기업 등 '거대권력'을 상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한국불교가 불사 등 내부문제는 덮어둔 채 숫자의 힘으로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논쟁과 관련된 댓글이 인터넷 토론방을 달구었고 그 결과 지율 스님을 반대하는 '안티지율' 사이트가 생겨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았다.

민주화가 진행되며 사라져간 독재정권을 대신해 새로운 권력들이 생겨나고 있다. '삼성공화국 신드롬'을 일으킨 기업권력, 속칭 '밤의 황제'로 칭해졌던 언론권력, 시민들이 만든 '시민단체'들도 우리사회의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중 종교단체들은 강한 응집력을 가진 신도조직력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불교권력 개혁은 진행중

불교계는 50~80년대 정치권력에 희생당하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 그 결과 94년에 일어난 '종단개혁'은 불교 안팎을 향한 '권력지향'에 맞서기 위해 벌어진 민주화 대중운동이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불교계는 외부의 권력과 내부적인 권력지향에 맞설 만큼 필요 충분한 힘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그 가운데 한국불교가 제3의 권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불교와 권력'이 21세기 한국불교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다.

 # '불교 권력화' 메카니즘

종교자유연구소 정웅기 정책실장은 "94년 종단개혁이 서의현 총무원장 체제의 절대 권력을 붕괴시킨 결과, 한국불교는 근대적인 권력시스템을 창출해 냈다. 그러나 불과 10년이 지난 지금 민주화를 위해 도입된 선거제도가 '계파정치'를 낳고 있다. '권력'의 논리가 교단 상·하층부를 관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권력의 구심점은 어디일까?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전통적으로 스승의 수행가풍을 잇는 자발적인 모임인 '문중'을 불교 권력화의 핵심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문중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권력지향의 패거리주의'라는 병폐의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각종 선거 등에서 '종정은 00문중에서 나왔으니 총무원장은 00문중에서 나와야한다'는 식의 문중이기주의가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중권력은 각종 선거를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 문중은 교구본사주지 등 주요소임에 같은 문중스님을 앉히기 위해 영향력을 극대화한다. 본사주지가 말사주지 인사권 등 주요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문중 소속 스님이 본사 주지소임을 맡으면 자동적으로 같은 문중스님들이 말사주지를 차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문중들은 각종 선거 운동에서 총력전을 벌이게 되고 그 결과 혼탁 과열 선거가 재연된다. 최근 모 총림에서 방장과 주지 선출을 놓고 빚어진 갈등의 배경에도 '문중'을 중심으로 한 권력들이 놓여있다.

문중에서 출발한 권력화의 흐름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과 종회의원 자리를 놓고 다시 갈등을 빚는다. 총무원장 선거 때마다 금권 및 부정선거를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각종 종법과 종책을 만들어내는 중앙종회의 권력화도 현재진행형이다. 정웅기 실장은 종회에 대해 "권력기구로서 속세의 국회를 능가하고 있다. 법제 마련보다 정파간 싸움에 몰두하고 이권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쟁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불교 권력화의 순기능을 살려라

'불교 권력화'에 대한 평가는 아직 엇갈리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나 시민운동가들은 남북교류 사업, 환경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단체의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천성산과 북한산 살리기 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불교란 거대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란 논리다.

그러나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사찰이 '검은 돈'의 세탁장소로 이용되거나, 사찰이 환경을 파괴하고 힘으로 무마시키려는 경우도 있다. 종교단체가 사회적 기여 이상으로 과도한 지위와 권한을 누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일단 권력화의 길에 접어든 이상 불교가 이것을 회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불교권력이란 불교의 사회적 위상에 따라 부여된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된 각종 환경운동에서 보듯 불교권력이 사회발전과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불교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동국대 정각원장 진월 스님은 "불교 권력화는 양날을 가진 검과 같다"며 "부여된 권력에 맞게 책임지는 자세, 합리적이며 공정한 선거제도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디가 聖이고 俗인가

 # 산중불교에서 '도시불교'의 시대

서울 모 사찰에 다니는 김성현 거사(40)는 주지스님이 신도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혀부터 찼다. "수행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스님의 행동이 재가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인 박영아(38) 보살의 의견은 다르다. "요새 포교를 하려면 신도들에게 친근한 스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왕조의 탄압을 받아 산중에 머물렀던 한국불교가 20세기 이후 세간에 나오면서 생겨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고고하게 수행을 하거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해서는 한국불교가 현실사회에 뿌리내릴 수 없다. 불교 세속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종교 본연의 가르침 잃은 상품화·산업화에 우려
지속적 교육, 불교-현실 접목시킨 해결방안 나와야

 # 종교의 세속화란?

불교적 식생활이 '웰빙 열풍'을 통해 알려지거나 불교수행법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일종의 긍정적 세속화다. 반면에 종교가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 오히려 세간 정치 경제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현상은 부정적 세속화의 한 단면일 것이다.

한신대 강인철 교수는 부정적 세속화가 진행되면 결국 종교의 상품화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는 시장경제의 한 부분으로 편입돼 상품화되는 과정을 밟는다"고 말했다.

종교가 본연의 가르침과 윤리를 잃어버리고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고 자본주의의 논리가 불교적 가치를 좌우한다면 한국불교가 설 자리는 많지 않다.

 # 상품화하는 불교

'불교의 상품화'란 말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윤남진 사무처장은 "한 대형사찰 수입의 70% 이상이 불공과 불전, 부처님오신날 수입에 달려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수입원들이 기복과 관련을 맺으면서 종교적인 공동체성의 붕괴를 촉진하고, 상품화되고 소외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재가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수입원은 중형사찰의 수입 97%, 소형 사찰 수입의 86%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부전 스님의 제사담당 노동자화도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이다. 출가 이후 여러 절을 떠돌며 부전 소임을 맡았다는 한 비구니 스님은 "기도소임을 맡은 부전이 고용된 '목탁노동자'로 전락하면서 재가자인 종무원에게 구박을 받기도 한다"며 한숨을 쉰다. 일본불교의 경우에는 부전 역할을 하는 스님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보도가 해외토픽에 등장하기도 했다.

 # 사찰 경제의 사적 소유, 사설사암

불교 세속화는 사찰경제의 사적 소유화로 나아간다. 그 핵심에 스님 개인이 설립해 대물림하는 '사설사암 문제'가 걸려있다. 2004년 조계종 공찰은 8백 7십여 곳인 반면 사설사암의 숫자는 이미 1천 3백여 곳를 넘어서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설사암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다.

사설사암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불교재산의 유출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공찰이나 관람료 사찰 주지소임을 맡는 동안 사설사암을 짓는 일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주지가 되기 위해 금전이 오가고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토굴을 빙자한 호화 사설사암을 만드는 것도 불교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 불교적 가치와 현대사회 접목

불교 세속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복적인 신앙행태를 극복해야 한다. 한국불교의 정서상 기복성을 완전히 탈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불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불교계 내부에서 변화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불교적 가치와 현대사회를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찰생활 체험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처럼 불교와 현실의 접목을 무조건 나쁜 시각에서 바라볼 일도 아니다.

동해 삼화사 주지 원명 스님은 "사찰이 지역사회 공헌도로 평가받는 시대가 조만간 다가올 것이다. 일반기업들도 사회 흐름을 좇아가기 위해 '윤리경영' '고객만족 경영' 등을 내세우고 활동하는 것처럼 불교 역시 미리 사회의 흐름을 읽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신 기자

수맥파 차단카드 나왔다
자고나면 머리 맑고 컨디션 좋아




멜토차단캡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일본의 산업의학연구소는 수맥파가 흐르는 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수맥파는 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산되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각종 질병을 유발 할 수 있다.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한 멜토수맥파 차단카드는 간편하게 안방 침대 바닥에 놓고 멜토차단캡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종파로 올라오는 수맥파를 중화시키며 차단한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77**

옴마니 반메훔 건강밸트

축복의 밸트!
성공의 밸트!
지혜의 밸트!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된다는 옴마니 밤매홈 건강밸트가 불교 법구 전문업체인 불광사에서 출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세상 사는 동안 악인을 만나지 않고, 정의롭게 살며, 나쁜곳에 빠지지 않으며, 어려움에 처해있을때 3불의 지혜를 받아 해결되고, 동서남북의 복을 받아 시작부터 끝이 하는일 마다 풍요롭게 되는 뜻을 담은 법구밸트다. 또한 일반밸트와는 달리 건강기능을 갖춘 밸트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발산되며 허리와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는 멜토에너지까지 발산되는 천연가죽으로된 고품격 고급밸트로 만사 형통하는 선물로 품위가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정성껏 보내준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53-12-102911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색)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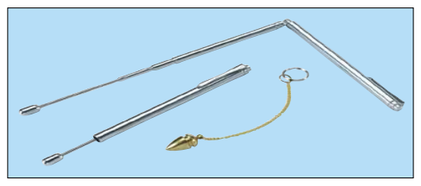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사는 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해주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성심으로 기도하면 곧 보배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대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 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여의주 수진언 복지갑**은 지갑 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고 재물을 들어오게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천연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져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출시 6개월도 안돼 **관세음보살의 영험**으로 아주 어렵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못받을 돈이 들어오고, 부도 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 돈을 버는등. 숫한 화제를 낳는 지갑이다. 여성용보라색은 성공과 번영을 뜻하며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 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축원불공을 드리고 보내준다. 남성용5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53-12-102911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기 열풍
출장수맥 및 수맥파 감정 개업 또는 주말부업 노후 대책으로 인기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수맥탐지기 엘로드를 배우려는 직장인과 부동산 중개사들까지 열풍이 일고 있다. 우리집 땅속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감정사무소가 많이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 수맥 감정법인까지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식수를 찾으려 해도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정확히 찾는 전문가가 몇명안돼 이곳저곳을 뚫기 일수다. 수맥탐지 기술만 배우면 수맥감정 사무실을 오픈해 홍보만 조금해도 재 투자가 전혀 없는 평생 안정된 부업 또는 사업이 될것이다. 氣의 입자파장에서 세상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파장이므로 오랜경험에 의해 감지하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엘로드의 발달로 수맥과 수맥파는 일반인들도


그림1 멜토차단캡 그림2 모아짐

집이나 들에서 예민한 銀나노 엘로드로 연습하면 찾아 낼 수 있다. 그림1 같이 엘로드를 가지고 집안곳곳을 탐사하다보면 그림2와 같이 엘로드가 모이게 된다. 이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그곳에 멜토 차단캡을 놓고 다시 해보면 그림2 모양이 아닌 그림1 같이 된다면 그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이다. 정신집중이 잘되지 않는 사람은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된다. 전국 氣기능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KSO 銀나노 엘로드와 탐사추 및 수맥탐지연습용 멜토차단캡과 수맥탐지법책 셋트 가격65,000원
문의(02)741-4477
농협053-12-102911

금강저의 영험
험한세상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군에 있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25,000원
문의 (02)741-4485 농협053-12-102911

계율교육 · 참회기도 · 자자포살 활성화해야

누구나 승가(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의 청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교육을 말한다. 교육 없이 청정승가는 기대할 수 없고, 청정승가가 아니면 올바른 신도의 교육도 없다. 지금까지도 승려교육은 엄하면 엄할수록 정예화 된다는 것이 교육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출가자는 출가자답게, 재가자는 재가자다운 청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그만큼 강조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출 · 재가자 교육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시대, 과연 교육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오늘날 출 · 재가의 청정성 회복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점검해본다.

출 · 재가 청정성 회복, 교육에서 대안 찾자



승가의 청정성은 엄격하면서도 치열한 교육으로 출 · 재가자의 '사상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진은 올해 6월 열린 조계종 전국교직자회의에서 스님들의 기초교육강화를 논의하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 승가 교육의 현주소

타 종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숙된 승가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는 조계종은 1994년 종단개혁 후 기초 · 기본 · 전문 · 특수 · 재교육 과정이라는 단계적 승가교육의 큰 틀을 완성했다.

이 가운데 기초교육(행자교육원), 기본교육(전통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기본선원)은 출가자가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의무과정이다.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출가 후 5개월 이상의 행자생활, 3~5주의 기초교육 · 5급 승가고시, 4년간의 기본교육 · 4급 승가고시를 거쳐야하는 것이다.

이후 2년 과정의 전문교육과정(학림, 율원, 승가대학원)과 특수교육(어산작법학교)이 종단의 정규교육과정의 마지막이다.

정규과정을 마치면 일반연수(10 · 20 · 25년차)와 직무직능연수(주지연수 · 전산 등)을 거쳐 3급, 2급, 1급 법계를 품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조계종은 다른 불교국가의 승가교육제도와 견주어도 매우 선진적인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최근까지 승가의 청정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물론, 승가교육의 본질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통적 승가교육의 본질은 수행자로서의 기본적인 덕목을 실천하고 체득하는 것인데 반해, 오늘날의 승가교육은 경학에 대한 이론만을 학습하는 것으로 변질됐다는 우려에 직면한 탓이다.

조계종 교육부장 현관 스님은 "강원의 유일한 계율관련 과목 <사미율의>와 1년에 한두 번 외부강사에 의한 계율특강으로 승단의 청정성을 담보하기에는 사실상 무리"라며 "승려재교육의 일환인 각종 연수와 법계고시 · 산림도 스님들의 청정성 재고보다는 종무행정 등 실무위주의 교육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 시작부터 어긋난 교육종책

1954년 이후 한국불교의 정화개혁은 인적 쇄신의 역사였고 늘 승가교육에 대한 고민이 뒤따랐다. 비구-대처의 대립 역시 승단의 청정성 문제로 촉발된 충돌이었다는 점에서 교육은 승단의 가장 핵심적 과제였다.

승단의 체계적 교육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았던 정화 초기의 비구 · 비구니스님은 약 800명(수좌는 200여명). 이후 통합종단이 등장한 1963년 5427명, 1964년 1만 1899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대한불교신문 기사). 이 시기 승단에 유입된 인물이 청정한 계율정신과 투철한 출가관을 가졌다면 문제가 복잡하지 않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무엇보다 수좌들이 주도한 정화는 선(禪)의 우위만을 강조하는 교단의 분위기를 조성, 율(律)과 교(敎)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불교의 가치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영향은 근래 강원교육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교과과정의 대부분이 전통적 경전과 <선요> <서장> 등 간화선 중심 과목으로 채워졌다.

조계종은 최근 몇 년간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종범)라는 종법기구를 통해 현 승가교육체계 전반을 재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출가자 개인의 위의와 승단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엄격하고 집중적인 행자교육으로 수행자의 청정성을 담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청정성 담보와 교육제도의 '거리'

그렇다면 교육을 통한 승단의 청정성 쇄신방안은 무엇일까?

조계종 교육부장 현관 스님은 우선 교육연한의 강화를 제시했다.

현관 스님은 "2008년부터 새롭게 시작될 3급 승가고시 응시자의 자격을 '전문교육과정 수료 후 선원 8~4안거 성만'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교육연한이 자동적으로 2년 정도 늘어나는 것은 물론 율원과 전문학림 승가대학원 등의 실질적 교육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시위원장 법산 스님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행자교육 강화를 통한 '선교육 후득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의 3주 집체교육은 너무 짧고, 최소한 3개월은 돼야 하지만 지금 같이 느슨한 기초교육으로는 '승풍'을 살리는데 역부족"이라고 진단한 법산 스님은 "기초교육뿐만 아니라 기본교육기관에서도 율원 강사의 전임제로 계율교육을 정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대 선학과 교수 종호 스님은 "근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피교육자의 의식구조를 바꾸는 어려운 과정"이라며, "제도적 개선방안 뿐 아니라 내적(정신적) 청정성과 외적(행위적) 청정성에 맞는 행을 닦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말해 승가 구성원 윤리를 갖출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교육 관계자들은 "아무리 제도를 강화하고 교육기간을 늘린다고 해도, 엄하면서도 치열한 교육으로 '사상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청정성 문제의 해결방법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늘어나는 신도교육 · 수계법회

2002년 조계종은 늦게나마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대학등록 및 관리령'을 설치, 교육내용과 과정을 비롯한 각종 규정들을 정비했다.

불교대학은 필수과목으로 교리심화, 불교사, 불교문화, 포교방법론 · 실천 및 수행 등을 정하고, 비교종교론과 불교상담개론을 비롯한 7개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두어 불자로서 갖춰야 할 소양 및 전문성을 동시에 갖추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했다.

연간 128시간 이상의 수업일수와 조계종 스님 2인을 포함한 4인 이상의 강사를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정규 인가 불교대학의 교육과정도 강화했다.

2005년 9월 현재 조계종 인가 불교대학은 54곳으로 매년 1500~20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불교대학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종단 차원에서 2년 전문과정인 '불교대학원'과 3개월 과정의 '신도기본교육'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계율과 관련해 연중 크고 작은 사찰들의 보살계수계법회에 참가해 계를 받는 불자들의 수도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계종 포교부장 일관 스님은 "이렇게 교육받은 수많은 불자들의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이 불자로서 갖춰야할 청정성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자신하지 못한다"며 "지속적인 청정성을 담보할 재가신도교육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지계(持戒)에 무감각한 불자들

'오늘의 운세' '인생대박 상담' '천기누설' 등 점술광고들이 넘쳐나는 요즘, 모 역술인 단체에 따르면 올해만 무속인들의 매출이 4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 용화사 송담 스님은 "우선 듣기 좋은 말을 통해 위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천길 낭떠러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도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불교와 무속을 혼동하는 재가자의 어리석음을 경계했다. 이는 불교가 인간의 의지를 무시한 결정론적 숙명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술을 금기시하고 주어진 여건에 짓눌리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 해탈을 성취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불자들의 현실이 그렇지만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불자라면 한번은 받게 되는 5계도 자신을 속박하는 피곤한 구속쯤으로 여기는가 하면, 계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것이 사실이다. 각종 유혹에 빠지기 쉬운 현대사회에 남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나 스스로를 망치는 폭음 등의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동국대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는 "재가자들의 '파계'는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의 결여와 '공(空)사상'에 대한 오해가 원인"이라며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든 것은 공하니 선도 악도 없다'는 식으로 소신(?) 있는 파계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재가자가 청정성을 견지할 수 있는 기본적 교리교육, 참회기도, 계를 어길 경우 초래될 과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가자들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내세의 과보를 야기한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는다면 내생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도 지계행(持戒行)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지계교육으로 '파계' 막아야

조계사 포교국장 재경 스님은 경직되지 않은 지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경 스님은 "조계사의 경우 <범망경> '보살계본'으로 매월 보름법회를 '포살법회'로 진행한다"며 '참회'를 통한 지계교육을 역설했다.

현재 조계사와 같이 정기적으로 재가자를 위한 포살법회를 여는 곳은 5대 총림과 일부 사찰, 그리고 선원 뿐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1999년 포살법회의 순서와 진행법을 담은 <재가보살 포살본>을 발행하는가 하면, 서울 불광사와 동산반야회 등도 이와 비슷한 지계 체크리스트를 보급했지만 대중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했다.

95년 8월 개원이후 매월 한 차례 포살법회를 열고 있는 청주 관음사의 경우, 포살법사는 예경삼보, 헌향게 등의 포살요목과 보살계서문을 먼저 낭독하면, 신도들이 '나무석가모니불'를 외며 참회를 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매달 포살법회에 참여하는 고보은씨(65 · 서울 반포동)는 "처음에는 지계에 대한 부담감이 컸지만, 지금은 자기반성은 물론 기복 중심의 신행에서 벗어나 복을 짓는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가자의 불성을 일깨우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주 법장사 주지 철우 스님은 "재가자의 청정성을 고양하기 위한 교육은 '대승보살심'을 체득하게 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불교 공부는 '마른지식(乾慧)'을 심는 것이 아니라 스스의 불성에 감흥 할 수 있는 행(行)으로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부처님 법(法)안에서 불성을 살리는 교육만이 재가자의 청정성을 담는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교육체계 선진화 불구 출 · 재가 청정성 자부심 낮아

"불교공부는 行으로 완성" 불성 일깨우는 교육 돼야

「대한불교 조계종」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헌에, "본종은 신라 헌덕왕 5년에 조계혜능 대사의 증법손 서당지장 선사에게서 심인을 받은 도의 국사를 종조로 하고, 고려의 태고보우 국사를 중흥조로 하여 이하 청허와 부휴 양법맥을 계계승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계宗祖 도의국사 님께 참배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설악산 진전사

초조 달마에서 도의국사까지 조계종 신비의 설악산 "진전사"에서 만나보세요


하사지(下寺地)발굴구역 전경


진전사지 출토 청동여래입상


진전사3층석탑(국보122호)



도의국사부도(보물439호)


500여년만에 복원된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가 주석했던 진전사

조계宗祖 「도의국사」의 천년 숨결이 있는 「조계종찰」 진전사가 500년만에 발굴 복원되었습니다

찾아오시는길
- 영동고속도로-강릉-양양방면-양양장산리-석교리-둔전리
- 중부고속도로-홍천IC-인제-속초-양양물치-장산리-석교리-둔전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산 37
011-545-2375, 016-358-8084

재가 '구성원이되 대의원 될 수 없는 위상'

'종단은 승려(비구 • 비구니)와 신도(우바새 • 우바이)로서 구성한다. 하지만 중앙종회 의원 자격은 승랍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로 한다.'

조계종 종헌 8조와 33조항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묶어낸 내용이다. 재가자를 종단 구성원으로 인정은 하되, 종단의 입법기구인 종회 참여는 제한한다는 의미다. 세속적 잣대로 보면, '국민은 국민이되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국민' 인 셈이다. 출 • 재가들의 공동체인 승가(僧伽). 오늘날 한국 불교승가는 이처럼 승가공동체 정신과 이율배반적인 현실에 있다. 사부(四部)대중은 종단의 주인으로서 평등한 관계가 마땅하지만, 현실은 출가 이부(二部)대중 중심으로 변모됐고, 복잡다단해진 현대사회 속에서 출 • 재가의 역할분담은 모호해졌다. 이 같은 현상이 왜 발생했을까? 출 • 재가의 불평등한 요소와 그 원인, 바람직한 출 • 재가 관계 모델 제시 등을 통해 진정한 승가로 돌아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본다.



불법에는 출 · 재가의 차별이 없다. 다만 차이만 있을 뿐이다. 사진은 합천 해인사에서 열린 팔만대장경 축제에서 출 · 재가자들이 줄지어 '안행(雁行)'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종단운영 출 · 재가 함께 해야

초기율장 근거조항 없고 대승에선 차별 반대

출가자 중심 불투명한 예산집행 · 종권 독점 개선돼야

'사표와 외호' 관계 바람직 … 제도 보완 필요

●율장으로 본 사부대중의 평등문제

출 · 재가의 평등에 대한 불교적 근거는 간단명료하다.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이다. '모든 중생에는 불성이 있다' 는 부처님의 이 선언이 바로 사부대중의 평등정신이 된다.

초기율장과 대승율장은 출 · 재가 평등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먼저 초기불교 율장에서는 출 · 재가의 평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 다만 출가자 삶의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다. 출 · 재가에 대한 평등을 언급한 조항이 없는 셈이다.

각묵 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은 "초기율장을 통한 출 · 재가의 평등문제는 아무런 근거 조항이 없어 논할 수 없다"며 "출가자는 재가자의 복전이 되고, 재가자는 재물의 보시로써 출가자를 외호하는 것으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대승율장에서의 출 · 재가 평등에 대한 시각은 적극적이다. '차이' 는 있어도 '차별' 은 없다는 입장이다.

목정배 교수(대한불교법사회 이사장)는 "대승율장은 초기율장과 달리 한 번 귀의한 사람이 한 계목을 파해도 참회하면, 영원한 불자로 인정한다"며 "계목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실천 유무는 출 · 재가를 구분하지 않는 대승율장의 사부대중 평등정신에서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다.

특히 목 교수는 출 · 재가의 평등관에 대해 '출가자-재가자' 란 용어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즉 '출가자-비(非)출가자' 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가자는 출가를 못한 '미(未)출가자' 가 아니라, 출가를 하지 않은 '비출가자' 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과 겉도는 '불평등' 한 현실

출 · 재가자 간의 불평등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을까? 목 교수는 "초기불교교단의 보시관인 '사방승가물(四方僧伽物)' 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즉 출가자 집단이 절 안에 보시물을 받기 시작하면서, 소유와 재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출 · 재가 사이에서 소유에 대한 갈등이 유발됐다는 지적이다.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는 "출가자 중심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종권의 독점 문제는 출 · 재가자 간 불평등을 유발시키는 핵심 원인이 된다"며 "재가자들이 주장하는 종단 및 사찰 재정의 투명한 공개와 중앙종회 참여 요구 등은 출가자 위주의 운영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박 교수는 또 출가자의 '느슨한 지계행' 도 지적한다. 잘못된 방편을 오래 방관하면, 부패의 또 다른 이름이 된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엄격한 잣대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예외 없이 묻는 한편, 출가정신을 계율로써 엄정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 '역할분담' 에 서투른 한국승가

목정배 교수는 출 · 재가 불평등의 핵심 이유를 '서투른 역할 분담에 있다' 고 분석한다. 출 · 재가자들의 역할과 권한 등을 세밀하게 나눠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도자로서 출가자의 역할 상실, 현실적인 활동가로서 재가자의 열정 부족 등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출 · 재가자들이 상시적으로 만나 이런 문제를 고민할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출 · 재가자 간 간극이 넓어졌다고 목 교수는 설명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손안식 상임부회장의 진단도 비슷하다. 출가자가 '머리' 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고, 재가자는 '손과 발' 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손 부회장은 이에 대해 "출가자가 지도자로서 불교사상을 전달하면 재가자는 이를 받들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데, 정작 출 · 재가의 참여 폭과 활동의 완급 등을 조율하는 종단 내 공식 기구가 없었다"며 "출 · 재가가 종단 현안이나 사찰 운영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출가자, '제한적 참여 동의'

이처럼 역할분담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의 출 · 재가들은 과연 종단 운영 참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일단 출가자들은 재가자들의 적극적인 종단 운영 참여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과 활동영역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르다. 대표적인 경우가 재가자의 중앙종회 참여 부분이다. 현재는 재가자의 '제한적 종회 참여' 에 동의하지만, 반응은 시큰둥하다.

조계종 종회의원 보경 스님(서울 법련사)은 "재가자들의 종회 참여는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교단의 성격상, 참여 명분 자체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회는 승단 내의 내부구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가자들의 종회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다만 상 · 하원제로 종회를 구성한다면, 재가자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보경 스님의 이 같은 입장은 재가자의 종회참여 현실화가 출 · 재가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릴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또한 출 · 재가자의 종회 인원 비율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적지 않아, 종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될지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조계종 제25 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도 마찬가지다. 재가자의 종회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는 하지만,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 추천권, 선출권 등의 권리 행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철안 스님은 "종회는 종도들의 입법기구, 대의기구로서 종단 현안, 타종단과의 교류, 정치 · 사회 상황 등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재가자들의 종회 참여는 필수적"이라면서도 "다만 종회 내 재가자들의 역할 제한은 필요하다. 신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재가자, '단계적 종단 운영 참여'

재가자들은 출가자들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단계적 종단 운영 참여' 를 주장하고 있다. 재가자의 현실적인 종단 운영 참여가 힘든 현실을 감안한 입장이다. 종단 내 특별위원회 구성, 출 · 재가 협의기관 설치 등이 대표적인 제안들이다. 이는 출 · 1재가의 역할을 상호 논의와 교류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승가의 투명성(청정성) 제고' 와 '재가의 전문성 확대' 라는 화두풀기에 한 해법인 셈이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투명성 보장의 경우 재가자의 사외(寺外)감사 제도를, 전문성 확보의 경우 종단 내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도 힘을 얻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재가자들은 △재가자의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종단 내 환경 복지 미디어 인권 통일 국제연대 등 재가자 참여 특별위원회 설치 △재가자를 '파트너' 로 인정하는 출가자의 인식전환 등이 현실화돼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

각묵 스님은 "출가자 중심의 종단 행정을 재가자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가자는 재가자의 사표가 되고, 재가자는 출가의 외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는 재가자를 종단 내 인간관계로만 이해해서 안 되고, 사회인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재가자의 한 발은 사회에, 한 발은 교단에 있다' 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것을 각묵 스님은 강조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천태종의 경우…

천태종은 1967년 창종 초부터 재가자들의 종회 진출을 종헌에서 규정했다. 재가자의 종회 의원 자격 요건은 '교도 중 30세 이상, 입교 5년 이상인 자' 로, 선임방식으로 뽑고 있다. 현재 재가자 의원 수는 전체 30여 중 10명으로, 총무 · 재정 · 국제 · 법제 등의 4개 분과위원회별로 활동 중이다. 특히 4개 분과위원회 가운데, 재정분과 위원장은 재가자 종회의원이 맡고 있으며, 창종 당시부터 5년전까지 재가자가 종회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재가자 종회의원은 종정 스님의 선임 방식으로 선출된다. 4년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 출 · 재가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종단 내 종회의원전형위원회를 구성, 2배수의 종회의원 후보자를 종정 스님에게 추천한다.

천태종 종회 박노성 부의장(법제분과위원)은 "재가자 종회의원의 활동의 특징은 출가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입법 활동을 펼친다는 점"이라며 "종단 예 · 결산 심의, 종헌 · 종법 개정, 종무감사 및 종책 질의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여, 재가자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공주 학림사 수행공동체

출 · 재가가 함께 수행 공동체를 만든 공주 학림사(조실 대원)는 출 · 재가자 수행처를 한 도량에 두고 있다. 수행에는 출 · 재가의 구별이 없다는 선원 가풍 때문이다. 수행은 출가자가 100일간 용맹정진하며, 재가자는 1개월에 한번 1주일 철야참선정진을 한다. 출 · 재가가 서로 경책이 되면서 수행열기를 북돋우며 정진하는 것이다.

공부점검은 수시로 빈틈없이 이뤄진다. 또 출재가의 구분이 없다. 먼저 화두가 없는 사람은 3천배를 회향한 다음에 화두를 받고, 화두가 있는 사람은 108배를 한 다음 공부점검을 해준다. 구참자는 절을 생략하고 바로 점검을 받는다. 보름 단위로는 전체 대중의 공부를 일괄적으로 점검하기도 한다. 방식은 1:1. 시민선원 50여명, 출가자 10여 명이 대원 스님에게 공부점검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 3회 특별 법회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1회 특별 법회는 2003년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자리하고 있는 다람살라 남걀 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특별 법회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한국 불자에게 하신 최초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 불자와 달라이라마의 만남은 많았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회는 달랐습니다. <입보리행론>을 교재로 삼아, 제1장 보리심 공덕 찬탄품부터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달라이라마께서 그 의미를 짚어가며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경전 속 활자에 불과했던 샨티데바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샨티데바의 가르침에 달라이 라마의 숨결이 더해지면서 <입보리행론>은 수행 지침으로 되살아 난 것입니다. 2004년 10월 델리에서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2회 특별 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이 법회에서는 <입보리행론> 제5장 호계정지품부터 제8장 선정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 2회 특별 법회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제안으로 제2장 죄업 참회품을 독송을 하던 순간, 강당을 가득 메웠던 낭낭한 독송 소리는 조용한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티베트 학승과 티베트 불자까지 젖어들은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가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매번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음을 열어갑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신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소중한 가르침이 펼쳐지는 순간을 함께 하십시오.

"..... 보리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리심에 대해 생각하면 슬프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보리심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즐거울 때 보리심을 수행하면 즐거움에서 오는 우월감, 자만심,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슬플 때 보리심을 수행하면 절망이나 좌절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 등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보리심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우 몇 달, 몇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계가 다할 때까지 기억하고 실천하겠다고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자주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허공이 존재하는 한
중생이 존재하는 한
저 또한 여기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소멸하게 하소서. (입보리행론 3장 보리심 전지품 22)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면에 힘이 솟아 오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제 인생에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2003년 12월 28일 달라이라마의
한국인을 위한 법문 중에서..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 - 보살행의 실천에 들어가는 길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꽃인 '보살의 길' 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보리행론>은 총 10장 – 제1장 보리심 공덕품, 제2장 죄업 참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제4장 보릭심 불방일품, 제 5장 호계 정지품 제 6장 인욕품,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 제10장 회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샨티데바의 <입보리행론>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여러 종의 번역본과 종파별로 수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1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재 입보리행론은 청전스님이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드립니다.**

행사일정

A팀 : 12월10일 - 19일(10일간) -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20만원)
인천-델리-다람살라-델리-인천
• 장 소 :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B팀 : 12월 3일 -18일(16일간) - 불교성지순례와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6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법회)-델리-인천
• 주 관 : 여수 석천사 (진옥스님 061-662-1607)

※ 참가신청 및 문의 : 본 행사는 법회진행비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걸망에 담아온 산사이야기 1, 2

"왜 그렇게 산사를 찾아가느냐고 누가 물으면 그저 빙긋이 웃을 뿐입니다."

인터넷 '오마이뉴스'에 1년간 연재되어 1만 명 독자의 사랑을 받았던 산사 이야기다. 1권에는 유구한 역사와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36개 산사와 함께 삼보사찰, 4대 관음 도량, 5대 적멸보궁을 다니며 쓴 글과 사진이 소개되었으며, 2권에는 28개 산사를 테마별로 돌아다니며 쓴 글과 사진이 수록되었다.가득 찬 욕망을 버리기 위해 떠난 여행에서 저자는 도리어 많은 것을 얻었다. 마음의 평화가 그것이다. 우연히 참관하게 된 큰스님들의 다비식을 묘사한 장면에서는 뭉클한 감동이 그려져 있다.

임윤수 글, 사진 / 46판변형
288쪽 · 272쪽 / 각권 13,000원
(주)가야넷



마음 꽃

이 책은 책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다!

한국 불교문학의 최고봉
경허 대선사의 선문과 법문들!

「마음 꽃」은 경허 선사가 돌아가신 지 90년 그 뛰어난 선문들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산승山僧들의 노력이다.경허 선사에 대해 일반인이 겨우 아는 것은 기행에 대한 일화들인데, 이는 일반 독자들이 선사를 이해하기 부족함이 없지 않다. 이책은 경허 대선사의 선시들 중에서 80여편을 골라 펴내었는데, 선사가 거쳐했던 사찰의 사진들뿐만아니라 경허 선사의 친필 및 선사의 초상 등도 함께 실려 있다.

경허 큰스님 지음 / 명정 · 정성욱 엮음 / 변형국판 올칼라 / 232쪽 /값 11,000원
고요아침



석가모니

만화로 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

이 책 <석가모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에서 출가,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를 만화로 쉽고 재미있게 꾸민 것입니다.

인도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싯다르타는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명예와 부를 버리고 출가합니다. 그리하여 오랜 수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됩니다. 부처님은 그 뒤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제도하다 열반하셨습니다.

이 책은 삶 자체가 가르침인 인류의 위대한 스승 부처님의 일생을 통해, 어린이들이 참되고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배우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글구성 · 그림 이범기/46배변형판/ 320쪽/값9,600원
도서출판 능인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천여 명의 죽음을 배웅하며 쓴 마지막 순간들의 기록!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선고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정토마을 비구니 능행스님의 첫 산문집. 능행스님이 실제 에피소드로 그려낸 생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지를 되돌아보게 된다.

"사랑하세요, 오늘을 천 년 같이
용서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나누고 베푸세요, 세상을 다 간진 것처럼"

능행 지음/신국판/275쪽/값9,500원
도솔출판사

현대불교신문 창간 11주년

불교 출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유쾌하게 읽는 불교

교리와 수행의 맥을 짚은 불교입문서

지금까지 이런 불교입문서는 없었다.

이 책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불교 교리와 종교적 수행이 인간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으며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하고 예리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불교 지식을 사전적으로 무미건조하게 기술하지 않고문화사적 지적 · 감성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독자들은 지은이의 생동감 넘치는 내레이션을 통해불교와 불교문화를 한층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명석 지음/신국판 /293쪽 /값9,000원
동숭동



평화로운 마음이 미소를 부른다

"이 책은 잘못된 생각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비로운 부처의 가르침을 실제에 적용하여 평화와 만족을 찾는 방법을 보여준다"
- 달라이 라마-

이 책은 불교 철학과 심리학의 핵심을, 일상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과 함께, 명확하고 단순한 말로설명하고 있다. 저자의 평범한 언어와 실례들은 독자를 내용에 빠져들게 할 뿐 아니라 일상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저자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책은 불교도에게도 좋고 비불교도에게도 똑같이 좋은 내용이다.

툽텐 초드론 지음/김성 옮김/신국판/ 335쪽/값9,500원
리즈앤 북



나를 찾는 암자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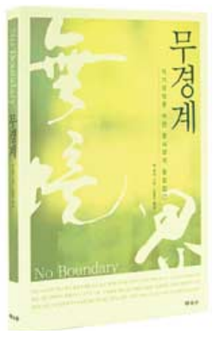
세상을 벗고 나를 비우고

"정찬주의 암자여행 신작, 10년 완결판"
처음으로 소개하는 전국32곳 암자의 사계 속에서 나를 사색한다.

암자란 불교만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다.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산길을 가다 기웃거려보고 싶은곳, 쉬어가고 싶은곳이 바로 암자다.

나를 찾는「봄 · 여름 · 가을 · 겨울」암자 여행

정찬주 지음 / 신국판 / 304쪽 /값12,000원
마음향기



무경계(無境界)

자기성장을 위한 동서양의 통합적근

'나는 누구인가?'
경계 없는 근원으로의 접근 방법

정신분석에서 선禪에 이르기까지, 게슈탈트 치료에서 초월명상에 이르기까지, 실존주의에서 베단타에 이르기까지 동 · 서양의 심리학과 심리치료 그리고 신비사상을 총망라하여 단순하면서도 포괄적인 의식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켄 윌버의 명저.

켄 윌버 지음 / 김철수 옮김 / 320쪽 / 값 12,000원
무우수



마음을 다스리는
어린이 법구경

번뜩이는 지혜로 가득한 보물 창고 법구경! 삶의 목표를 제시하는 번뜩이는 지혜들을 흥미진진한 만화로 읽는다!

부처님의 참 뜻을 주옥같은 시로 표현한 '팔만대장경' 중에 가장 오래된 성전 법구경! '법구경'의 명시들 가운데 독자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은 시들을 골라, 한 편 한 편 원문(한문)과 해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만화를 곁들였고, 다시 그림동화로 마무리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사랑이 가득한 길잡이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김영만 글 · 김석배 그림 / 46배판 / 199쪽 /값9,000원
바른사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로다
- 남양주 봉선사 월운 스님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송담(淞憺)지음/신국판 /319쪽/값10,000원
바보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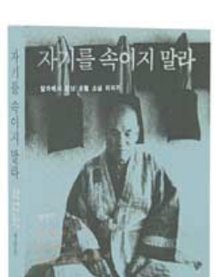
선어록 산책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을 꺼릴 뿐. 증오와 애욕만 없으면 훤칠하게 드러난다."
- 본문『신심명(信心銘)』중에서

이 책『선어록 산책』은 제1부에서는 선어록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관하였고, 제2부에서는 중국 선사들의 진면목을 살펴보았으며, 제3부에서는 한국 선사들의 수행의 진수를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을 통해 시공을 초월하여 선사들 한 분 한 분이 살아갔던 그 힘찬 정진의 향취에 흠뻑 젖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사들이 지니고 살아갔던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의 결정체가 무엇인지를 음미하고 반조하여, 새로운 정신세계를 개간하는 데 청량제가 되어 우리의 삶을 좀더 풍요롭게 가다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최현각 편역 /신국판 양장본 / 542쪽 / 값 20,000원
불광출판부



TV동화 행복한 세상 -희망

희망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KBS [TV동화 행복한 세상] 2005년 신작 시리즈!
꿈을 이룬 사람들의 노래, 희망

꿈을 이룬 각계 유명 인사들의 사랑과 희망, 감동이 담긴 아름다운 일화들을 모은 '꿈을 이룬 사람들의 노래, 희망' 편입니다. 탤런트 최불암, 만화가 이현세, 변호사 고승덕, 화가 이중섭, 뮤지컬 배우 남경주, 헤어디자이너 박준 등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들만을 모아 엮었습니다.지금 남들이 보기엔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그들이 좌절과 방황의 순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던 것은 '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이루어 낸 꿈과 희망의 이야기, 감동어린 아름다운 사연들을 책 속에 담았습니다.

기획 구성 박인식/ 신국변형판 양장본 / 257쪽 /값 8,900원
샘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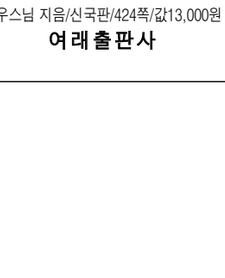


다시쓰는 불교설화 1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

문학적 향기에 담아본 불교설화의 새로운 시도!
우리 전래 불교설화를 현대적 문장과 수사로 재구성!
삶을 바라보는 따스한 시선과 지혜로운 안목을 깨우쳐 줄 지침서!

이 책 속에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읽는 이로 하여금 귀한 발심의 실마리를 붙잡게하고, 때로 누군가는 정렬한 행간의숨은 뜻까지 간파하여 무궁한 상상의 나라에서 새로운 창작의 원동력을 퍼 올리는 매우 귀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경애 엮음 / 신국판 / 296쪽/값 9,000원
도서출판 솔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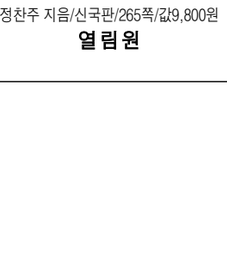
법/성/게/강/의

신라의 의상스님은「60화엄경」의 골수 내용을 뽑아「법성게」라는 2백 자의 간단한 문구 속에 심오한 진리를 요약하여 담아, 불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므로 해서 광대무변한 화엄의 세계를 일상 속에서 쉽게 기억하게 하였다.

화엄경에 대한 강의나 해설에 대한 책들은 우리 주위에 대단히 많다. 하지만 법성게란 단일 제목으로된 강의나 해설은 거의 전무한 게 사실이다. 이 책은 그러한 점에서 희소성을 가질뿐만 아니라 성철스님의 오매일여 사상에 대한 저자의 일갈은 단순한 알음알이로 강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만든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우리는「화엄경」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더욱더 넓히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석우스님 지음/신국판/424쪽/값13,000원
여래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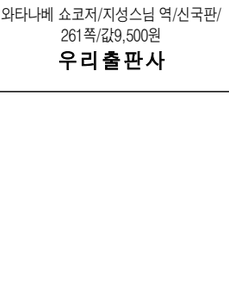
자기를 속이지 말라

암자에서 만난 성철 스님 이야기.

자기와의 약속을 지킨 사람은 밤하늘의 별처럼 자기 생을 빛나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성철 스님을 존경하고 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철 자신으로부터 '불기자심'을 평생 동안 실천한 데 있지 않았을까.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며 사는 것이 중생의 모습이라고 볼 때 나그네는 성철 스님을 생불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불기자심이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평생 동안 지키며 살았던 성철 스님을 우리 시대의 부처라 부르고 싶어지는 것이다.

정찬주 지음/신국판/265쪽/값9,800원
열림원



경 이야기

경전이 한 눈에 들어온다!

경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경전은 정말로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까?
남방불전이 부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깝다는 학설은 옳은 것인가?
초기불교시대 경전은 각부파별로 달랐다?
구법의 길, 위대한 역경의 발자취....
대승 경전 각각의 사상과 특징들...

와타나베 쇼코저/지성스님 역/신국판/ 261쪽/값9,500원
우리출판사



산사에서 마음을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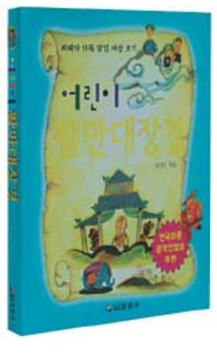
오대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에서 한 달간의 생활을 정리한 체험기이자 수행기

갈마(면접), 삭발식, 삼보일배, 삼천배, 탁발, 산행, 예불, 참선, 발우공양,

유언장 작성 등 출가자로서의 일상생활과 교육프로그램, 에피소드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사물을 보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담담히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민병직 지음/신국판/232쪽/값8,000원
운주사



어린이 팔만대장경

지혜가 가득 담긴 세상 보기 어린이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에는 본생경이라는 불교 경전이 있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동화집이라고 합니다.

이 동화집에서 재미있으면서도 철학적인 이야기를 발췌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책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고, 또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야기는 이솝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대 소설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아동 문학인협회 추천

송명호 엮음 / 신국변형판 양장본 / 111쪽 /값 12,000원
도서출판 은하수



돌에 새긴 희망

미륵을 찾아서

미륵은 우리 민족에게 각별한 존재다. 미륵은 그 존재만으로 동반자요, 희망이었다. 역사적으로 힘든 시기마다, 가까이는 암울했던 구한말에도 선조들은 어김없이 미륵을 찾았다. 따라서 우리 민족에게 미륵은 종교와 철학의 범주를 넘어선 희망과 사랑과 포용의 상징이다. 미륵이 나타나는 모습은 다양하다. 내게는 IT산업이나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배양 성공도 새로운 희망, 즉 미륵으로 다가온다. 미륵의 참 가치, 그 깊은 의미를 천착한 <<돌에 새긴 희망>>을 통해 모든 이가 희망을 한아름 갖게 되길 바란다.

– 김종규(한국박물관협회 회장, 문화재위원)

글 이학종 사진 이겸/46판변형 / 268쪽 /값 18,000원
이끌리오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

영화로 불교를 만났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마음대로 숟가락을 휘었다 폈다 하는 동자승은 말한다.
"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 대신에 진실만을 인식해요."
"무슨 진실?" "숟가락이 없다는 진실요"
"숟가락이 없다고?"
"그러면 숟가락이 아닌 나 자신이 휘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영화를 보는 스님의 안목에 깜짝 놀랐고, 영화 속의 다양한 내러티브를 통해삶의 진리에 접근해 가는 스님의 수행방법에 무릎을 쳤다. 이 책은 대중들의 관심권 안에 있는 영화들을 통해서 삶을 성찰하고 올바른 나를 찾아가는 불교 이야기를 벼락같이 들려준다 – 영화평론가 하재봉]

월호 지음/ 신국변형판 /180쪽 / 값9,800원
이치

현대불교신문 창간11주년을 축하합니다

불교서적 총판 운주사



푸르디 푸른 가을 하늘만큼이나
상쾌하고 선선한 가을 바람만큼이나,
맑고 청정한 불교의 가르침과 세상 사는
지혜를 담은 책들이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전화 **02)3672-7181~5** / 팩스 **02)3672-7186**

※ 본 연합광고의 서적은 불교서적 총판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02-2004-8220)에서도 11월 30일까지 온라인 특설 판매 코너를 마련하여 판매 합니다



무이스님의 참선경어

참선 수행자의 어깨를 후려치는 무이스님의 죽비

무이스님의 참선경어는 간결한 문체로 요점만을 타당하게 서술함으로써 참선하는 데서 생길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다시 끄집어 내어 철저하게 규명한 글이다. 여기에서 공부방법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가장 요긴한 것으로서, 참선하는 남자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책이다.

무려 120여 가지 경우를 예로 든 무이스님의 설명을 참구하다 보면 어느 새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이스님 지음/국판/240쪽/ 값8,900원/장경각
장경각



재미있고 혁명적인 화엄경 게송 풀이

이판사판 화엄경

"난장판 세상에 떨어진 불벼락 같은 책"

본질에서 벗어난 정신없는 세상인 사판을 통째로 바로 잡고 이판의 지혜를 일깨우는 화엄의 죽비소리!

어그러진 삶을 사는 동시대 모든 이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는 성법스님의 사자후!배꼽 잡으며 읽다가, 촌철살인 같은 지혜의 불벼락을 맞고 이판사판으로 삶을 바꾸게 되는 엄청난 책!

때묻지 않은 초기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첨단과학 이론까지 접목시켜 삶과 수행의 백과사전인 화엄경을 명쾌하고 흥미롭게 해설하고 있다.

성법스님 지음 /신국판/349쪽 /값11,000원
정신세계원출판국
www.mindvisio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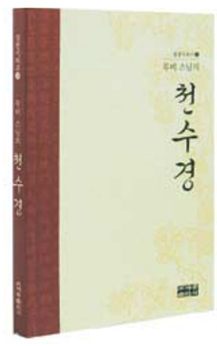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어렵게만 여겨왔던 경전공부, 쉽고도 재미있는 지침서가 여기 있습니다!
불교계의 대강백, 무비 스님과 함께 하는 경전공부!

대반야경 600권에 이르는 방대한 사상을 260자로 짧게 요약하여 그 진수만을 담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空사상을 담고 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실체가 없는 공임을 철저히 터득함으로써, 반야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 즉, 정등각에 이를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 조계종출판사는 불자들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경전들을 엄선하여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무비 지음/신국판 /160쪽/값7,000원
조계종출판사



무비스님의 천수경

어렵게만 여겨왔던 경전공부, 쉽고도 재미있는 지침서가 여기 있습니다!
불교계의 대강백, 무비 스님과 함께 하는 경전공부!

불보살의 중생구제 서원을 다라니를 통해서 구현한 것이 천수경이다.

불교의 어떤 의식에서든 맨 먼저 독송되는 경전으로 대승불교를 수용하고 있는 한국불교에서 불자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경전이다.

* 명쾌하고 알기 쉬운 해설로 엮어진 경전 시리즈를 불교대학 및 교양대학의 교재로 적극 추천합니다.

무비 지음/신국판 /176쪽/값8,000원
조계종출판사



요가비전 (YOGA 秘傳)

요가 ! 그 불멸을 향한 인간 완성의 길 지고한 영역에 오르고자 했던 수행자들의 영감어린 가르침

이 책은 요가의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카이발야다마(Kaivalydhama)요가 연구소에서산스크리트(Sanskrit) 원본(原本)의 기록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정리하여 완성한 것으로서 영역(英譯)으로 출판된 자료들을 모아 한국어로 엮은 고전요가 경전(經典)이다.

육체(肉體)는 흙으로 만들어 굽지 않은 그릇과 같으니, 요가의 불로 소성(燒性)함으로써 그 완전함을 얻을 수 있다.

배해수 편역 / 신국판 양장본 / 687쪽 / 값 35,000원
지혜의 나무



한철학1(생명이냐 자살이냐) 한철학2(통합과 통일)

단군이래 전승 되어온 순수한 우리사상을 한철학으로 풀어낸 책으로 세계를 이끌 대안을 제시!

더불어 사는 철학 온 이야기. 세계의 여러 철학과 사상들의 문제점과 부정성을 우리의 공동체 지난 3,000년간 세계 철학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긍정성의 철학

대립과 갈등을 통합과 통일로 바꿀수 있는 것은 우리 고유의 한 철학 뿐이다.

세계의 모든 철학을 아우르는 우리민족의 철학이 부정의 철학에서 긍정의 철학으로안내한다.

최동환 지음/신국판/각권 520쪽내외/ 값 각권 20,000원
지혜의 나무



구제프

파란만장한 구도자의 젊은 날, 구제프

이 책은 <서양의 붓다>로 칭송되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신비주의자로 잘 알려진 구제프가 구도자의 길을 가던 중 만나게 되는 여러 인물들과 흥미진진한 사건들을 둘러싼 마치 장엄하고 웅장한 스케일의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 구도자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젊은 구도자의 여정과 모험을 엿볼 수 있다.

구제프, 그는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신성한 사람이며 동시에 가장 역동적인 인물이다.왜냐면 그는 성자와 동시에 쇼맨쉽을 겸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다.

– 앨런 왓츠

박은구 편저 / 신국판 / 280쪽 / 값 10,000원
하남출판사



산 색

운서 주굉 스님의 죽창수필 선역!!!

가까운 산은 푸르스름한 것이 마치 남색인 것 같고
멀리 보이는 산은 거무스레한 비취빛인 것이 마치 남색에대 청대를 물들인 듯하니, 그렇다면 과연 산의 빛깔이 이렇게 변하는 것일까.

산색은 다름이 없다. 다만 시력에 차이가 있어서 가까운 곳으로부터차츰 멀어질수록 푸른빛이 비취빛이 되고, 먼 곳으로부터 차츰 가까워질수록비취빛이 푸른빛이 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푸른빛은 그럴 만한 인연이 모여 푸르고,

비취빛은 그럴 만한 인연이 모여서 비취빛이 되니, 비취빛이 환(幻)일 뿐만 아니라 푸른빛도 또한 환이다. 대개 모든 존재가 모두 이와 같다.

운서 주굉 지음/ 연관 옮김/신국판/ 224쪽/값9,500원
호미



문없는 문을 열다

전 세계의 지성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한국불교의 전통선, 간화선(看話禪)!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우리는 실재 속에 존재하면서도 실재를 알지 못한다. 선의 가르침은 우리들을 그러한 실재 속으로의 진입을 요구한다. 그래서 깨달음의 용어들은 상징으로, 그리고 환상으로 나타난다.

몸 없는 사람이 병을 앓고, 손 없는 사람이 약을 짓고, 입 없는 사람이 음식을 먹고, 감정 없는 사람이 안락을 누린다. 일러 보아야! 불치의 병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 종용록(從容錄) 운문(雲門)의 두 가지 병[兩病]에서–

현대불교신문사 엮음/신국판 / 449쪽/값15,000원
여시아문



야생화 쉽게 찾기
1,180종의 야생화를 1,300여 컷의 사진으로 담아 휴대하면서 산과 들에서 직접 야생화를 찾을 수 있다.
송기엽 · 윤주복 지음 | 올컬러 | 120×190mm | 608면 | 값 33,000원

나무 쉽게 찾기
612종의 나무를 3,700여 컷의 사진으로 담아 휴대하면서 산과 들에서 직접 나무를 찾을 수 있다.
윤주복 지음 | 올컬러 | 120×190mm | 688면 | 값 36,000원



곤충 쉽게 찾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998종의 곤충들을 2,000여 컷의 사진으로 담아 쉽게 곤충을 찾을 수 있다.
김정환 지음 | 올컬러 | 120×190mm | 640면 | 값 33,000원



구름 쉽게 찾기
10종의 기본 운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구름과 하늘의 모습을 600여 컷의 사진에 담았다.
이대암 지음 | 올컬러 | 120×190mm | 352면 | 값 27,000원

잔선출판사(주) 02-720-5990
※전국 유명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그곳엔 부처도 갈수 없다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라는 화두를 깨끗이 풀어낸 양자역학, "세상엔 옳은 일도 그른 일도 없음"을 증명한 상대성 이론 등 물리학 원리와 화엄경, 절창 禪詩와 선문답을 아울러 깨닫지 못한 누구라도 절대 경지를 엿보게 하는 책!

大愚 지음 | 값 15,000원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출판사 현암사 121-86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 3동 627-5 전화 02-365-5051 홈페이지www.hyeonamsa.com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

청담 지음/ 혜성 엮음

청담 큰스님 탄생 100주년 기념 말씀모음집 !

한국불교 조계종단의 거목이자,
동방의 큰별이셨던 청담 큰스님!
청담 큰스님의 마음철학을 집대성한
이 청정한 말씀의 꽃다발!
불교서점 운주사 선정 베스트셀러
교보문고 선정 화제의 책!

● 병든 세상, 타락한 문명을 향해 던지는 큰스님의 사자후 소리 — 법정스님

392쪽 | 값 12,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화남 전화 02)2279-4788 / 팩스 02)2285-6798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제1강 : 아제아제 바라아제 -지혜제일 사리불

강사 : 미산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공동주최 : 광주 동구불교협의회- 현대불교

일시 : 2005.10.5 / 장소 : 광주 KT정보센터



‘기복’ 아닌 직관으로 승화된 수행 제시

축제 즐기다 인생의 가치에 의문…부처님께 귀의

부지런하고 겸손한 대중의 귀감…누구에게나 배워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에서 기획한 부처님의 십대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장을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 내내 경전과 주석서를 읽으면서 감동에 젖었습니다. 그동안 부처님 제자하면 피상적으로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련,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 등 이렇게 ‘제일’이라는 것만 알았는데, 실제로 경전을 통해 부처님 제자들의 행적을 살펴보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리불 존자의 삶은 겸손하고, 고결하고, 인간적인 진솔한 맛이 묻어나며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교는 글자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생의 이치와 우주의 이법을 깨닫게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깨침의 종교이며 더 줄여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삶은 괴로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불교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나 지혜만 있다면 불교가 한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혜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란 지혜의 나툼입니다. 지혜의 발현이며 지혜가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것은 자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불교는 ‘지혜와 자비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하는 사리불 존자는 지혜를 완성하고 그 지혜를 온전하게 자비로서 행하신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중의 제자였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왕사성 부근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흥미롭게도 옆 동네에서 목건련 존자도 거의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두 존자가 태어나면서 마을이 환해지고 광명으로 가득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아이는 자라면서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날 축제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며 즐기고 있는데 불현듯 사리불 존자 마음속에 “이것은 도대체 무슨 기쁨이 있고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목건련 존자에게 “이것이 참다운 즐거움인가?”라고 물어보니 목건련 존자도 “이건 참다운 행복이 아니다 싶은 것 같다”고 답합니다. 두 청년은 축제장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뒤 참다운 삶,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계속 편력하면서 다니다가 육사외도(六師外道)의 하나인 산자야의 제자가 됩니다. 산자야에게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자 두 수행자는 유행을 합니다.

하루는 길을 걷다 보니 얼굴이 맑고 빛이 나는 사문을 만납니다. 두 수행자가 사문의 옷자락을 잡고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타마 싯달타의 제자입니다”

“그분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저는 고타마 부처님의 진리를 아직도 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문한 지 얼마 되지 못해 여러분들께 법을 전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

두 수행자는 사문의 겸손한 태도에 감복하며 조금이라도 좋으니 부처님 법을 들려주기를 청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서로서로 인과연이 되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모든 현상들이 생성, 지속, 소멸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사리불 존자는 앞 첫 구절에서 바로 수다원과에 듭니다. 그 전에 벌써 많은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리불과 목건련 존자는 부처님을 찾아 제자가 됩니다.

이 두 분은 교단에 들어와서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의 시샘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리불 존자는 전혀 자기 스스로가 상수제자이며 부처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마을에서 탁발을 하는 중에 날이 저물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바로 옆에 따라다니면서 부지런히 왔다갔다하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사리불 존자는 뒤로 빠져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미승들을 돌보아 주다가 늦게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리불 존자가 주무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자기 가사자락을 펴서 나무에 걸고 거적을 깔고 텐트를 만들어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사리불 존자는 항상 대중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대중들을 시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사리불 존자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사리불 존자가 길을 빨리 걷다보니 속가사가 겉가사 밑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7세된 사미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리불 존자가 동자승에게 공손하게 합장하고 “참 고맙습니다. 동자시여, 저는 이런 고귀한 가르침들을 어떤 분한테도 받들어서 행하겠습니다”하고 절을 합니다.

사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지위를 막론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사리불은 교단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모든 스님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하더라도 단체 조직사회에는 항상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루는 몇몇 스님들이 사리불 존자를 골탕을 먹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아 ‘정말 화를 내지 않는지’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개구쟁이 스님이 뒤에서 나무로 사리불 존자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사리불 존자는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터벅 터벅 걸어갔습니다. 도리어 때린 사람들이 무안해졌고 그들은 사리불 존자에게 참회를 합니다.

“존자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래요. 참회를 하면 모든 잘못은 다 없어지는 법입니다”하고 참회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을성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행을 잘한 스님들도 참 힘듭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잘 가누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수행력이라는 것은 자기마음을 잘 조절하는 힘입니다. 그 힘은 바로 지혜, 깨침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부단한 정진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리불 존자의 삶을 경전 속에서 읽으면서 정말 이분은 욕망의 찌꺼기까지도 전부 다 없애버린, 지혜를 완전히 성취하고 자비행을 행하신 훌륭한 분이시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교나 기독교 같은 고등종교 뿐만 아니라 미개하고 덜 분화된 원시적인 종교도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종교의 신앙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신행활동을 종교학에서는 1차적인 신앙형태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스님들에게도 있고 목사, 신부님에게도 마음 밑바탕에는 1차적인 신앙형태를 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차적인 신앙형태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것은 하등종교, 원시적인 종교로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등급 업그레이드 시켜줬을 때 고등종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참선을 잘하시는 분들은 직관의 힘이 커져서 삶과 우주만법의 이치를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호남 지역에서 큰 교화를 하고 가셨던 서옹, 청화 큰스님 같은 분들은 그냥 친견만 하더라고 직관으로 승화된 수행의 힘이 그대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거기에는 이론이나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한 차원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 형태로 커갈 수 있는 바탕은 수행에 있습니다. 이 고삐를 놓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리불 존자와 같이 지혜 갖춘 자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사회가 건전해지고 불국정토가 됩니다.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첫 강좌에는 1000여명이 운집, 복도 통로까지 꽉 차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사진=박재완 기자

질의응답

문 : 부처님 제자중에서 각각 특징을 지어 10대제자를 설정했을때가 언제이며 특징별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10대제자 설정시기는 문헌적으로 정확하게 찾을수는 없고, 빨리어 경전에 7대제자를 열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 두타, 설법제일 등 정확히 명기된 것으로 보아 부처님 당시에 이미 제자들의 특성들이 확연하게 정해졌고 또 부처님 제자들끼리 서로 통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전에 보면 “사리불 존자보다 먼저 출가하고 연대가 높은 제자가 있는데 왜 상수제자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상수제자는 이 생에 수행하고 원을 세워서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목한 것이 아니다. 사리불 존자가 상수제자가 된 것은 무수한 생 동안에 계속 그런 행을 했고 지혜를 쌓았기 때문에 결과가 지금 나타날 뿐이다”고 답합니다. 부루나 존자의 경우 항상 틈만 있으면 설법하러 나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저 스님은 설법 잘하고 그렇게 부른것이 인정 된 것입니다.

정리=이준엽 기자



육경신을 통한 천의선도 태종선사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기적의 천의선도를 만천하에 공개, 전수시켜 드립니다.

"천문을 열어라" 책값 : 20,000원

천의선도를 전수시켜드리는 과정을 천문을 열어드린다 합니다. 천의선도는 미구에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빙의된 조상신을 연화장 세계로 보내고 영능력을 길러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 선경을 이루라는 천명을 받고 14년전 창도되었습니다.

※ 천문이 열리면 하늘에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손과 손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끼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고 태종선사님의 사면령이 내려지면 연화장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30년 두통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몸이 거뜬해지고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리며 집안이 편안해졌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열심히 수련하면 당신손이 약손이 되어 타인에 천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홍보기간 중에는 평생회비 50만원을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천의선도 13주년 기념행사는 사회봉사활동

신다림으로 고통받는 분, 만성두통, 이명증, 목디스크, 견비통, 요통, 위이상으로 소화불량자, 우울증,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분에게는 생명의 에너지(하늘에 서기)로 쓸어드리면 신화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분이 10명중 8,9명 입니다. 체험해 보십시오. **요실금이 없어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어 남편 바람날 염려없고 전립선이 좋아진 남자는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니 이러한 신비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 내 나이 75세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생로병사와 사후 영혼들의 실상을 강의하고 다니는 것은 첫째 지면을 통해 발표한 외래종교교육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례를 밝히며 한 민족의 주체의식을 회복시켜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데 목적이요 둘째 무엇에 쓰워서 제 갈길을 못가고 방황하는 당신에게 조상신을 천도시켜준다고 유혹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에게 속지 마시고 빙의된 조상신은 당신 몸에 하늘에 서기가 충만할때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아야 떠나는 것이니 당신 외에는 누구도 보낼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셋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고충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천상비결을 전해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0월 10일부터 2주간은 서울 수련원에서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위 치**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답십리 고미술상가 2동 맞은편에 있습니다. ☎ 전화 : 02)2216-6278 / 011-9803-4600

매월 마지막주에는 부산에 있습니다

■ **위 치**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베르빌 오피스텔 1821호 서면 롯데호텔 뒤편 800미터지점
22층 건물에 24시 사우나 찜질방 간판 보임. ☎ 전화 : 051)803-5953, 011-9803-4600

■ **천의선도 본원**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토요일, 일요일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041)741-4600, 741-7600, 011-9803-4600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올림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2004-8213~6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승려 노후 복지시설 입주 스님 모심
청정도량 팔공산 인근 노후 복지시설에 입주할 스님을 모십니다.
황토방의 1인1실 최신식 주거환경으로 숙식제공과 함께 매월 기초생활비(월 30만원)가 지급됩니다.
• 입주요건: 만 50세 이상 승납 20년 이상의 조계종스님 입주 보증금 일부 있음(월 생활비 없음)
• 문 의: 011-805-3086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전까지문의)

사찰운영하실 비구스님 비구니스님 보살님 모십니다
법당,요사채,용궁,전답, 그림탱화,기치료,침술, 뜸 안마시술 등 특기를 가지신 임진생 미만스님 환영합니다.
전세 : 3,000만원
018-406-3073

행 자 모 집
(엘리트스님 양성 목표)
참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출가의 연을 갖고자 하시는 분 연락 바랍니다
문의 053)745-3334
대한불교조계종 삼존사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8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특유의 관정비법으로 전수합니다.
전화: 02)720-5719/720-5682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정	천도재	수	각	사	바라나비	경
안	49	륙	시		바	
식	재	재	식	물	춤	전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 사 문 의
011-869-8560 진우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구병시식, 신명의식
011-850-0176

사찰운영(동업,주주)모심
• 사찰위치 : 경주
• 규모 : 토지3500평,건물 300평 (소자본으로 힘을 모아 사찰운영 같이 할 분)
처사님 보살님 동참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051)803-5143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세계 어디에도 없는 눈을 위한 신 개발품. 눈 생각
섭취하고 반응없을시 100%환불
02)2631-2205,1305
대리점 모집

열린건강교실
(한국생활익지공협회)
• 생활기공수련비디오 테이프 / CD / DVD - 국내최초
• 가격 : 1만원(무료건강상담)
• 1주일 무료체험기간 운영중
대구 053)625-3118번
www.gigong.ne.kt

108불서 연구원
금강경 병풍 전문
각종불서 액자용 기타
일산 황면식
051)416-7680
010-2460-0108

비구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50전후)
사무1명 (40세전후)
사찰요리보조원1명
011-9150-9190

부전스님이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주십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0-4555-298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조계종 사찰 (분당)
031-719-040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3-3004
02)359-7766

비구니스님 부전구합니다
▷김포위치
011-688-662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세-63세까지)
▷경기도
010-7160-2734

총무 보살님 공양주 보살님 화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971-0208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팔공산〉
053)982-0226
010-3189-8745

스님되실분 모십니다
(연령 · 성별 제한없음)
▷성불사
055)286-1050

강원도 원주에 자리잡고 있는 보연사가 2005년 9월 15일 오후 2시 40분에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불자님들의 불사를 받고자 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보연사 201061-01-002545 우체국
010-2369-2822

기도에만 전념하실 비구(부전)스님을 모십니다. (포교원)
▷서울 송파
019-9373-3535

법납 10년된 착실한 기도스님입니다. 기도스님이 필요한 사찰 연락주십시요
010-8482-0075

함께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011-9571-6479

40대 비구승 혼자계심 참신한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사천
011-529-3713

비구부전스님 자리 원합니다
(부산 경남 지역)
불교 제의식 다합니다
017-571-5599

사찰사무장 모십니다
상주가능 출퇴근도 가능
031)335-2576
011-270-2675

산 좋고, 물 좋은 오래된 암자 3,500만원에 사글세 냅니다.
법당,요사채 100평. 용화전, 용왕전,산신각,정각
꼭 원하시는 분만 전화요망
011-9126-2266

불상(급)안내
지장대불을 모실분을 찾습니다
• 위치 : 경북 • 높이(좌대포함) 23석자
옥좃대, 향로, 다기-한세트, 초꽂이 180개
• 대불조성 6,500만원 / 대불 모실때 4,500만원
꼭하실분만 연락요망
010-6512-1237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신모라 사거리
• 평수: 약 40평
• 전세금: 보증금 3천만 / 월 10만
시설비: 절충후 결정
• 교통편리, 아파트 단지 인근 포교최적지로 즉시 입주가
051)317-0011

사찰안내
• 위치 : 포항시
• 면적 1천평. 법당13평, 요사채70평 (신식건물)
• 가액 : 3억 5천만원
054)246-2350

사찰안내
• 위치: 대구
• 건물 2동 한옥 부지 200평
•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9천만원
011-245-5467

포교원안내
• 위치 : 충남보령시내 4층건물중 2층. 약 45평
• 법당, 방3개, 주방, 욕실, 법당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12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결정
• 절충가능 즉시입주가능
011-460-4778

수능시험합격부적패션출시
"경명주사"로 특수염색자수 하여 氣를 발산하고 액운을 막아주며 행운을 주는 패션제품
• 수험생에게 합격의 선물로... • 학업자에게 지혜의 선물로...
• 사업자에게 성취의 선물로... • 어려운이에게 희망의 선물로...
• 모든이에게 행운의 선물로... ■ 제품 : 팬티, 손수건, 양말, 차량용 복주머니
선물용포장 017-533-1356 [특허출원]
유통사업관심계신 분 - 전화상담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첩경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행자 [예비스님, 남 · 여]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남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삼귀의 ·청법가 ·사홍서원
·찬양합니다 ·법문 ·산회가
·반야심경 정근 ·기타찬불가
·입정 ·발원 및 축원

• 기초교리
1. 불교란? 12. 삼업
2. 부처란? 13. 삼학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14. 신도오계15. 사성제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16. 사섭법
6. 합장과 반배 17. 십이인연
7. 고두례 18. 육바라밀
8. 예불문 19. 팔정도
9. 삼보 20. 보왕삼매론
10. 삼귀의
11. 삼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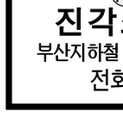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괘도를 구매하시는 모든분께 고승열전도서 - 용성큰스님 운허큰스님 (정가16,000원) 2권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사은품은 선착순 100분께만 드립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02-2004-8218~9
Mahamall.co.kr 02-732-1520

제4기 불교의식
범음 범패 학인모집



본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불교의식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뜻 있으신 분은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과 정

기초과정(6개월)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사시불공, 상용영반, 요령, 목탁타법
전문과정 (1년)	삼신이운, 각단권공, 사다라니, 대령관욕, 49재, 천도재, 시식, 사물타법, 요잡, 제반의식

2. 모집대상 : 스님 및 불교의식에 뜻이 있는 재가불자
3. 강의일시 : 매주 월-토요일 중 택일 오후 2시부터 (주1회 4시간 교육)
4. 제출서류 : 본원 소정양식 수강원서 / 사진 2매
5. 교 수 : 대원스님 (부산 무형문화재 제9호, 사단법인 부산 영산재 보존회 범음 범패 부문 조교)

부산 동래구 명장동 산 54-1 (금불사 부설)
051)522-1948, 051)523-1948, 011-597-8077
영남 범음 범패 교육대학

진각스님 철학교실 수강생 모집



어려울때는 철학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문을 모르셔도 괜찮고 기초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쉽게 속성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1. 과목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2. 교육과정 : 기초부터 5개월
3. 모집요강 : 스님, 일반 男 · 女 4. 교육기간 : 주4회, 1일 1시간씩

부산 연제구 연산 2동 1594-10
(社)大韓佛敎 부산 송광정사 부설
진각스님 명리 철학 교육대학
부산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안쪽 50m에 있습니다.
전화 051-867-8438 / 팩스 867-743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님의 격려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을유년은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신 기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연수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가치관의 체계확립 및 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이론 및 실제
6. 원고적성법(문장구성 및 내용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적 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맞춤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개강 : 2005년 11월 3일 목요일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나는 행복한 새 소망 FC 구단주입니다

「새 소망의 집」 아이들과 축구단을 만들었습니다.
친동생 같은 녀석들과 뛰어 놀 때가
노래할 때 만큼이나 행복하다는 그.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이 대신해야 한다며
7년 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주고도
항상 부족하다고만 생각합니다.
녀석들과의 인연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앞으로도 영원한 구단주로 남겠다는 가수, 김장훈 씨.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고 · 객 · 행 · 복
oki SK



SK와 함께하는 '참 좋은 당신'으로 청소년 복지시설 후원에 힘쓰는 가수, 김장훈씨가 선정되었습니다

추천해주십시오!
행복을 나누는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곁에서 '나눔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분'의 따뜻한 사연을 담아 전화와 인터넷으로 추천해주십시오

♥ 접수방법: withheart.sktelecom.com (봉사자의 자원봉사 사연과 이름, 주소/신청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입) ♥ 접수일정 : 2005년 2월 15일 – 2005년 11월 30일까지
♥ 심사 : SK 자원봉사단 자문위원 ♥ 문의 : 080-521-1004 / friends@sktelecom.com ♥ 선정된 분(팀)은 소정의 후원금(300만원)과 함께 아름다운 사례로 소개되어질 예정입니다
이 달의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신 분께는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그 외 추천해주신 분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기념품을 드립니다

SK Telecom

‘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본지는 지난 3개월간 직장직능, 복지, 군부대, 어린이 및 청소년 분야에서부터 대중문화와 사이버 스페이스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포교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획 ‘맞춤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를 연재했다. 포교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성공담과 실패담을 모아 분야별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 기자들이 발로 뛰었다. 지난 3개월간 기획취재에 참여한 기자들이 10월 6일 취재과정에서 느꼈던 점과 해결되어야 할 과제와 포교비전을 방담으로 정리했다.

‘열린 생각 · 열정 · 시스템’이 포교 열쇠다

● 글 싣는 순서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사명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뇌 그리고 희망
3. 일터불심, 신행과 포교의 틈 좁히기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11. 지식인, 포교 주체인가 대상인가?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13. 기자방담


포교기획 ‘맞춤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에 참여했던 본지 기자들이 10월 6일 방담을 가졌다. 기자들은 “구체적 자료를 통한 과학적 접근, 전략적 포교이론의 정비 등 새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과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 이번 포교기획은 현장에 맞는 맞춤 포교의 틀을 제공한다는 야심찬 기획아래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축적되어온 포교 노하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 포교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우선 기자들이 현장을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종단이 한해 포교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는 액수는 전체의 약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포교 없이는 불교의 미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교예산은 해마다 줄어드는추세에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포교사들에 대한 종단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 대중스타 포교에 활용하자

◯… 비교적 포교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직장직능 분야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포화상태에 다다른 직장직능 단체들 사이에서 이른바 조직화가 되지 않아 와해되거나 왜곡된 신행으로 번지는 등의 한계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 대중 문화의 중심에서 유행을 선도하는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 중에는 불자들도 적지 않지만 그들을 활용한 포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현재 대한불자가수회와 한국불교예술인연합회 등이 자체적으로 음성포교에 나서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 대중문화뿐만이 아니지요. 일반 문화계가 다수의 대형 창작물을 쏟아내며 활기를 띠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불교 문화계는 너무 조용합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문화계는 자본과 직결되는 장르입니다. 불교계의 인색한 투자와 무대책이 오늘날 불교문화를 빈곤하게 만든 것입니다.

◯… 그래도 불교 복지계는 다른 분야에 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잘 되고 있는 복지관은 모두 불교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간 불교복지는 눈부시게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양한 계층에게 꼭 들어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어,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복지를 통한 불교 포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교사 재교육 · 지원, 종단서 나서야

예산 늘리고 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 분야별 불자 지식인 단체 구성을

◯… 현재 불교계가 펼치고 있는 ‘사이버 포교’는 대부분 인터넷 포교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접근은 더 이상 새로운 포교방법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는 전 분야에 걸친 유비쿼터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교계 역시 이에 걸맞는 우수한 콘텐츠와 양질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 종단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인구감소와 취약한 접근성 때문에 포교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사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20년 후 스님도 신도도 없이 폐허가 된 사찰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역시 무관심 속에 방치된 채 해마다 수가 줄어들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더구나 어린이 · 청소년 불자의 수조차 제대로 파악돼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기사를 작성하면서 각종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단체에 소속된 불자 수만 파악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전체 어린이 · 청소년 불자의 수는 2003년 조계종 포교원 조사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도 조계종에 국한된 자료였지요.

◯… 지식인 포교를 취재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지식인이 포교의 주체인가 대상인가’였습니다. 지식인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처럼 포교의 대상임은 분명합니다. 동시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감안할 때 포교의 주체로 나서야 할 책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불자회 등을 제외하면 지식인들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해 포교의 일선에 나서고 있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은 지식인들이 포교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 대학생과 외국인노동자 계층을 취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돈이 안 되는 분야에는 여전히 불교계 관심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스님들과 포교사들이 사재를 털어 포교 활동에 나서고는 있지만, 종단차원의 정책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요.

▥ 돈 안되는 분야엔 무관심

◯…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취재 과정에서 새로운 접근방법 또한 도출해 낼 수 있었기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취재과정에서 각자 생각한 맞춤포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대안이 있기 마련입니다. 각 단체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파악하면 그에 맞는 해답이 나오지요. 직장직능 역시 알찬 운영으로 꾸준히 활동을 펼치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교대학과 연계해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거나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회원을 하나로 모은 단체들은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지요. 여기에서 직장직능 분야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최근 몇 년간 산사음악회가 각 지역축제와 연계해 붐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산사로 불러 모았지요. 지금이야말로 산사음악회의 성공을 발판삼아 문화포교에 나설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예술인들끼리 인프라를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키워야 하겠지요. 후원기금을 마련할 창구를 개설하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을 통해 불교포교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N세대 스타 중에서 불자가 누구인지를 꾸준히 파악하고 신행단체와 이들을 연계해서 불교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불자 연예인과 종립학교가 팬미팅 형식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요. 종단을 통해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면 폭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틈새 파고드는 블루오션 전략을

◯… 지역포교는 역시 현지화와 특성화가 관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농촌 뿐 아니라 도심사찰의 경우에도 인천 용화사의 사례처럼 현대인들이 원하는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블루오션’ 전략이 필요합니다.

◯… 틈새를 파고드는 ‘블루오션’ 전략은 사이버 포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 온대로 인터넷 포교를 통해 내실을 다지는 한편, 사이버 포교의 또 한축은 신기술에 두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포교사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종단과 사찰이 포교사의 능력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활동중인 포교사는 양질의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는 일정 기간 현장자원봉사를 하며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 어린이 · 청소년 분야 역시 종단차원의 거시적인 지원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제는 어린이 · 청소년 계층 포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매년 이들의 숫자를 파악해 포교지침을 세울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하나쯤 설립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저 역시 이번 기사를 쓰면서, 현재 불교복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2000년 이후 간행되지 않은 복지총람을 다시 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계층은 불교의 미래 포교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관련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대만 불광산사처럼 해외인재를 국내로 유치해 한국어와 불교공부를 시킨후 다시 해외로 내보내는 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조치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교수포교사제 도입하자

◯… 지식인 취재를 하면서 사회여론주도층에 불자가 적기 때문에 불교계가 입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가 제안한 교수포교사제도는 장차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포교를 펼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정작 종단측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열린 마인드 없이는 포교가 요원하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참석자=김주일 · 강지연 · 박봉영 남동우 · 조용수 · 강유신 여수령 · 박익순 · 유철주 노병철 · 이은비 · 김강진 기자
□정 리=이은비 기자

대원불교대학 마포 BBS불교방송 다보빌딩으로 학사 이전

대원불교대학이 2006학년도부터 마포 BBS불교방송 다보빌딩으로 학사를 이전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 2의 개교를 합니다. 그동안 대원불교대학을 아껴주신 동문,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6학년도부터 새로이 **불교상담학과**를 개설 운영하오니 많은 분들의 동참바랍니다.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서울 · 부산)

불교입문과정
- 주, 야간 50명(주 1회 출석, 6개월 과정)

대 학 과 정
- 불교학과 : 주, 야간 각 100명(주 2회 출석, 주간 오후 2시, 야간 오후 7시)
- 불교상담학과 : 주, 야간 각 100명(주 2회 출석, 주간 오후 2시, 야간 오후 7시)

대학원 과정 (불교대학 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응시 가능)
- 불교학과 : 야간 30명(주 2회 출석, 오후 7시)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5년 12월 12일 ~ 2월 20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학업계획서 및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과정만 해당)
- 합격자 발표 : 2006년 2월 21일(대원불교대학의 전 과정은 서류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교학과 (서울 02-754-1613, 부산 051-583-7811~2)로 해 주십시요.

30년 전통 대원불교대학의 자랑
- 최고의 교수진과 체계적인 교육
- 저렴한 교육비와 최상의 학사행정 서비스
- 부부 입학 시 1인 50%, 학업우수자 50%, 불교성직자 30% 장학혜택
- 재학생 전원 불교사이버대학 수업료 면제(동영상 강의 시청)
- 졸업 후 소정의 고시를 거쳐 법사 및 불교전문상담사 자격증 취득

■ **학사이전 기념 동문 · 재학생 초청 대법회 및 축하 리셉션**
2005년 11월 26일(토) 오후 5시
BBS불교방송 3층 다보원 큰법당

대중불교운동을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www.idaewon.or.kr / www.buddhaschool.or.kr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매월 셋째 목요일 장터로 오세요

서울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운영 기금 마련



서울노인복지센터 앞 길가에는 10월 4일~7일 '장터'가 열렸다.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추억의 장터 수익금은 서울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운영기금으로 사용된다.

"500원이에요, 보고 가세요."

10월 6일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 앞길. 치마, 바지, 상의 할 것 없는 의류를 5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말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좌판을 구경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10월 4일~7일 '장에 가는 날' 행사를 열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18일까지 계속되는 '탑골 사람들' 행사의 일부기도 한 '장터'에는 어르신들과 행인들에게 신명나는 행사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속 뜻'이 자리 잡고 있다. 바로 '경로식당 후원기금 마련'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복지관에서 기증받은 의류 4000여점을 판 수익금이 매일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에 사용되는 것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찾는 어르신들은 하루 2000명. 경로식당 운영 자금만 350~400만원이다. 때문에 경로식당은 항상 후원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명절이나 연초 · 말을 제외하고는 후원금도 줄어들어 운영 자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날씨까지 쌀쌀해지면서 식당에 반드시 필요한 채소 후원도 줄어들고 있다.

이번 장터를 통해 경로식당 운영 기금 후원을 호소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매월 3번째 목요일 센터 3층 중앙공원에서 펼쳐질 '장터'를 통해 계속해서 이용자들의 경로식당 후원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02)739-9501

글 · 사진=김강진 기자

일허 스님 달마도 구입안내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에 일허 스님(밀양 영천암 주지)이 달마도 100장을 보시했습니다. 달마도(사진)는 35×45㎝규격이며, 작품 가격은 장당 5만원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민수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달마도 구입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39

영천암 (055)356-2040, 일허 스님 011-867-4747

계좌번호: 006001-04-095472, 국민은행 예금주: 김강진 (현대불교)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hompy.buddhapia.com/homepy/helpminsu

▌도와주세요

생명나눔 10월의 환우 백혈병 투병 김지민양



생명나눔실천본부 10월의 환우로 선정된 지민이(7 · 사진). 요즘 지민이네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지난해 6월 지민이가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받았기 때문. 지민이는 3월, 조직이 맞는 조혈모세포를 찾아 이식받았지만 6월에 다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전환(2차성 백혈병)됐다. 여기에 숙주반응과 약물부작용으로 암세포가 나타나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

아이를 살리고자 진 빚은 점점 지민이 부모를 짓누르고 있다. 그러나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지민이를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 (02)734-8050 김강진 기자

나눔성금 보내주신 분

이창근 1만원 윤선애 1만원

총 누적성금 42,186,050원

■ 불교를 잘 아는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 현불
현불 프리미엄 불교 성지 순례 | 중국 - 4대 성지를 찾아서…
제1탄 관음성지
항주, 녕파, 천태산, 보타산 5일
11월 7일 출발 | 접수마감: 10월 31일
■ 전일정 특급호텔 투숙
■ 불교를 잘 아는 현대 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의 수준높은 불교성지 순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불교4대성지순례
제1일 인천국제공항 출발 항주 도착 국청사,지성산,지공원참배 녕파 도착
제2일 보타산 보제사, 법우사, 혜제사, 관음대불(법회), 법음동, 자죽림
제3일 낙가산 보타산 녕파 도착 천동사 참배
제4일 아유왕사 참배 항주 이동 서호 유람, 영은사, 육화탑견학
제5일 항주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육화탑 영은사 서호 영은사입구
현불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 THE HYUNDAE BULKYO TRAVEL TEAM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접수처 : TEL 02)2004-8295~6
사업팀 최언규 팀장 : 018-366-1002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생명나눔 소식지 발송돕는 '동심회'

생명나눔 열풍 이어가야죠

최근 불교계에 불고 있는 '생명나눔' 열풍으로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 생명나눔)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러나 생명나눔 소식지 '삶과 생명나눔 10월호'는 어김없이 발간됐고, 전국 생명나눔 회원들의 손에 쥐어졌다.

동심회 회원들이 9월 28일 꼼꼼하게 지로용지와 소식지를 함께 넣고 풀칠해 발송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발송한 생명나눔 소식지를 회원들이 읽고, 어딘가에 전달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동심회다.

4년 전부터 생명나눔 소식지 발송에 나선 동심회 보살들에게 생명나눔 회원 가입은 '기본'이다. 회원 가입을 하고 보니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졌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식지 발송이라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공교롭게도 거의 같은 시기에 이런 의식을 가진 4사람이 모여 '동심회'라는 이름아래 뭉쳤다.

동심회 보살들의 활동은 소식지 발송 작업에서 끝나지 않는다. 생명나눔 캠페인에도 직접 참여,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서도 빛을 발한다.


동심회가 생명나눔 소식지 발송 작업을 돕고 있는 모습. 동심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실을 찾는다.

"'생명나눔' 열풍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생명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회원 가입을 권해야죠. 캠페인을 호객행위처럼 해서는 안 되겠지요."

손강자 보살은 생명나눔의 훼저한 원칙이 '자발성'이라 지적한다. 그래야만 진심어린 생명나눔 열풍이 이어져나간다고 믿는 까닭이다. 김영숙 보살도 동의하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손보살은 현재옥 · 조한순 보살과 함께 고대 구로병원 고객서비스팀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생명나눔' 가입을 권하고 있는 보살들은 "우리만 좋은 일 하는 것 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며 앞으로도 웃으면서 '생명나눔'의 소중한 뜻을 전달하겠다고 다짐한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감 사 드 립 니 다
- 청암사승가대학 불사회향 및 졸업식 -

'청암사승가대학 불사회향 및 졸업식'에 참석하여 주신 노덕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암사가 유서 깊은 천년고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면서 오늘날 대표적인 비구니승가대학중의 하나로 도제양성은 물론 불자들의 참된 귀의처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 노고의 결실인 '청암사승가대학 불사회향 및 졸업식'이 여러분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깊은 감동의 자리로 잘 회향되었습니다. 혹, 경황이 없는 중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예를 올리며, 왕림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49년 10월 3일

청암사승가대학 학장 의정 지형 주지 의진 상덕 총무 대웅 간경대중일동 합장




청암사승가대학 740-962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688 전화 054)437-0038 / 팩스 054)437-9664 / 홈페이지 www.chungamsa.org 한글도메인 : 청암사, 청암사승가대학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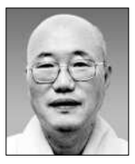
상주 공연장 사고 희생자 위문

조계종 호계원장 월서 스님은 10월 6일 상주 시민회관 합동분양소를 방문, 지난 3일 발생한 상주시민운동장 사고 희생자 가족을 위문했다.



무생계 수계법회

합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10월 16~17일 대적광전과 보경당에서 방장 법전 스님을 증명법사로 무생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성철스님 열반 12주기 학술회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10월 12일 오전 10시 부산 고심정사에서 성철 스님 열반 12주기 기념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전시회

실천승가회 공동의장 효림 스님은 10월 12일 서울 불일미술관에서 여성 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한 '효림/남보/구산 초대전'을 연다.



전승련 학인대회

전국승가학인연합회장 인오 스님은 10월 13~14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제17회 전국승가학인대회를 개최한다. (010)8325-2525

4개 의정부 불교유치원 연합운동회



제12회 의정부지역 불교유치원 연합운동회가 10월 2일 의정부 광동고에서 펼쳐졌다. 이번 연합운동에는 의정부포교당 연화유치원, 회룡사 자비유치원, 석남사 봉연유치원, 봉화정사 봉화유치원 원아 300여명과 학부모 등 1000여명이 참가했다. 연화유치원 이사장 혜승 스님은 "화합으로 새싹불자들의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조용수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활성화 기획단 꾸려 비전 실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새회장 성윤갑 관세청장



사촌 동생인 천태종 前 총무부장 덕수 스님(정선 달성사 주지)의 출가로부터 시작됐다. 친형제처럼 지냈던 동생을 만날 때마다 들려주는 법문에서 행복감이 밀려왔다.

요즘 유식불교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성 회장은 최근 대학원 졸업논문을 바탕으로 저술한 <행복한 삶을 위한 유식 삼십송>을 발간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47개 단체로 출발했던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창립 5년만에 280개 단체를 아우른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조직체계와 빈약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공무원조직이면서 신행단체라는 특수성을 살린 혁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0월 2일 제4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성윤갑 관세청장(57 · 관심 · 사진)은 공불련 활성화를 위한 중 · 장기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단체 대의원을 중심으로 '공불련 활성화 추진기획단'을 꾸려 로드맵을 만들고, 회원들이 하나씩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실천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공불련의 인력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비전과 전략을 결정하는 일도 '공불련 활성화 추진기획단'의 주요 임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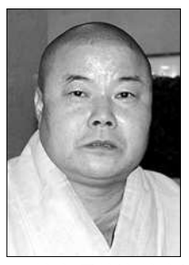
입사 12년만에 내부발탁돼 청장에 오른 성 회장은 관세청 내에서 온화한 인품과 동료를 배려하는 포용심으로 신망이 두텁다. 이런 정평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구체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그의 불교적 소신에서 비롯됐다. 부산세관 근무시절에는 불자모임인 관우회를 만들었고, 본청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불자회 결성을 주도했다.

"근무한 곳마다 불자회를 만들어 놓았지만, 기관장의 성향에 영향을 받다보니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관세청 불자회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지역세관의 불자회부터 활성화시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성 회장의 불교와의 인연은 이종

"한국불교 세계에 알릴 기회"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삼국유사' 독일어판 선보이는 상인 스님



"<삼국유사> 독일어판 출판을 통해 한국과 한국불교의 유구한 전통을 세계인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독일에서 열리는 '출판올림픽'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10월 22일 한국을 대표해 <삼국유사> 독일어판 출판기념식과 봉정식을 개최하는 군위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사진)은 요새 한참 바쁘다. 이번 행사가 세계인들에게 한국불교의 참모습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출판기념식을 최대한 여법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삼국유사> 독일어판 총번역을 담당한 김영자 교수가 인각사 발굴현장 사진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악인 임남순 씨는 한국불교 전통예술인 바라춤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출판기념 사인회도 21~23일 현지에서 진행된다.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연 스님도 그 행사를 함께 할 것입니다." 상인 스님은 이번 행사의 주인공이 일연 스님이란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스님의 진영을 모시고 독일행 비행기를 탄다고 강조했다. **배지선 기자**

관문사 창건 7주년 기념법회



천태종 관문사(주지 춘광)는 10월 2일 창건 7주년 기념법회 및 불교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춘광 스님은 "지역사회 종교 문화 복지 구현에 앞장서는 사찰이 되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 등 500여 명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목요일엔 불화를…"

3寺서 불화교실 여는 이철승 불화가



"매주 목요일에는 불화 선생님이 됩니다."

1998년 여름 조계사에서 불화강의를 시작한지 7년이 넘은 베테랑 불화선생님 이철승씨(사진). 이철승씨의 목요일은 아마추어 수강생들을 위한 불화교육의 날이다. 조계사에 이어 지난해에는 길상사에서 불화강의를 시작했다. 10월 13일부터는 아미타사에서도 강의할 계획이다.

목요일 오전 길상사(02-3672-5945) 강의에는 10여명, 오후 2~4시 조계사(02-732-2115) 강의에는 30여명이 수강하고 있다. 아미타사(02-745-3351) 강의는 저녁 6~8시로 15명을 예상하고 있다. 2시간여의 불화 강의 시간 동안 이철승씨는 시간을 쪼개 교육생 개개인에게 1대1 강습 원칙을 지킨다.

"불화를 배우려면 불심이 있어야 합니다. 흥미위주로 불화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거든요." **강지연 기자**



2005 한마음체육대회 성료 … 제주지원 우승

한마음선원 신도회(회장 문명진)는 10월 2일 안양 경인교대 운동장에서 '200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안양 본원과 전국 15개 지원의 신도 4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체육대회에서 신도들은 줄다리기, 계주, 축구 등을 통해 우정을 나눴으며, 종합우승은 제주지원이 차지했다.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은 이날 행사에 참석, 신도들을 격려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개회사에서 안양 본원 주지 혜원 스님은 "공부를 많이 한 팀은 질 것이고, 공부를 적게 한 팀은 이길 것"이라며 화합을 당부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하승완 보성군수 초의상 수상자에 선정



해남 대흥사 초의문화제 집행위원회(위원장 몽산)는 녹차 홍보와 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하승완 보성군수(사진)를 제 14회 초의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0월 5일 밝혔다.

하승완 군수는 보성녹차 홍보와 상품화에 주력, 내수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데 기여했다. 시상식은 10월 29일 오후 3시 대흥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몽골에 대불봉안



한국불교 금강선원(총재 활안)은 9월 28일 몽골 울란바토르 자이산 국제평화공원에서 23m 대불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활안 스님은 "한 · 몽골 불교 교류와 몽골 불교 중흥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강선원은 몽골 고려사와 함께 3년 전부터 이번 대불봉안을 추진해왔다.

일승종 법계고시 실시



대한불교 일승종(총무원장 혜정)은 9월 30일 구리 삼봉사에서 법계고시를 실시했다. 이번 법계고시에는 사미계 및 건당 입실 31명, 법계고시 396명이 접수해 성황을 이뤘다. 총무원장 혜정 스님은 이날 "스님 생활에는 오늘 내일이 없다. 먹고 자고 참선하는 그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라"고 법문했다.

"수행과 건강을 위한 가족도량"









백옥천불 가족도량

봉화산 길상사

온가족이 함께 수행정진 할수 있는 고향집 같은 사찰

10월 9일 원로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새로이 개원한
"백옥천불 가족도량 봉화산 길상사"는 고향집같이 넉넉하고 푸근한 공간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수행정진 하며 불교와 건강을 동시에 체험할수 있는 참살이(WELL-BEING)수행 도량입니다.
개원과 동시에
"100일 참회 관음기도"와 "새해소망 천등 불사"를 갖습니다.
"100일 참회 관음기도"는 33일간은 108참회기도,다음 33일은 가족을 위한기도 나머지34일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봉행합니다.
기도와 천등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동참문의 / 길상사 종무소 051)973-5224

주지 자인 합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8번지 신촌마을
전화 051)973-5224 / 팩스 051)973-3076

11월 11일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지골사리를 한국에 모셔옵니다.

중국 법문사 현지에서도 친견이 불가능한

부처님 진신지골사리 친견. 그 장엄한 나툼이 우리곁에 펼쳐집니다!!

불기2549년(2005년) 11월 대한민국은 2,000만 불자와 더불어 온 국민이 부처님의 빛을 따라 광명해탈의 정토가 됩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유일의 부처님 진신지골사리 친견에 즈음하여 2천만 불교도와 국민께 드리는말씀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예하님, 원로회의 의장 스님, 원로의원 스님, 각 종단 종정 예하 및 원로 대덕 스님과 총무원장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스님과 비구, 비구니 스님, 각 신행단체장과 사부대중, 그리고 정계와 문화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 및 5천만 국민 여러분.

이번에 저희 '중국 법문사 부처님 진신지골사리 친견 대한민국 봉행위원회'에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부처님 진신지골사리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2천만 불교도는 물론이요, 5천만 겨레 모두에게 커다란 홍복의 기회요, 무한공덕을 짓는 기회이며, 부처님의 가피지묘력으로 국운융창과 세계평화 기여의 더 없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부처님이신 미륵부처님은 56억 7천만년이 지난 뒤에야 사바세계에 그 모습을 나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 역시 백천만겁난조우로 비유될 만큼 어렵고 어려운 인연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는 일이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지골사리를 친견하는 의미는 이런 맥락에서 놀랍고 신성하며 장엄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세상에 단 하나 뿐이며, 유네스코에 등록된 유일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지골사리를 대한민국에서 친견할 수 있는 법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행사가 불교도뿐만 아니라 거국민적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봉행위원회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만 불교도와 5천만 겨레 여러분.

부처님을 친견하는 공덕은 백천만겁의 모든 죄와 업장을 소멸하고 일체의 모든 소원을 다 성취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소원을 성취하고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을 찾아 기도를 봉행합니다.

그러나 적멸보궁을 찾아가더라도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특별기도, 친견, 참배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직 이 법석에서만 친견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백천만겁난조우의 공덕 짓는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문사 부처님 진신지골사리 친견은 56억 7천만년을 기다려 미륵부처님을 친견하는 공덕에 버금가는 공덕을 불자들과 친견 국민들께 흠뻑 드릴 것입니다.

또한 이번 모시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 지골사리와 함께 중국의 국보급 문화유물 150여 점이 전시돼 중국문화의 진수를 한국 땅에서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석가모니부처님 진신지골사리 친견 대한민국 봉행위원회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직무대행 **현 고**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 회 장 **운 산** ·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운 덕** ·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 회 장 **회 정**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 파**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장 주** · (사)민족화합 운동연합 상임공동의장 겸 본위원회 후원회장 **이재환** 7배 돈수합장

불지사리의 나툼

1987년 사월 초파일!
진신보탑을 철거하고 지하궁 유물을 발굴하던 발굴팀은 사월 초파일
역사적인 불지사리를 발굴하기에 이르른다.
至高至上의 聖體 佛指舍利는 이렇게 다시 세상을 빛내기 위해 나투신다.

- '법원주림(法苑珠林)'에 보면 그 8만4천 사리탑 가운데 중국에 19탑이 있으며 그 중 하나인 치저우(岐州)의 법문사 탑 아래 부처님의 손가락뼈인 불지사리가 묻혀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 서기704년(장안4년) 측천무후가 현수국사 법장을 법문사에 보낼 때 해동신라국 시강겸 한림학사 승무랑 정수병부시랑 최치원을 동행시켜 탑기첨례(탑의 지궁을 열고 불지사리 참배)를 했다는 7일간의 행도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 당송(唐宋) 이래 강택민(江澤民)에 이르기 까지 황제는 이 불지사리 봉양이 관례가 되어 내려 왔고 민간에서는 이에 빌면 소원성취 한다 하여 기적의 신령스러운 성보가 되었습니다.



中國의 皇帝라 할지라도 용이하지 않았던 佛指舍利 親見

2005년 대한민국은 2,000만 불자와 더불어 온 국민이 부처님의 빛을 따라 광명 해탈의 정토가 됩니다.

지하궁 유물


• 류금대좌보살


• 홍안문은향낭


• 우금마갈문 죄유 삼족가은염대


• 감조석수정곽자

당나라 황실 사찰 법문사
부처님 진신지골사리 친견 및 지하궁 유물한국 특별전

기간/장소
서울 _ 불기2549년(2005년) 11월 11일(음,10월10일)(금) ~ 12월 3일(음,11월 2일)(토) 23일간 / 올림픽 제2경기장
부산 _ 불기2549년(2005년) 12월 8일(음,11월 7일)(목) ~ 12월 20일(음,11월19일)(화) 13일간 / 부산 BEXCO 제1 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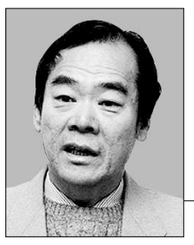
주 최
경향신문, (사)부산컨벤션뷰로, PSB부산방송, 부산일보
중국불교협회,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중국 국가문물국

주 관
불지사리 한국이운 봉행위원회

후 원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방송, 불교TV

행사내용
친견법회 / 법문사 지하궁 유물전시 / 부대행사 (영산재, 법무, 범패 등)

문의처 : 봉행위원회 TEL.02)730-7273 FAX.02)730-7275 http://www.buljisari.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2 종로우정에쉐르빌딩 3층



불자 세상보기

이 근 후
열린마음 클리닉 원장

내 눈앞의 '위험'들

지난 일요일 가족들과 함께 소래포구를 찾았다. 연휴라서 그런지 정말 사람들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인산 인해였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지만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처럼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가족에게 한마디 건넸다. "누가 뒤에서 불이야 라고 한마디만 외치면 바로 이곳이 지옥일거야." 나는 그런 두려움을 실제로 느끼면서 말 했다. 흐름에 밀려가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내 말에 공감을 했다.

그날 밤 텔레비전에선 상주의 관중 압사사고를 속보로 전하고 있었다.

경북 상주에서 터진 방송 공연 입장객 11명 참사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어떤 비극을 부르는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했다. 아직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로 국민들이 희생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 먼저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례와 부상자 치료, 보상 과정에서 사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한번 아픔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관계자들은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 다음날도 언론들은 규격화된 보도를 정말 통절한 반성도 없이 쏟아 냈다. 그날 소래포구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소래 포구에선 그런 일이 그 시각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곳이 그런 위험이 없는 안전지대인가?' 라는 물음을 던져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언젠가부터 소 잃고도 절대로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다행히'만 믿고 지내는 습관이 생긴 것은 아닌지 말이다.

사고가 생기면 금방 세상이 끝장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사흘이 멀다 하고 기억에서 사라진다. 모든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고 대처하는 습관 때문이다. 결과만 좋으면 모든 과정을 양해하던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과정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 결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과정의 중요성을 일깨우자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지자체나 진행당사자 모두 정해진 기준에 의한 약속도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것은 요식적인 형식일 뿐 실제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습관과 관행이 늘 위험상황을 노출하고 다행과 요행의 줄타기를 하게 된다.

행사의 목적이 좋다고 해서 과정을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원칙을 쉽게 어긴다. 무리한 과정의 진행을 너무 쉽게 용납한다. 심지어 무리한 과정을 통해 바라던 결과를 얻게 되면 모두들 유능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보다는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개인적 친분이나 정서적 문제를 앞세워 참된 원인을 호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참된 원인에 접근을 하자면 참 '나'를 찾는 작업만큼이나 진지하고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대충대충 그리고 불행한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인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인재를 막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적인 사고가 올바라야 한다. 더러는 기초적인 것을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준으로 만들어 누구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면서 훌륭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상주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야 한다.

제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자. 올바른 기초사고의 확립이 없이는 위험은 언제나 폭발하게 마련이다. 합리적인 기초 사고(思考)에 대한 관행적 습관 그리고 책임, 그것이 외양간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빛고을'이라는, 이름도 고운 광주에서 불법의 광명이 솟구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가 공동개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에 불자들과 일반시민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어, 1000여명이 모이는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1000여명이 무슨 성황이냐고 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광주에서 불교행사에 1000여명이 모였다는 것은 여타 불교세가 성한 곳에서 몇 천 명이 모인 것보다도 의미가 있다.

원래 백제문화의 터전이요, 수많은 명찰이 있고, 또 수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했던 호남지역에 불교의 교세가 현저하게 약화된 것이 벌써 꽤 오랜 일이 되었다.

이런 곳에서 이만한 성황을 이루었다는 것은 불교가 다시 흥륭할 수 있는 시절인연이 도래했다는 조짐과도 같이 느껴지기에 더더욱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빛고을 밝히는 부처님 제자들

물론 단순히 시절인연이 아닐 것이다. 부처님의 십대제자라는 구체적 인물을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본다는 주제가 참신하였고, 그 참신한 주제를 가지고 성공적인 행사를 치러내기 위해 애쓴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의 노력에 아낌없는 찬탄을 보내야 옳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호소력 있는 주제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면 성공적인 포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귀한 예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 바로 여기의 삶에 적실한 것으로 재해석하여 관심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불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일반론이다. 여건이 좋은 곳에서는 이러한 당위성에 잠시 눈감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교세가 약하고 환경이 어려운 곳은 이러한 당위를 실현하는데 힘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단순히 교세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동안 불교세의 침체로 마음상해 있던 호남 불자들의 가슴이 조금을 펴졌을 것이다. 그 가슴에 우리 천만불자들의 뜨거운 찬탄과 격려가 전해지고 힘이 보태어져, 이렇게 일어난 소중한 기운이 호남불교의 부흥을 알리는 기지개가 되고, 나아가 한국불교를 이끄는 큰 흐름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

■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부동산 투기

삿된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 바른 생각으로 행하지 않으면 비록 재산을 얻더라도 밤낮 근심하고 걱정하며, 몸으로 바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삿된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출요경 방일품〉

국민들을 시름 짓게 하던 강남의 부동산값 폭등을 잡겠다며 참여정부가 내놓은 8 · 31대책이 나온 지 한달 보름이 지났다. 떨어질 줄 모르던 부동산의 상승곡선이 꺾이기 시작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양상도 보이고 있다. 미미하지만 부동산투기 세력의 기세가 꺾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금처럼 성실하게 세금 내는 근로소득자는 평생 벌어봐야 집 한 채 구하기 힘든데, 변변하게 세금도 잘 내지 않는 투기꾼들이 수십억 아파트에 사는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모습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학자들은 평균적으로 주택가격이 연봉의 5배 이내가 되어야 정상적인 경제의 모습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200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1/3의 소득을 저축했을 때 15년이 걸려야 1억~1억5000만 원짜리 주택을 마련하고, 조금 더 절약하면 10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이번 8 · 31대책이 지금과 같이 심각한 부동산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8 · 31대책으로도 일반 국민과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건설업체, 근로소득자와 불로소득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해상충을 완전히 해결 할 수는 없다.

부동산을 투자보다는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주위에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택을 보유하여 차익을 기대하는 '내 안의 투기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면 부동산 투기를 영원히 막을 수 없다. 당연히 불자라면 삿된 방법으로 남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이다. ■ 조용수(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자리' 보다 학교발전이 먼저

동국대 재단의 이사 선임을 놓고 연일 논란이 계속되는 모양이다. 신심 깊은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계 대학인 동국대를 나온 동문으로 착잡한 감정이 앞선다. 이번 이사선임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패 나누기로 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와중에 매년 실시하던 중앙일보의 전국 대학순위평가에서 올해는 아예 40위권 밖으로 추락했다. 동문들은 동국대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3류 대학으로 영원히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동국대의 운영은 어느 누가 하든 동국대의 발전과 종립학교의 이념에 훼손되지 않도록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할 것이다.

진정 동국대의 발전을 위한 다면, 또한 종단화합을 위한다면 불자들에게 지금과 같은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기를 바란다. 이병민(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앞뒤 바뀐 '교원평가제'

'현대불교' 545호에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불자세상보기를 읽으면서 현직 교단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편으로 부끄러우면서도, 전혀 교단의 현실을 모르는 글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쓴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부적격 교사의 퇴출은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입법추진 중인 '교원평가제도'가 우리교육의 문제를 이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장 교사 학부모 동문 지역인사 등이 참가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닌 교장 혼자 매기는 교원평가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일으킬지 우려해야 한다. 단순히 시장원리로만 강요되는 교원평가제를 아무런 준비 없이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다.

일본이나 싱가폴도 교육의 개선을 위해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우수교원 특별법'을 기조로 한 교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이었으며 그러한 장기적 비전에서 우수한 인력을 교사로 유입시키는 정책이 우선이었다. 대뜸 돈 안 드는 평가라는 도구로 이미 어쩔 수 없이 굳어지고 뒤처진 분들을 다시 벼랑으로 내모는 선택은 하지 않았다.

'우수교원 특별법' 같은 획기적인 대안으로 능력 있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교단으로 유입케 하면서, 점차 나태함에 주저앉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연찬과 평가를 바탕으로 승진체제를 도모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 점에서 교사와 교원단체가 한탄의 소리를 토하는 것이지, 시대의 요청과 교육수혜자의 요구를 외면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이제곤(광주 영천중 교사)

한심한 문화재청장 발언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최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성보박물관을 '항온항습도 안 되는 유물전시관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민족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불교계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 한다.

유 청장의 발언은 분명 대한민국 문화재 정책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인물이 할 소리는 분명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현등사'라는 명문이 있어 소유가 소유권이 분명한 '사리구'를 사찰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모 정당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 청장은 '현등사'라는 명문을 지워버리면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취지로 모 재벌의 사설 박물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고 한다.

우리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프랑스가 수탈해간 '직지'나 일본이 훔쳐간 수많은 국보급 문화재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한국의 박물관은 박물관이 아니라 유물전시관 수준이라 돌려줄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린다면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가 묻고 싶다.

성보박물관과 불교문화재에 대한 유 청장 낮은 인식수준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김석곤(서울 성북구 정릉2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나는 어제를 보았다 그래서 내일을 안다!

한국의 에드가 케이시 박진여씨의 놀라운 전생 투시 능력
현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은 그 사람이 전생에서 지은 경험의 결과입니다

동방파동 명상연구소 02)730-6156 / 051)817-6156

◆ 갑자기 들이 닥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사별
◆ 평생을 불치병, 난치병, 불구자의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
◆ 자식의 가출... 자살... 사고사
◆ 사업의 실패... 좌절... 절망
◆ 원인모를 영적 병에 고통을 받는 사람



왜 이런 불행들이 하필 나에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의문과 그 해결책을
충격적인 카르마(업)의 보고서 「전생을 읽는 여자」의
저자 박진여씨가 당신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삶의 비밀을 풀어 드립니다.

그리고 윤회, 카르마(업)로 대표되는 영혼의 세계는 무속신앙이 아닌 정신과학적이고 종교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살았던 삶의 심오한 의미와 가치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나는 괴로운가?
나와 남들과의 근본적 관계는 무엇인가? 괴로움의 '존재 이유' 그것이 해명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궁극적으로 해명되지 못한다 .



▌고요아침 값 8,000원



100% 순정부품에서 최첨단 모듈, 인공지능 어드밴스드 에어백, 첨단 주행안정시스템 ESP까지, 늘 새로운 부품과 시스템으로 세계 자동차들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현대모비스- 한발 더 앞선 자동차를 위한 끊임없는 아이디어로 세계의 신뢰를 받는 GLOBAL MOBIS가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끝없는 혁신으로 세계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Inside your car - 현대모비스

HYUNDAI MOBIS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아름다운 삶·사람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www.buddhanews.com
서기 2005년 10월 12일 수요일 (주간) 제 547 호 B1



백혈병 어린이돕기 거리모금에 앞장서는 주권기씨.





주권기씨가 지난해 광주 사직골에 개설한 통기타 카페. 토요일 저녁마다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돕기 콘서트가 열린다.



향기 도반의

백혈병 아이들의 '노래하는 삼촌'

주권기

아프고 그늘진 마음 음악으로 달래야죠

광주 사직공원 '통기타 촌'에 자리한 카페 '작은음악회'.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지정한 '아름다운 가게 3호점'이다. 이곳에서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저녁마다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 돕기 나눔 콘서트'가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만 1년이면 1200명의 어린이가 소아암으로 고통 받습니다. 소아암은 불치병이 아니라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됩니다. 어린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고 막대한 치료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작은 음악회입니다."

소아 백혈병 아이들로부터 '노래하는 삼촌'으로 불리는 카페 주인장 주권기(37)씨. 그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기타 가수이다. 그러나 본인은 '소아 백혈병 가수'로 불리기를 좋아한다. 소아암을 앓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노래 부를 때가 세상에서 가장 좋기 때문이다.

주씨가 소아 백혈병 아이들을 위해 노래 부르기 시작한 것은 5년 전이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설립되면서 모금을 위한 거리공연을 요청받았다. 당시 카페에서 음악활동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씨는 주저 없이 승낙했다. 그토록 좋아하는 노래로 남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매력 있는 일이었다. 2001년 4월, 무등산 입구 문빈정사 앞에 간이무대를 설치하고 등산객을 향해 무작정 노래 불렀다. 산에 오르던 이들이 그의 노래에 고개 돌리면 '모금함'이 보이고, 설령 모금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소아암으로 힘들어 하는 환우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만족했다. 매달 소아 백혈병 환우를 1명씩 추천받았다. 무대에 오르기 전 먼저 합장하며 '소아암 친구들의 힘찬 생명'을 기원했다. 손가락이 곱아 움직이기 어려울 때까지 기타치며 노래했다.

"소아 백혈병 아이들을 위해 오르는 무대는 나를 있게 하는 원천적인 힘이고 생활의 일부입니다. 백혈병과 싸우면서도 구김살 없이 당당한 아이들을 만나면 제 자신이 부끄럽거든요. 이 아이들은 저의 소중한 친구이자 스승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혼자서 기타 치며 노래를 불렀다. 저녁나절이면 목이 쉬어 대화하기도 힘들고 녹초가 되어 다음날까지 꼼짝없이 쓰러져 있기도 했다. 거리음악회는 회를 거듭하면서 주씨의 후배와 동료 음악인들이 하나 둘 동참하게 되었고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더불어 주씨의 활동영역도 더

5년간 소아백혈병 돕기 공연
한달 대여섯번 음악회 펼쳐
"아이들이 있어 내가 존재"
카페 열고 나눔 콘서트 펼쳐

욱 넓어졌다.

각종 소아암 환우돕기 음악회는 물론 소아암 환우들의 생일잔치, 완치 축하모임 등 한달이면 5~6번을 소아 백혈병 친구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

"언젠가 두 달 가까이 거리모금으로 치료비를 모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아이가 수술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버렸더군요. 조금 더 빨리 치료비를 모았더라면 일찍 치료 받았을 텐데...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날 이후 소아암 모금을 할 때면 만사를 제쳐두고 우선순위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씨가 소아백혈병 돕기 거리모금에 나선 것은 40여 차례, 20여 명의 소아암 환우들에게 약 8천여 만 원을 모아 전달했다. 주씨가 노래로 자원봉사에 나서는 것은 소아 백혈병 환우돕기 뿐이 아니다. 나눔콘서트를 비롯해 불우청소년돕기 음악회, 양로원, 독거노인 돕기 등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대학 때까지 그룹 활동을 하며 음악과 가까이 살았다. 그러다가 사회에 나가면서 노래를 접할 시간이 없어졌다. 노래가 없는 직장생활은 끔찍했다. 낙향을 반복하는 방황 속에 우연히 광주 관음사 청년회와 인연을 맺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빈 마음을 채우기에 넉넉했다. 반년 만에 청년회장을 맡게 됐고 두세 명에 불과하던 청년회가 20~30명으로 늘었다. 비결은 음악이었다. 법회가 끝나면 법우들과 차 마시고, 기타 치며 노래했다.

"노래하는 동안에는 어떤 잡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있어 음악은 곧 선(禪)이 되었어요. 함께하는 대중이 누구든, 어느 곳에 있든 노래 몇 곡이면 하나가 되잖아요"

포교에 음악만한 것이 없었다. 결국 음악을 좋아하는 법우들과 불교계 최초의 5인조 그룹사운드 '맑은소리처럼'을 결성했다. 주위에서 시끄럽다는 핀잔을 들으며 곰팡이 냄새로 코를 막아야 했지만 지하실에서 연습하던 그 때가 좋았다. 교계에 그룹사운드가 알려지면서 제법 유명세도 탔다. 서울, 부산, 대전 등 청년회 행사마다 초청을 받은 것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 그룹사운드는 후배들이 서울로 진출하면서 몇 개월 만에 해산되고 말았다.

어느 날 광주 무각사 청년회 창립법회에 초청되어 노래를 했다. 라이브 카페를 하던 법우가 아르바이트를 제안했고, 몇 군데서 노래를 청해왔다. 자연스럽게 밤이면 카페에서 노래하고 아침이면 직장에 출근하는 생활로 이어졌다.

가창력을 인정받으면서 출연요청이 늘어나자 뒤늦게 본격적인 가수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음악엔 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굳어 있거나 닫힌 마음이라도 함께 노래 부르면 금방 마음이 열리고 맙니다."

주씨는 지난해 사직골에 통기타 카페를 개설했다. 소아백혈병 아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가게'에 등록했고, 매상이 가장 많은 날을 골라 '아름다운 나눔의 날'로 정해 콘서트를 펼치고 있다. 나눔 콘서트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 음악을 좋아하고 소아 백혈병 친구들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였기에 날이 새는 줄 모른다.

"출연료를 받고 부르는 노래는 스트레스가 되지만 소아 백혈병 친구들과 함께 하는 노래는 마음부터가 편해집니다. 그러니 이것이 곧 극락 아닌가요."

글=이준엽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좋은 인연입니다


안국선원 전경

현대불교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HYUN DAE BULKYO

대한불교 조계종 안국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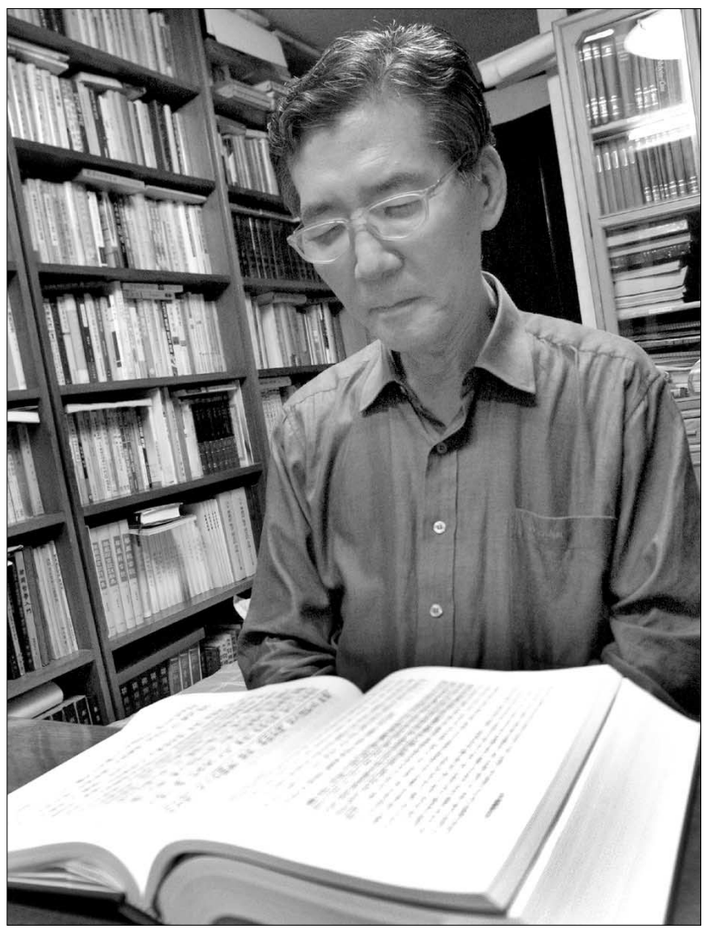
선원장 수 불

www.ahnkookzen.org

■ 부산 : 051)583-0993
■ 서울 : 02)732-0772
■ 뉴욕 : 212-343-0809

“불교는 편견없이 세상을 보게 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형효 명예교수



사진=박익순 기자

처음엔 불교를 철학적 입장서 공부했지만 이론만으로 ‘무아적 진리’ 입증할 길 못찾아

자아의 아상을 무의식적으로 지우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색안경 벗지 못해

나의 철학공부는 철학의 다양한 지역을 통과한 긴 여정의 과정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성 싶다. 일부러 그런 힘든 우회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니다.

나의 철학적 순례는 먼저 실존주의에서부터 출발하여 실존주의가 발을 딛고 있는 현상학적 방법론을 통과하게 된다. 실존주의적 현상학을 공부하는 와중에 의식학의 영역에만 머물고 있는 실존철학과 현상학이 무의식의 영역에 대하여는 거의 침묵하고 있는 것에 일말의 회의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무의식의 영역을 구조의 이름으로 탐구하고 있는 구조주의에 관심을 가져 다시 새로운 공부를 했다.

현상학이 의식학적 인학(人學)이라면, 구조주의는 무의식학적 물학(物學)이겠다. 그러면서 나는 서울대 학생시절의 은사였던 고 열암(洌巖) 박종홍(朴鍾鴻) 선생님의 영향을 강력히 받았던 연고로 한국인으로서의 동양철학과 한국철학의 연구를 등한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귀국 후에 본격적으로 박종홍 선생님이 좋아하신 한국유학을 계승하기 위하여 나는 공맹유학을 먼저 공부하기 시작했다. 공맹유학의 맛을 보면서 한국유학이 백안시해왔던 순자유학도 맹자유학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도 자각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나는 한국유학사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런 과정에 한국유학과 유학사상에 대한 하나의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도덕과 정치의 일치를 구가하는 도학정치사상으로서의 유학이 실현 불가능한 이상주의 일변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솟아 올랐다. 그러면서 유학 사상이 새로운 미래적 길을 개척하려면 맹자유학과 순자유학이 다 양가적으로 존중되는 중도의 길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양철학의 구조주의가 너무 무의식의 하부적 구조의 틀(문화적 구조/정신분석적 구조/역사적 사회적 구조)만을 보려는 주장이 강해서 피와 살이 느껴지는 생명의 실상을 등한히 본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 형식적이고 정태적인 구조주의를 수정하는 후기 구조주의로서 해체주의에 몰입하게 되었다. 해체주의 철학의 공부는 나의 인생과 학문에 하나의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해체주의는 그 동안 공부해 왔던 구성주의 철학(실존주의/현상학/유학사상)의 허상을 보게 하면서 서양 사상사의 변방에서 주류에 밀렸던 철학자들(에카르트/쿠자누스/스코투스/스피노자/마르셀)의 사상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해주었다. 무엇보다도 하이데거가 해석학과 현상학의 지대에서 이해되어서는 안되고, 해체주의(데리다와 들뢰즈와 료따르)의 철학을 가능케 한 현대철학의 원본으로 다시 읽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와 동시에 그 동안 큰 관심을 쏟지 못했던 노장사상과 불교사상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구성주의에서 해체주의로 철학적 방향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아마도 구조주의의 덕이 크리라 본다. 구조주의가 두 철학사상의 중간쯤에 서 있기 때문이다.

나는 노장사상과 불교사상에서부터 무(無)의 철학적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무의 철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길은 무아(無我)의 철학으로 그것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무아의 진리는 이론적으로 해오(解悟)하는 수준으로서는 미흡하고, 온 몸으로 증오(證悟)하는 차원으로 심화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나는 처음부터 몸에 구체적으로 절실하게 와 닿지 않고 단순히 관념의 유희처럼 여겨지는 철학을 부질없는 공상처럼 싫어했다.

나는 예나 이제나 구체철학과 구체적 진리를 찾아 헤맸다. 처음에는 불교를 철학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으나 점차 그 진리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행의 길로 나의 사유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여기게 됐다. 수행을 통하여 불교의 무아적 진리를 증득하지 않고 다만 이론적으로만 그것을 설명하려 한다면, 나는 여전히 자의식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불교만을 농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리라고 여겼다.

그런데 나는 독자들이 내가 대단한 수행의 깊이에 이미 젖었다고 오해할까봐 두렵다. 솔직히 나는 수행의 역사가 짧으려니와 진한 수행의 시간을 보내지도 못 했기에 너무 유치하고 천박하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솔한 고백이다. 다만 이 글은 나의 수행일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론적으로 그리고 자의식적으로 철학을 공부해 왔던 한 개인이 이제 불교를 접한 다음에 그 불교의 가르침을 몸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즉 불교의 철학적 진리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노력하려는 조그만 꿈을 그려보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글을 쓰는 까닭은 철학이 ‘정신의 진리’를 탐구하면서 그 진리를 자기화하여 스스로 ‘진리의 정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세상에 조금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다.

불교를 1990년부터 이론적으로 접해 오다가 드디어 나는 혜거(慧炬) 스님으로부터 2003년에 계를 받았다. 그 때부터 본격적인 불자 생활을 시작한 초보 햇병아리다. 초보로서 이런 글을 쓰는 것이 무척 외람스럽다. 나는 불자로서 수행이라기 보다 오히려 매주 일요법회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혜거 스님으로부터 <능엄경>을 배우고, 아침이면 <천수경>과 <금강경>을 독경하고, 밤이면 <원각경> 게송을 반복 독송하면서 동네를 산책한다. 물론 가끔 못할 때가 생기기도 한다. 일요일 오후에는 또 산책하면서 저 게송을 반복 독송한다.

5만회를 목표로 시작한 <원각경> 독경이 1천회를 넘자 게송들이 절로 외워지기 시작했다. 한번 독송할 때마다 <원각경> 표지 안쪽에 한 획씩 그어 만든 ‘正’자가 740여개다. 과연 내가 죽기 전까지 5만 번을 채울 수 있을까? 최근에는 그 동안 사정으로 미뤄 두었던 참선공부를 선원에서 그리고 집에서 익히고 있다. 참선이라기보다 초보로서 참선하기 위해 마음과 몸을 단련하는 차원이다. 쉽지 않다. 그러나 나는 배우려는 강한 원의를 갖고 있다. 이상이 불자로서의 나의 생활의 개략적 소묘다.

내가 철학공부의 일환으로써 염불기도와 독송, 그리고 참선을 배우려고 하는 까닭은 자아의 생각으로 공부해 왔던 의식의 수준을 벗어나 무아의 차원에서 사유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다. 염불과 독송, 그리고 참선은 자아가 행하는 의식적 수준의 생각을 지워서 무아의 영역에서 자성으로서의 ‘그것’이 사유하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다. 자아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성이 사유하는 것을 터득하기 위해서다. 자아가 일인칭의 사유로서 아상중심(我相中心)의 판단을 표출하는 것이라면, 자성은 자의식처럼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세상의 시원적 사실을 비추어준다. 자아의 철학은 자아의 의식과 그 판단에 의거해서 이론을 정립하지만, 자성의 사유는 이론을 정립하지 않고 다만 고요히 그리고 청아하게 세상의 사실을 여법하게 반조할 뿐이겠다. 자성의 사유를 해체철학은 ‘그것이 사유한다’로 읽는다. ‘나는 생각한다’에 대한 대칭적 의미를 띄우기 위해서다.

나는 젊었을 적에 늘 의식의 보편성에 의거해서 세상의 진리를 판단으로 구성하려고 생각했다. 세상의 진리를 내가 실존적으로 체험하든지 아니면, 현상학적으로 의식의 세계를 분석함으로써 보편적 진리의 실재를 나의 의식이 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누구나 의심할 수 없는 보편적 진리의 존재를 나는 탐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런 진리의 존재가 명증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세상의 일반적 생활세계의 관습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후기 현상학의 이론으로 중년에 익히면서 거기에 매료되기도 하였다.

세상이라는 생활세계에 이미 스며들어 와 있는 세상의 진리가 하나의 판단 이전적 형식으로 미리 흡뿌려져 있다는 생각이 점점 구조주의적 무의식의 진리와 같은 맥락으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 이르러서 후기 현상학과 구조주의가 암시하는 생활세계의 관습과 같은 판단 이전적인 사고방식이 하나의 가정(假定)이고 유부식(有覆識)의 전제(前提)며 선입견이 아닌가 하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유부식이라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이 다 어떤 기존의 습기나 관념이나 기분으로 덮여 있음을 말한다. 기존의 철학은 맑고 해맑은 눈으로 세상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편견의 철학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불교가 일깨우는 것이다.

철학은 세상을 가장 바르게 보게 하는 수준의 학문이다. 세상을 자아가 상정한 어떤 편견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재래의 시각은 전정한 철학의 요구에 적합할 수 없다. 그래서 재래의 철학은 다 어떤 편견과 부분성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런 생각을 초래케 하는 장본인이 바로 자아의 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모든 편견과 부분적 인식의 진원지로서의 자아를 지우고 무아의 자성적 사유로서 미래의 철학적 사유가 채워져야 한다고 여기게 되었다.

재래의 철학은 자아의 부분적 인식과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보편적 논리의 사고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서양철학이 주장하는 보편적 의식의 논리학은 하나의 허구라는 것이다. 자아가 아무리 자기의 개인적 판단의 입장과 호오(好惡)를 넘어서는 보편적 의식일반의 논리를 개발해도, 그것은 표피적 명분이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자아의 심리적 아상(我相)을 무화(無化)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자아를 달고 다니는 한에서 자아는 아상을 버리지 못한다. 오직 자아의 아상을 무의식적으로 지우는 수행의 공부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 대한 색안경을 벗지 못한다. 나는 과거의 동서철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의 색안경을 무색안경인 것처럼 착각케 하였다고 여긴다. 그런 점에서 오직 후기 현상학의 후설(Husserl)만이 색안경이 제거된 진리가 의식수준에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정직성을 나타냈다고 생각한다. 해체주의 철학에로 내가 나아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고 세상을 여여한 모습으로 보게 하는 정견(正見)의 철학이 불교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정견의 눈을 닦기 위하여 철학적으로도 불교 수행이 꼭 필요하고, 더구나 미래의 정신교육은 특정 종교를 떠나서도 저 불교적 수행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나는 아직 저런 수행의 깊이를 터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다. 편견과 부분의 심리에 내가 아직도 젖어 있기 때문이다.

김형효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 졸업. 벨기에 루벵대학교 철학최고연구원 석 · 박사. 공군사관학교와 서강대 교수를 거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루벵대학교 철학최고연구원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 〈데리다의 해체철학〉 〈철학적 사유와 진리에 대하여〉 〈사유하는 도덕경〉 등이 있다.

신비한 손

天一氣功

이재복 회장(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서양의학의 본 고장인 독일 동서의학병원에 초청되어 그곳환자들을 치료하여 의사들과 환자들로 부터 "슈퍼"라는 최상의 찬사를 받고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정증을 획득하였습니다.(미국병원으로보급중)

天一氣功研究會는

13년전에(1993년)설립되어 파워봉, 신선대 등을 전국선방의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보급하여 오고 있으며 수만명의 사용자 및 수련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어려운 질병은 기공 수련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천일기공연구회

소 백 산 수 련 원

수련문의전화 02)3436-3206~7(서울본회)
054) 637-9810(경북영주수련원)

●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氣功指導師 과정(속성반) 3박4일코스

50기 - 10월 20일 오후2시 ~ 23일 12시
51기 - 11월 24일 오후2시 ~ 27일 12시
52기 - 12월 8일 오후2시 ~ 11일 12시

※ 매월 선착순 20명 마감

◆ 性命雙修(성명쌍수)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 입니다.
◆ 色心不二(색심불이)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몸이 마음을 담는 그릇(法器)인데 몸이 병들면 마음이 청정해질 수 있나요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세상에는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 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여기 성명 쌍수와 숨을 올곧게 고르는 수행법으로 인연있는 불자와 스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 수련을 마친 스님들 께서 비록 짧은 3박 4일이지만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단계수련 : 몸만들기 비결을 배우시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신도님들께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 수련 2일째부터 양손에서 기를 발공하여 환자들의 막힌 경락을 소통하여 사기, 병기, 냉기, 탁기를 배출하여 건강한 양체의 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천도재를 많이 지내는 스님들 중 사기를 많이 받아서 빙의에 시달리거나 이유없이 몸이 아프고 몸이 냉하고 병마에 시달리는분은 수련기간중에 해답을 얻습니다.
◆ 氣를 발공하면 곧바로 나쁜기운이 빠져나오고 악취가 진동을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손을 대보면 손이 시리고 따갑고 저린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흉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분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기치료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두통, 오십견, 좌골 신경통, 요통, 디스크, 구안와사, 신경통, 테니스엘보, 관절염(통)등 통증 치료법을 배워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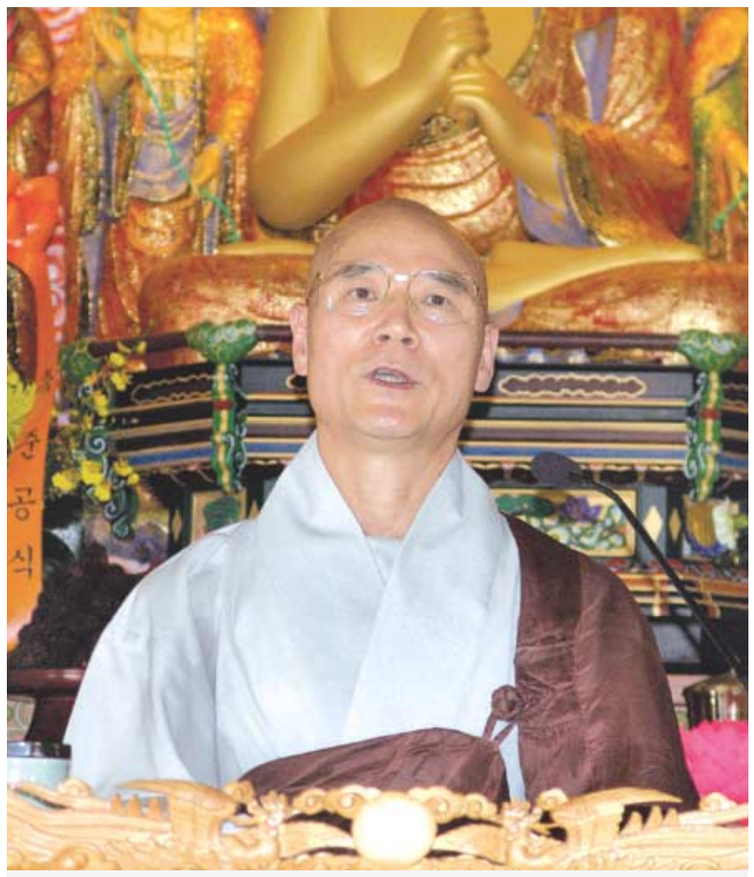
‘이 무엇인고?’ 화두 놓치지 마세요

하와이 무량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선원장 초청 간화선법회 (1)

주제:간화선의 이해-본래성불

법주:진허 스님(前 동화사 금당선원장)



■ **진허 스님은** 1968년 일현 스님을 은사로 공주 마곡사에서 출가했다. 69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양산 통도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한 이후 순천 송광사를 시작으로 30하안거를 성만했다. 89년 천안 광덕사 선원장 소임을 시작으로 96년에는 동화사 금당선원장, 초대 조계종 기초선원장을 역임했다. 이어 출가사찰인 마곡사에서 주지를 한 만기 지낸 후 현재는 백담사 선원등지에서 참선정진에만 몰두하고 있다.

인생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

“간화선은 ‘본래 부처로 이루어진 나를 깨닫는 참선법’ 입니다. 이 참선법 이야말로 나고 죽는 것과 행복 불행 등 자신의 인생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9월 25일 하와이 무량사 설법전. 스님 30여명과 간화선에 관심 있는 참가자 100여명은 좌정한 채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현)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 공동주최로 해외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선원장 초청 간화선 법회가 열리기를 기다린다.

잠시 후 간단한 입제식에 이어 하와이 간화선법회에 첫 번째 법주로 초청된 진허 스님(前 동화사 금당선원장)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법석에 올랐다.

스님은 주장자를 들고 선구를 읊은 후 입정에 들어갔다. 순간 숨소리까지 멎을 만큼 정적이 스쳐가자 진허 스님의 나직한 목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진다.

“부처님은 생명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보고 ‘이놈이 무엇인가’를 육년 동안 참구하셨습니다. 참구하여 깨달은 결과 ‘이 놈’은 닦아서 이루는 놈이 아님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본래 부처로 이루어진 나를 깨닫는 간화선 참선법을 굳게 믿어야 절실한 마음이 일고, 화두를 참구함에 의심이 일어야 비로소 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멍청이가 되어야 ‘산 참선’

이날 법회에 참가한 대중 대부분이 간화선을 처음으로 접하는 만큼 스님은 아주 쉽게 설명도 곁들였다. 산(活) 참선과 죽은(死) 참선에 대해…

“죽은 참선은 ‘이놈이 무엇인가’를 의심하되 생각으로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보니 참선만 들면 ‘생각 일어나기전 한 생각도 없는 놈일까’ ‘보고 듣고 알고 인식하는 놈일까’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씩 일어나는 이 마음일까’ ‘무슨 논리적 이치일까’ 등의 생각이 끊이질 않지요.”

그렇다면 과연 산 참선을 하면 어떻게 될까. 스님은 참선을 하자마자 ‘이놈이 무엇일까’하는 의심으로 꽉 막혀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놈이 무엇일까’라는 의심 말고는 다른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아 멍청이가 된다는 것. 이것저것 따지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계 닥칠때 의심 더욱 간절히

스님은 참가 대중들에게 금은보화와 영원한 대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부적을 선사했다. 아무리 써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부적은 바로 ‘이 무엇인고?’였다. 스님은 아무리 궁리하여도 알 수가 없으니 ‘나라고 하는 놈이 무엇인가?’를 아주 강하게 마음에 새기라고 강조했다. 참선을 할 때에도 이런 저런 생각으로 찾기보다는 오직 한 생각으로 ‘이 놈이 무엇일까’만 참구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스님은 “‘내가 무엇인가’하고 의심을 짓되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놈부터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이 무엇인가’하되 알 수 없는 의심을 놓치지 않고 일어나야 한다고. 즉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도, 세수 물로 얼굴을 문지르면서도, 칫솔로 양치하면서도,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면서도,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 근무지까지 갈 때, 퇴근해서 집에 올 때까지 ‘이 무엇인가’라는 의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스님은 “이 과정에서 꿈을 공부와 연관지어 생각하거나 몸 또는 생각으로 느껴지는 어떤 인식이나 신비한 경계로 보이는 환상경계나 논리나 비논리로 이해되어지는 앎들이 가장 결정적 장애가 된다”고 주의를 줬다.

스님은 이런 경계가 닥칠 때 오히려 알 수 없는 의심을 더욱 간절히 하고, 크게 할 때만이 깨달음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스승의 지도 점검 꼭 받으세요”

스님은 간화선공부를 할 때 가장 큰 병이 화두에 의심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게 의심해야 큰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스님은 “그렇다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까지 의심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스승에게 결택 받은 공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래했다’ ‘처음 시작했다’ 하는 것에 구애받지 말고 지금 당장부터 화두를 참구하되 알 수 없는 의심을 간절히 지어가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깨달은 후 반드시 스승을 찾아 올바른 깨달음인지 확인을 받고 그 이후에야 남에게 물을 일이 없어질 것”이라는 대목에서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와이 무량사=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참선법 굳게 믿고 절실한 마음 일어야 참나 깨달아”

‘화두’ 자유·행복 주는 부적, 한 생각으로 참구하라

즉문즉답

△간화선의 역사는?

“간화선법은 중국의 육조 혜능 스님 때부터 점차 구체적으로 발전하여 경산 대혜 스님을 거쳐 한국의 고려 말 보조 스님에 이르러서는 혼자서도 능히 깨달을 수 있는 수행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간화선과 다른 수행법의 차이점은?

“신체를 이용하여 수행하거나 관념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기타 수행법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간화선과 달리 다른 수행법은 닦아서 어느 정도 이룸이 있더라도 나비처럼 날아오르려면 반드시 번데기를 벗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할 것입니다.”

△선수행자들에게 당부말씀.

“바퀴 깎는 ‘윤 편’은 농부가 물어도 바퀴 이야기요, 또한 대 학자나 어린아이가 물어도 바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윤 편’이 스스로 터득한 삼십년 묘는 왕명으로 취하려 해도 방법 밖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간화선 수행은 여러분 스스로 직접 해야 그 맛을 압니다.”

“바른자세 정신 맑게 해”



하와이 무량사 간화선법회 참가자들의 간화선 수행체험 장면.

진허 스님의 간화선 참선법

진허 스님은 법문이 끝난후 30분 동안 간화선 수행을 직접 지도했다. 스님은 “간화선에서 앉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은 척추의 틀어짐을 방지하고 정신을 또렷하게 하며, 단전호흡도 열기와 피가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반가부좌의 길상좌인 왼 발꿈치를 오른쪽 허벅지 아래 깊숙이 당겨놓고 오른발 뒤꿈치가 위에 오도록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왼발 뒤꿈치가 위에 오도록 올려놓는 항마좌를 해 보십시오.”

진허 스님의 말에 하와이 간화선 법회 참가자들은 오른발 왼발을 바꿔가며 진지하게 따라한다. 잠시 후 스님이 어느 쪽이 불편한지 편한지를 각자 체크하게 한다.

“항마좌나 길상좌 둘 중에 불편한 쪽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척추가 바르지 않은 자세로 오래도록 생활해온 산물입니다.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는 차원에서라도 불편한 쪽의 자세를 선택하세요. 좌선을 1시간 이상 할 때에는 길상좌 또는 항마좌중 불편한 쪽을 7대 3으로 많이 사용하십시오.”

항마·길상좌 중 불편한 쪽 선택

들숨 날숨 반복하며 의심 일으켜

스님은 앉은 그대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앞으로 숙여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내밀고 상체를 일으키라고 주문했다. 상체를 머리 가슴 배 허리 순으로 일으키되 배꼽아래 손가락 세 마디쯤 되는 단전을 마주한 뒤쪽허리가 배 쪽으로 약간 휜 기분이 들도록 세우라고.

참가자들은 스님의 지도에 따라 몸을 좌우로 두어 번 흔든 후 상체를 세우고, 머리는 두 귀가 양 어깨와 수직이 되도록 했다. 그리고 턱을 약간 당긴 다음 눈은 평상으로 뜨며, 이는 가볍게 물고, 혀는 입천장에 가볍게 붙이고, 입술은 입술끼리 살짝 붙인다. 그런 다음 손은 무릎위에 올려진 발쪽의 손의 바닥이 위로 향하도록 놓고 그 위에 반대쪽 손을 위로 향하도록 포개놓았다.

앉는 자세가 만들어지자 스님은 숨을 코로 양껏 깊게 들여 마셨다가 입으로 남김없이 뱉어내는 준비호흡을 시켰다.

“자, 이제는 코로 자연스레 조용히 들여 마십니다. 들여 마시는 숨의 양이 10이라면 8쯤 마시고 약 1~2초 자연스레 정지하였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코로 내쉽니다. 이러한 요령으로 본 호흡을 앉은 자세 내내 합니다.”

참가자들이 본 호흡을 하자 스님은 나직한 목소리로 “자 이제는 ‘나라고 하는 이놈이 무엇인가?’하고 의심을 일으킵니다. 의심은 알지 못함 때문에 일어나고 알 수 없으면 다시 의심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설명이 끝나자 조용한 법당에 죽비소리가 울려 퍼진다. ‘딱’ ‘딱’ ‘따~악’

김원우 기자

불기 2549(2005)년 근본불교수행도량

홍원사 낙성법회, 제2회 국제학술대회, 집중수련회 안내

근본불교수행도량 홍원사는 강서구 가양동 법당 낙성법회와 제 2회 근본불교 국제학술대회 및 집중수련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낙성법회와 함께 진행되는 국제학술대회와 집중수련회는 학문적인 연구와 실제적인 수행을 함께 마련하여,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호흡관 수행의 이론과 실천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아 래 -

1. 근본불교 수행도량 홍원사 가양동 법당 낙성법회

▣ **1부 낙성법회**
2005년 10월 28일(금) 오전 10시~12시
▣ **2부 경로잔치 및 축하공연** ■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스님들로 구성된 악단)
▣ **3부 영 산 재** ■ 오후 4시 30분 ~ 8시 30분
주지 동주스님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전수교육조교 지정 기념 법회
※ 금번 홍원사 모든 행사에는 객 스님의 여비 보시가 지급 되지 않습니다.



2. 제2회 근본불교 수행도량 국제학술대회

1)학술대회 주제 : 「입출식념경」의 수행이론과 실제
2)개최 일시 : 2005. 10. 30 (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30분
3)개최 장소 : 근본불교수행도량 홍원사 (가양동)
4)학술대회 일정
오전(10시 - 12시)
기조법문 : 반테 구나라타나 스님(스리랑카)
특별 수행법문 : 파욱 사야도(미얀마) - 호흡관 수행법
오후(1시 - 6시 30분)
◇ 발표자 : 3명
발표 1:김재성(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 : 「입출식념경」에 나타난 수행법
발표 2:미산스님(중앙승가대학교 교수) : 「입출식념경」 주석서에 대한 이해
발표 3:산티카로법사(Liberation Park 지도법사, 시카고) : 연기법에 비추어본 입출식념 수행법
◇ **논평자 : 3명**
재연스님(실상사 화엄학림 학감)
일중스님(델리대학박사과정)
임승택(경북대 교수)
◇ **종합토론**
회향식 인사말 학술대회 운영위원장 (성오스님)

장 소 :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226 근본불교수행도량 홍원사
전 화 : 02-2658-3100 전송 : 02-2063-3344
홈페이지 : www.santisukha.org 한글도메인: 근본불교 홍원사

3. 입출식념(호흡관)을 중심으로 한 집중수련회 일정

※1차 스리랑카 반테 구나라타나 스님 지도(성오스님 수행진행)
2005년 10월 20일 (목) - 26일(수) (6박 7일)
※2차 미얀마 파욱 사야도 (지산스님 수행지도)
2005년 10월 30일(일) - 11월 3일(목) (4박 5일)
※3차 미국 산티카로 법사 (태국 붓다다사 스님의 제자)
2005년 11월 4일(금) - 11월 7일(월) (3박 4일)

◇ **참가인원 및 수련회비**
1차-총 100명 (숙식 남녀 각 20명씩 포함) 출퇴근 10만원 (숙식자 20만원)
2차-총 100명 (숙식 남녀 각 20명씩 포함) 출퇴근 8만원 (숙식자 12만원)
3차-총 100명 (숙식 남녀 각 20명씩 포함) 출퇴근 6만원 (숙식자 10만원)

◇ **집중수련회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05년 9월 20일 - 10월 15일
▣ 수련회 접수 : (우)157-801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226
근본불교수행도량 홍원사
▣ 전화 : 02-2658-3100 전송 : 02-2063-3344
참가회비 입금 계좌 제일은행 352-20-338066 예금주 : 이 조원

※수련회는 수련회비 입금 순으로 선착순 마감합니다. 전화나 우편으로 참석 가능 여부를 문의하신 후, 직접 혹은 온라인으로 수련회비를 송금하셔야 최종 접수됩니다.
온라인 송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신청 후 취소를 할 경우, 10월 15일까지 취소한 분에게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하지만 10월 16일부터는 수련회비가 환불되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65)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11강 혜능과 야부의 스타일

"불이야" 소리 친다고 입이 타겠느냐

저번 강의가 읽을 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집데스크는 늘 왜 또 엉뚱한 얘기를 끼워넣어 연재의 흐름을 끊고 수미상관을 다치느냐고 볼이 멥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게 그렇지 않다고, "이것이 곧 금강경이 고구정녕 전하려는 소식"이라고 강변합니다. 여러 독자제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그 변명의 증거를 하나 대 드릴까 합니다.

"불교란 대체 무엇입니까." 혜능은 <금강경> 구결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佛者, 梵語. 唐言覺也. 覺義有二. 一者外覺, 觀諸法空. 二者內覺, 知心空寂, 不被六塵所染. 外不見人之過惡, 內不被邪迷所惑. 故名曰覺. 覺卽佛也."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불(佛)이란 범어이다. 중국어로는 깨달음이라고 한다. 깨달음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세상의 진실을 통찰하는 외각(外覺)과 자기내부의 실제를 통찰하는 내각(內覺)이 그것이다.

외각이란 제법(諸法)이 공(空)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내각이란 마음의 실상이 공적(空寂)하다는 것을 아는 것인데, 이 두 깨달음이 육진(六塵)의 오염을 막는다. 무슨 말인가. 그는 더 이상 신체의 감각에 현혹되거나 마음의 자기기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은 밖으로는 사람들의 실수와 악행을 보지 않고, 안으로는 삿된 미혹의 침범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그것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붓다이다."

불교는 무엇을 깨닫는가

깨달음이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열리는 것이겠습니까. 혜능은 지나가던 스님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에 마음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 무슨 특별한 준비를 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그의 천성이었지요. 이 마음의 비밀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삶의 또 다른 이면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늘 열려 있는 진실 아닐까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세상이 내가 보는 대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자기 마음이 "자기 욕망의 투사로 인한 편견으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 않나요.

그 어렴풋한 진실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자신의 삶을 바꾸어나가자는 것이 불교의 근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밖으로 사람들의 실수와 악행을 덜 기억하고 곱씹는다(外不見人之過惡)"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 주었는지보다, 이웃과 자연으로부터 받은 신세를 더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불법(佛法)은 습성화된 채권자의 의식을 중지하는 혁명적 에포케(epoche)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간화선의 최종 목적이라는 언필칭 '궁극적 깨달음'처럼, 천만 높거나 위태롭지 않고, 아주 낮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책 속에서 찾을 일이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일이 귀하고 또 귀한 일입니다.

혜능의 <육조단경>은 경전을 외기만 할 뿐, 그것을 삶의 구체적 현장에서 증거하려 하지 않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합니다. 그는 이 타성을 부수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교외별전(敎外別傳), 즉 "책 속에는 길이 없다"는 파천황의 선언입니다. 그는 불교사의 교판까지 이 목적을 위해 변조(?)합니다. 혹시 <단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학인이 물었습니다. "소승과 대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혜능의 돈교가 최상승이라 하는데, 그것과 대승의 차이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승이 남방불교에서 성했고, 교단의 규율과 경전의 권위에 보수적이었으며, 개인적 구원을 목표로 하는데 비해, 대승은 북방에서 성했고, 교단의 규율과 교리의 해석에 유연했으며, 개인보다 이웃과 전체를 구원하려는 보살도의 열망에 불탔다는, 그런 교과서적 설명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혜능 보살은 이런 구분을 일거에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껄, 그렇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경전에 코를 박고 있는 사람이 소승(小乘)이고, 경전에 담긴 이치 한 두 자락을 안 사람이 중승(中乘)이며, 그 통찰에 따라 살겠다는 사람이 대승(大乘)의 사람이다. 그럼 최상승(最上乘)은? 그것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게 누구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혜능 스님도 더 이상 묻지 말고 스스로 찾으라 했으니, 우선 입을 다뭅니다.

상징과 비약으로 불법을 말하다

오늘은 <금강경> 오가해의 빛나는 보석인 야부도천(冶父道川)의 찬가(頌) 한 자락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연재를 시작할 때, "가끔 야부도천의 촌철살인의 시를 불각시의 얼음처럼 등 뒤에 넣어드리겠다"고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혜능은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차근차근 쉽게, 어찌했든 알아듣도록 인내심을 갖고 친절을 베풀지만, 지금 살필 야부도천은 청중들이 알아듣고 말고에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 수준들을 향해 시를 읊었습니다.

시는 본시 산문과는 달리 설득보다는 표현을 위해 마련된 형식 아닙니까. 이 점에서도 혜능의 설교적 산문과 야부의 충격적 시가 스트라이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1장의 첫대목에 대한 야부의 찬가는 상징과 비약으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이 현란한 붓끝을 제대로 다 따라잡지 못합니다. 어디 '그의 금강경'을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1. [如是]. 古人道, 喚作如如, 早是變了也. 且道, 變向甚麼處去. 咄. 不得亂走. 畢竟作麼生. 道火不曾燒卻口.

2. [如]如. 靜夜長天一月孤.

3. [是]是. 水不離波, 波是水. 鏡水塵風不到時, 應現無瑕照天地. 看看.

4. [我]. 淨裸裸, 赤洒洒, 沒可把. 我我. 認得分明成兩箇. 不動纖毫合本然. 知音自有松風和.

5. [聞]. 切忌隨他去. 猿啼嶺上, 鶴唳林間, 斷雲風捲, 水激長湍. 最好晩秋霜午夜, 一聲新雁覺天寒.

6. [一] 相隨來也. 一一, 破二成三從此出, 乾坤混沌未分前, 以是一生參學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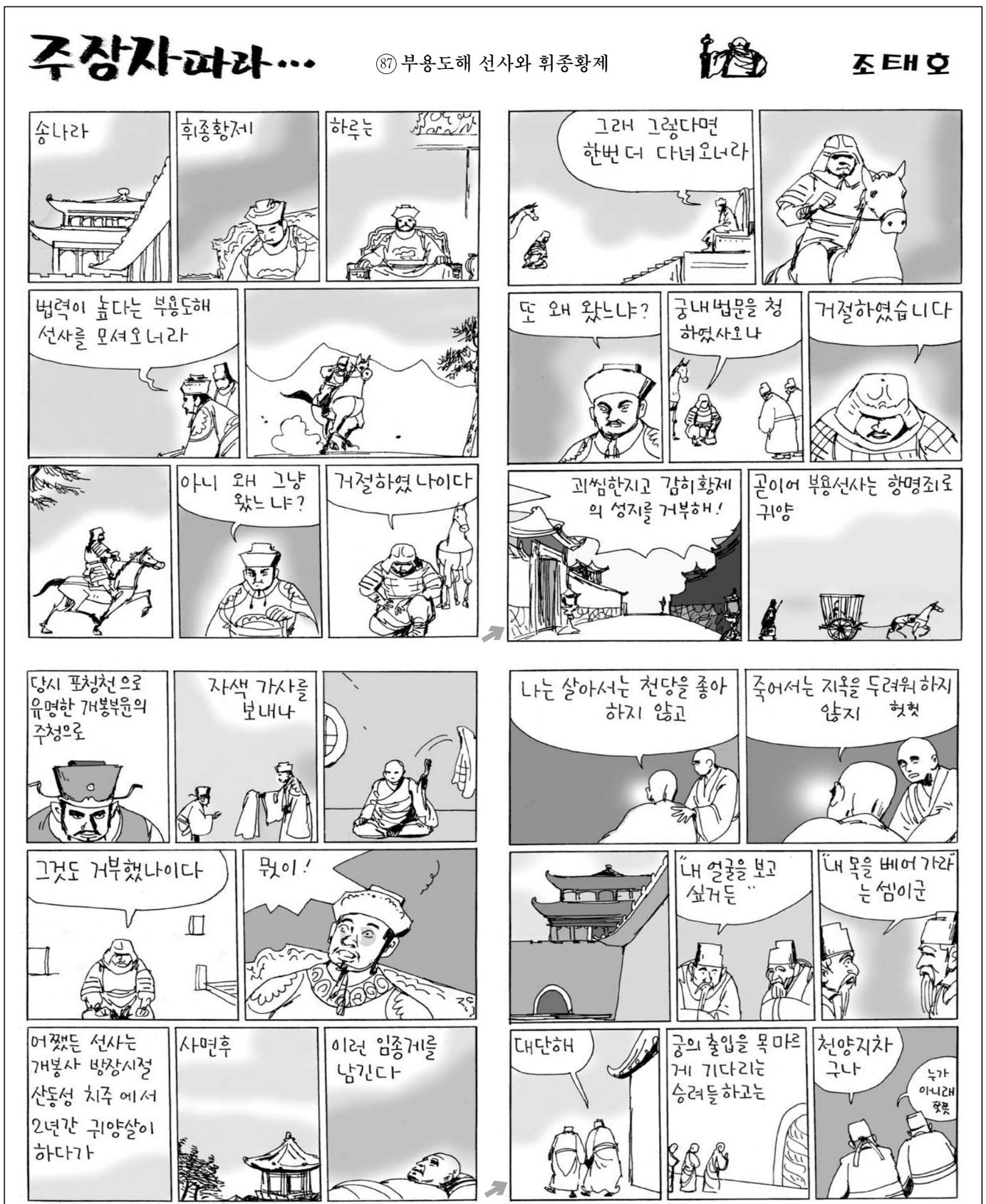
7. [時]. 如魚飮水, 冷暖自知. 時時. 淸風明月鎭相隨. 桃紅李白薔薇紫. 問著東君自不知.

8. [佛] 無面目說是非漢. 小名悉達, 長號釋迦. 度人無數, 攝伏群邪. 若言他是佛, 自己卻成魔. 只把一枝無孔笛, 爲君吹起大平歌.

9. [在]. 客來須看也. 不得放過, 隨後便打. 獨坐一爐香, 金文誦兩行. 可憐車馬客, 門外任他忙.

번호와 꺽쇠는 제가 임의로 붙인 것입니다. 야부노인은 맨 첫머리에 경전의 글자를 놓고, 거기 자기식의 격외의 해설을 던져놓는 방식을 택합니다. 한문에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 암호를 그냥 한번 일별하시기 바랍니다. 번역과 해설은 다음 회에서 하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용도해(芙蓉道楷, 1043~1118): 송대 스님. 산동성 기주 비현 출신으로 의청(義靑) 스님을 만나 대오하고 법을 이음.

네티즌 교리문답

다반사(茶飯事)란 무엇인가요?

문 흔히들 "인생사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다"란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어느 스님에게 다반사란 말이 불교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궁금이)

답 1 : 다반사란 말은 밥 먹고 차 마시듯 흔히 생기는 일을 표현할 때는 씁니다. 다반사란 말은 '항다반사(恒茶飯事)'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를 줄인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여유와 도를 음미하는 차원에서 차를 즐겼습니다. 아랫사람은 좋은 차를 윗사람에게 드리고 싶어 했고, 친한 친구끼리 차를 나눠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예(禮)로 격상된 것이지요.

'다반사의 일'을 '존경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승화시킨 예가 차례(茶禮)입니다. 우리는 한해가 시작되는 날에 조상의 얼 앞에 모여 경건히 밥을 드리고 차를 올립니다. 이를 차례라고 합니다. 차례를 지낸 다음 그해의 서원과 각오를 서로 나눕니다. 가을이 돼 풍년이 들면 감사한 마음으로 차를 다려 조상에 드립니다. 그래서 추석이란 명절이 생겼지요.(예절맨)

답 2 : 다반사는 도(道)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정신과 태도와 정성을 모으면 나름대로의 도를 이룬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다도(茶道)'입니다.

<동다송(東茶頌)>에 따르면, "차의 본령(本領)은 중정(中正)에 있다"고 했습니다. 다관에서 차가 익기를 기다리는 마음에 중정이 살아나면 차인(茶人)은 시공(時空)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시공의 흐름을 알면 도(道)에 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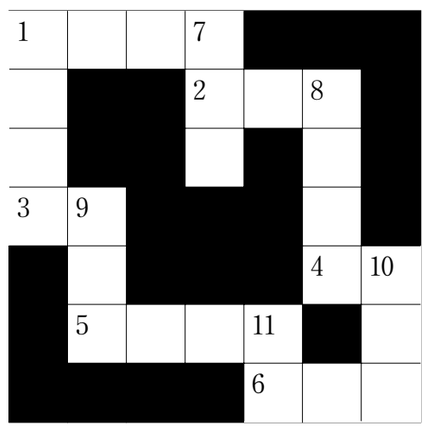
차례는 형식이 우선이고 다도는 정신(精神)의 도를 추구합니다. 정신세계의 길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불교에서는 차와 선을 한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다선일여(茶禪一如)'라고 합니다. 차 마시는 정신에 선이 있고 선하는 과정에 다(茶)의 도가 통한다는 뜻입니다.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 그릇을 먹는 속에 삼매의 도가 있음을 알 때, 우리의 다반사는 숭고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 경지를 알면 평상심이 모두 불심이 됩니다. 평상심 속에 불심이 있다고 본 경지에서라면 풀 한 포기, 꽃 한 잎이 모두 불심이 되는 것입니다.(불심짱)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B15면에

가로 1.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천보산에 있는 절터로 10월 16일 제1회 전국 폐사지 투어콘서트가 열림 2. 일본의 전통과자 3. 총림 아래의 사찰에서 최고 어른을 이르는 말 4. 중국 동한 말기 유비 · 장비와 결의형제를 맺고 촉한(蜀漢)을 건국한 인물 5. 네모나 동그라미를 그려 놓고 그 안에서 납작한 돌을 옮기며 노는 놀이 6. 음식에 대한 욕심.

세로 1.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시 반사하여 비춘다는 뜻 7. 노래하거나 춤을 출 때 흥을 돋우기 위해 곡조에 맞춰 곁들이는 말 8. 자비심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수행법 9. 통일신라시대 흥덕왕 때 창건된 구산선문 사찰로 전북 남원시 산내면에 소재함 10. 친구사이의 정 11. 남의 집에 묵으면서 지냄.

지금-여기가 나의 또 다른 세상이야



7년만에 본 CF속 맑고 청아한 이미지의 청안 스님은 계속되는 불사로 검게 그을린 피곤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수행자적인 기풍은 여전했다. 스님 처소인 동향각 앞에서 비가오는 궂은 날씨인데도 남보이 명예기자에게 법문을 해주고 있는 청안 스님.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11주년을 맞아 신문제작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기자지망생 독자 남보이(동국대 신문방송학과 4년) 학생을 '1일 독자 기자'로 선발했다. 남보이 독자기자는 1998년 모 이동통신사의 CF에 스님으로선 처음으로 출연해 신선한 화제를 일으켰던 청안 스님을 만나고 싶어했다. 〈편집자주〉

'또 다른 세상을 만나면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영화배우 한석규와 한 스님이 주인공으로 나온 이 광고는 7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되는 명(名) 광고다. 속세의 번잡함과 답답함을 피해 산을 찾은 한 도시인에게 잔잔한 휴식과 평온함을 주었던 하얀 피부, 따뜻한 인상의 그 스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내실까? 광고 이후, 어떤 언론 매체에서도 모습을 찾기 힘들었던 청안 스님을 7년만에 경북 예천 용문사에서 만났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큰 외상을 입은 청안 스님은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녀오느라 늦었다며 기다리게 한 것에 매우 미안해했다. 그 때문이었을까. 스님은 붕대를 감아 불편한 손으로 직접 스님의 처소인 '동향각'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주었다. 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상대편 운전자가 가난한 월급장이였기에 스님은 병원비며 다른 부대비용을 직접 감당했다고 했다.

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모든 것을 짊어 지느냐고 묻자 스님은 담담하게 말했다.

"남에게 악하게 하면 안돼요. 부처님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지요"라고. "내가 보험처리를 하면 잘 잘못이 밝혀질테고 그러면 그 운전기사가 얼마나 곤란하겠어요."하며 오히려 가해자인 운전자를 걱정하고 계셨다.

그때서야 이분이 정말 CF 속 그 청정하고 따스한 모습의 바로 그 스님이 맞구나 하고 생각됐다. 어느덧 7년이란 시간이 흘러 CF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넉넉한 마음 씀씀이와 중생들을 보살피는 따뜻한 보살심에서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도 다 들어









시도때도 없는 인터뷰 요청에 수행할 곳 찾아 여기 왔지 여기저기 방치된 문화재 보고 놀라 보수하기 시작했어 보물 지정 신청, 윤장대 홍보 등 열심히 노력해야지 사람들에 믿음을 줘야 하니까

줄 것 같은 수행자다운 기풍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시 큰 히트를 친 스님의 CF는 다른 종교단체의 반발로 4개월 만에 방송이 중단됐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기억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스님의 따스하고 청정한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 생각됐다.

출가를 한 스님으로서 상업 광고 출연이 다른 스님들에게 폐가 된다는 생각에 여러 번 거절했던 스님이 CF를 찍기로 결심한 이유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감동적인 광고를 만들고 싶다는 광고기획사의 기획 의도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스님은 광고 편집 때 직접 참석하겠다는 조건을 거는 등 어렵게 승낙을 했는데, CF촬영 첫 날 너무 힘들어 그만 둘 생각을 했다고 웃음지으며 회고한다.

함께 촬영한 한석규씨가 오히려 스님을 격려하는가 하면, NG가 날때도 차마 스님을 혼내지 못하는 감독에게 대신 꾸중을 들어가며 열심히 촬영했기에 4일간의 힘든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우여곡절끝에 찍은 광고는 당시로선 스님이 출연한다고 화제가 돼 큰 성공을 거두었다.

"길거리에 나가면 아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 다니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거기다 기자들의 시도때도 없는 인터뷰 요청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요. 방송의 위력이 이렇게 큰 줄 미처 몰랐습니다. 수행자가 이렇게 속세의 인연들에 끄달려 살아선 안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조용히 수행해야할 곳을 찾아 다녔고 그때 인연이 돼 온 곳이 바로 용문사입니다."

처음 이 곳에 왔을 때 스님은 그냥 여기저기 방치돼 있는 여러 문화재급 보물들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이후, 스님은 성보문화재들을 보수하기 시작했다. 또한 현재는 유물 전시관 건립과 여러 문화재들의 보물 지정 신청, 템플스테이 숙소 건립 불사, 윤장대를 알리는 법회개최 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스님 혼자서 말이다.

이렇게 밤낮으로 동분서주해서일까, CF에서 보여줬던 하얀 피부는 어느새 검게 변해 있었다. 스님은 그동안 쉼없는 불사에 매달리느라 이제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삶을 뒤돌아 정리할 때 쓸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았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냐는 질문에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종교란 그 뿌리를 지키면서도 언제나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맞춰나가면서 시대에 적응해야 돼요. 현실에 동화돼서 사람들과 같이 숨 쉬고 살며 믿음을 줘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열심히 노력해야지."

스님과의 만남은 비록 짧았지만 여운은 길게 남았다. 이심전심으로 전해지는 수행자의 향훈 때문이 아닐까. 글=남보이 독자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취재후기

부족하지만 스님의 따뜻함 조금이라도 전달되길… 1시간도 안돼 출력되는 자체 편집 시스템 훌륭



취재에 앞서 편집회의에서 현대불교 기자들과 취재방향에 대해 회의를 하는 남보이 독자기자.

| 회의

처음 신문사로 가 편집회의에 참석하고 인터뷰에 대한 자세한 실무지침을 듣고서야 내가 정말 1일 독자기자로서 스님을 취재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많은 독자들을 대표해 유명 CF 스타 스님을 만나 기사를 써야한다고 생각하니 마냥 기대되고 흥분되었다.

| 취재

취재 가기전 넘쳤던 기대와 흥분은 용문사로 향하는 길 위의 안개 속에서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다. 이런 나의 긴장감을 풀어준 것은 바로 안개가 걷힌 뒤 나타나는 아름다운 풍경들이었다.

내가 독자 1일 기자임을 안 청안 스님께서 먼저 내게 질문도 해 주시고 농담도 해주시며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취재를 끝나고 돌아설 때 언제고 다시 놀러오라던 스님과의 다음 만남을 기대하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 기사작성

취재를 마치고 돌아와 그날의 소중한 경험과 나의 느낌, 스님의 좋은 말씀을 글로 적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것을 글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어떻게 써도 도저히 제대로 된 글이 써지질 않았다. 이번 1일 독자 기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바로 나의 부족한 글실력으로 인한 것이었다. 비록 많이 엉성하고 부족한 글이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스님의 따뜻함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편집

학교에서 신문제작 실습때 인쇄소에서 편집하는 과정을 잠깐 본적이 있지만, 현대불교신문은 컴퓨터로 자체 편집을 하고 있었다. 내가 쓴 기사가 1시간도 안돼 출력이 돼 나오는 것을 보고 합리적이고 간편한 제작 시스템에 놀랐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HYUN DAE BULKYO

대한불교조계종 제 9교구 본사

팔공산 동화사

조 실 진제 법원
주 지 일응 지성

부주지 일귀 수성 총 무 선광 기 획 상원 교 무 삼현
재 무 법경 사 회 대법 포 교 일진 호 법 법혜

선원장 정봉 지환 강 주 원허 지운

신도회장 허석구 외 신도회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TEL 053)982-0101 FAX 053)985-4405 www.donghwasa.net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회 주 성타 주 지 종상

학 장 덕 민
선원장 종 우
부주장 덕 우
총무지주 각 주
사기획무 행 원
교재무서 천 문
사회무정 탄
호법무성 덕
포교육보 광
교문화기 명
신도회장 변영우 형

대 중 일 동

부설기관
불국사 문화회관
불국유치원
성림 어린이집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법보신문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TEL 054)746-9912~4 FAX 054)746-1476

청년불교 대중불교 한글불교

재한불교 해인종

종 정 만허 혜지

원로원장 혜동 원로부원장 혜명. 덕산
종회의장 법정 종회부의장 혜도
총무원장 보산 총무부원장 원경
교육원장 응관 교육부원장 법경
포교원장 효문 포교부원장 명성. 보각
학술원장 법안 학술부원장 운곡
고문단장 혜련 법사단장 대호
해인불무도원장 보각. 호송 부원장 거송.지완
종정사서실장 덕봉 사무총장 자륜

총무원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2동46-12 낙은사내
TEL 051)312-3777, FAX 051)322-5918
홈페이지 : 대한불교해인종, 해인종
http:// www.hainjong.org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후원 및 자원봉사는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본 협의회 기관을 통해 해주십시오

회 장 혜총 스님
기획실장 박용하
사무국장 이춘성
간 사 김영곤, 서은해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용하 / 부장 채종현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명현스님 / 부장 박신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여스님 / 부관장 정순화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임광수 / 부장 배의식
■두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지현스님 / 부관장 김맹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현스님 / 부장 김민아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혜총스님 / 부관장 이춘성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유정스님 / 부장 한승미
■양정청소년수련관 관장 범산스님 / 차장 이교현
■금정청소년수련관 관장 정만스님 / 과장 홍석환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관장 혜총스님 / 부관장 이춘성
■영주암어린이집 원장 범산스님 / 원감 양금선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이사장 정여스님 / 사무국장 정득보
■사회복지법인 혜 원 이사장 원허스님 / 사무국장 이명숙
■사단법인 선양복지원 이사장 김수현 / 사무장 노상희
■사회복지시설 컴넷하우스 원장 윤숙자 / 사무국장 채인숙
■조계종복지재단 부산보현의집 원장 이기표 / 부장 정흥희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 소장 지장스님 / 부장 정현숙
■부산시 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소장 김영곤 / 실장 박경란
■실비요양원 상락정 실버빌 원장 정관스님 / 사무국장 윤기혁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태중 아기 영가천도 전문도량

약 천 사

주 지 자 운

사부대중일동

서울 노원구 중계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TEL 02)3391-8523
011-9002-8523

대한불교무량종

비 룡 정 사

주 지 법정 보산

사부대중일동

일 요 법 회(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비룡불교대학(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인천시 중구 선린동 57-7
TEL 032)763-1237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은 적 사

주 지 虛 韻
신도회장 하 보타월
봉사단장 문 청량심
합창단장 권 정행성
문사수법회회장 최 선해심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 3동 1572
전화 053)653-1572, 9179

은적사 부설 룸비니유치원

원 장 조 대선행

外 교직원 일동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9동 627-5
TEL 053)621-1003, 653-9269

삼천불삼천배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감로사불교대학

기초, 경전과정(유마경)

조실 지관 회주 법희
주지 혜총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동 33
☏ 051)809-0926
팩스 051)803-0188

불교의 자비사상 실천현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부설 : 재가복지봉사센타, 치매노인주간보호센타
용호어린이집, 가정봉사원 파견센타
무료급식(매일300여명).
노인대학(매일200여명)

관 장 혜 총

TEL 051)628-6737 / FAX 051)628-6562

高靈 기와
(주) 高靈청기와

(고령기와는 명품기와만을
만듭니다.)
KS 表示許可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工場

代表理事 金段東

공장 :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350
TEL 054)954-8000(代)
FAX 054)954-5335
www.rooftile.co.kr
e-mail : gr@rooftile.co.kr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 건설 업체

대 표 탁희열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054)955-8200~1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지 선지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 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송광사 대구분원 관 음 사

주 지 元 明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2가 26
TEL 053)421-3700
053)427-1889

내가 일주일 내내 즐거운 이유?… '현대불교' 가 있기 때문이죠

'현대불교'가 10월 15일로 창간 11주년을 맞았다. 1천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하며 창간된 '현대불교'는 불교의 생활화 세계화 현대화를 지향하며 11년간 달려 왔다. 현대불교가 달리는 힘의 원천은 바로 독자들이다. 1주일간 가족끼리 돌려가며 현대불교를 읽는 독자들, 이웃에게 구독을 권유하는 독자들, 현대불교를 통해 신행정보를 얻고 나눔운동에 동참하는 독자들…. 그들이 있기에 현대불교의 11년이 있었던 것이다. 현대불교와 함께 사는 많은 독자들 가운데 세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보았다.







현대불교신문으로 불교계와 소통하는 대표독자 3인.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장수, 이명숙, 김순분씨.

불자다운 삶 제시해 주는 기획연재 읽으면 공부 즐거워

■ 최장수씨의 '신행교과서'

가을비 내리던 9월 30일 경복궁 인근에서 최장수씨(76)를 만났다. 1996년 3월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후 불교에 첫 발을 내디딘 최씨는 "현대불교신문이 나를 불교의 세계로 이끌었고 지금도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등은 나에게 경전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일깨워 주고 있다"며 현대불교 예찬론을 펼친다.

최씨가 현대불교신문을 만난 것은 퇴임 후 인근 강원불교대학에 입학해 불교공부를 시작하면서다. 그때 불교계에도 신문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최씨는 각종 교계정보와 불교교리가 가득하다고 판단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하기 시작했다.

"산행을 하면서 스쳐 지났던 절을 직접 다니며 불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요하고 정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불교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너무 재미있고 깊이가 있어요."

특히 유식학에 푹 빠져들었다. '불교의 향기' 강좌를 시작으로 한국불교연구원의 원효학당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전과 교리를 파고들었다. 최씨는 아직도 불교공부에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고희를 훌쩍 넘긴 나이도 잊은 채 오늘도 최씨는 원효학당에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공부와 함께 본격적인 사찰 순례에 나섰다. 97년 실시된 현대불교신문사가 주최한 성지순례 테마기행에 동참해 부인과 함께 전국 사찰을 다녔다. 마지막 회향지였던 제주 법화사에서는 개근을 축하하는 감사패도 받았다.

그 다음해는 체험기행이었다. "쌍계사에서 야생차를 덖어 마셨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최씨는 "주지스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절과 불교이야기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만날 수 없던 소중한 기억"이라고 전한다. 구산선문 참선기행에도 참가했다. 지금까지와 달리 선불교의 발상지와 폐사지 등을 둘러보며 책 속에서 보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웠다.

"그 이후에 현대불교에서 성지순례를 하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불교방송이 주최한 성지순례에도 몇 년 동참했는데 여러 사찰을 볼 수 있어서 좋았지만 기도 중심이어서 재미가 덜하더군요."

요즘 새로 찾은 순례 동지는 '여래지'이다. 마애불이나 폐사지 등을 중심으로 답사하는 여래지의 답사기행에 매주 동참한다. "15~30명 정도가 답사를 떠나는데 제일 나이 많은 동참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최씨는 건강이 허락되는 그날까지 불교공부를 하고 사찰을 참배하며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보다 전문적인 불교교육은 책으로 공부하고 불교사회 전반의 지식은 현대불교신문을 보면서 배운다"는 최장수씨는 희수(喜壽)가 되는 내년에는 삶과 불교를 한 권의 수필로 엮어 출판할 계획이다.

한 장의 신문으로 맺었던 불교와의 인연. 최장수씨의 불교공부는 앞으로도 배움에의 갈망 속에 계속 될 것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가부좌 틀고 앉아야 공부 되나요? 법 나누며 함께 즐거워야 공부지

■ 김순분씨의 '법보시로 안성맞춤'

"현대불교신문을 법보시하는 것은 많은 이들과 부처님말씀을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군부대와 교도소 등 부처님 법이 닿기 어려운 곳에 본지를 수년간 법보시 해온 김순분씨(50). 창간독자로서 11년간 본지와 꾸준히 인연을 맺어온 김씨는 으뜸가는 법보시로 '현대불교신문 보내기'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과 고승의 가르침을 쉽게 풀어주고, 다른 불자들의 신행담까지 생생하게 전해주기 때문"이란다.

작은 부동산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김씨는 본지를 통한 법보시 외에도 회사 직원 수대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불자 고객을 만나면 1년간 신문을 보내줘 자발적인 구독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처럼 김씨의 법보시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다보니, 많을 때는 김씨의 몫으로 동시에 20여 곳에 보시되기도 했다.

김씨가 특히 마음을 쓰는 곳은 군부대. 3년 전 한마음선원에 함께 다니는 신도들과 의정부에 있는 군부대 장병을 위문했던 일이 계기가 됐다. 담당 군법사로부터 "교회는 있어도 절이 없는 군부대가 많아 장병들이 절에 가고 싶어도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대하고 나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국군장병이 불교를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던 김씨는 군부대에 신문을 보내기 시작했다.

"법을 나눠야 한다"는 김씨의 믿음 뒤에는 깊은 불심이 자리하고 있다. 김씨는 <벽암록> <무문관> 등 선서를 틈나는 대로 탐독하고, 수시로 한마음선원을 찾는다. 절을 자주 찾는 이유는 법당에 있을 때면 나쁜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

직업상 많은 고객과 돈을 만나는 김씨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삿된 마음이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보이지만, 김씨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는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야만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나를 힘들게 하거나, 유혹하는 것들이 모두 마음공부의 자료며, 일상이야말로 공부하는 터전이라는 가르침을 이해한 뒤로는 마음이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고객의 돈을 내 돈처럼 소중히 여기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고객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 김씨의 철칙이다.

김순분씨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기보다는 이익도 손해도 함께 하는 길을 지향한다"며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사회에 값지게 회향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한다.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이익에 탐착치 않고, 철저하게 회향하는 불자 경영인의 전형을 김순분씨가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신문만 잘 읽어도 '불교 박사' 신행수기는 내 삶의 채찍이죠

■ 이명숙씨의 '감동의 정보통'

흔히 '불교공부'라고 하면 한자로 된 경전을 읽는 모습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신문을 꼼꼼히 챙겨 읽는 것만으로도 불교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하는 불자가 있다. 바로 본지 독자 이명숙(48)씨다.

집안 대대로 사찰에 다녀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게 된 이씨는 불교대학에서 기초교리도 배우고 매주 사찰을 찾아 기도에 매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무렵 발생한 경제 한파로 남편의 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적지 않은 갈등을 겪게 됐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불법을 좀 더 가까이 두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현대불교신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씨에게 현대불교신문은 단순한 소식지가 아니라 알찬 신행정보와 평소 만나기 힘든 스님들의 감로법문을 매주 안방으로 전해주는 소중한 교과서다.

신문에 난 소식을 보고 직접 법회에 찾아가보기도 하고 신문에 소개된 좋은 책을 사서 읽으며 불교와 한층 더 가까워졌다.

"일상생활이 바쁘다보니 미처 뜯어보지도 못한 신문이 한 부 두 부 쌓이기도 하죠. 이럴 땐 일부러라도 하루 정도 시간을 내 신문을 읽습니다. 천천히 신문을 넘겨보면서 눈에 띄는 기사나 필요한 정보는 스크랩해 둡니다. 스크랩 한 것만이라도 짬짬이 시간 내 읽다보면 '이런 정보도 있구나' '이런 가르침도 있구나' 하고 알게 되지요."

감명 깊게 읽은 스님 법문이나 봉사활동에 필요한 차 관련 자료, 눈에 띄는 법회 정보 등은 꼭 오려둔다는 이씨가 매주 빼놓지 않고 읽는 것은 불자들의 신행수기를 소개하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코너. 다른 이들이 수행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불법을 배워가는 모습을 보다보면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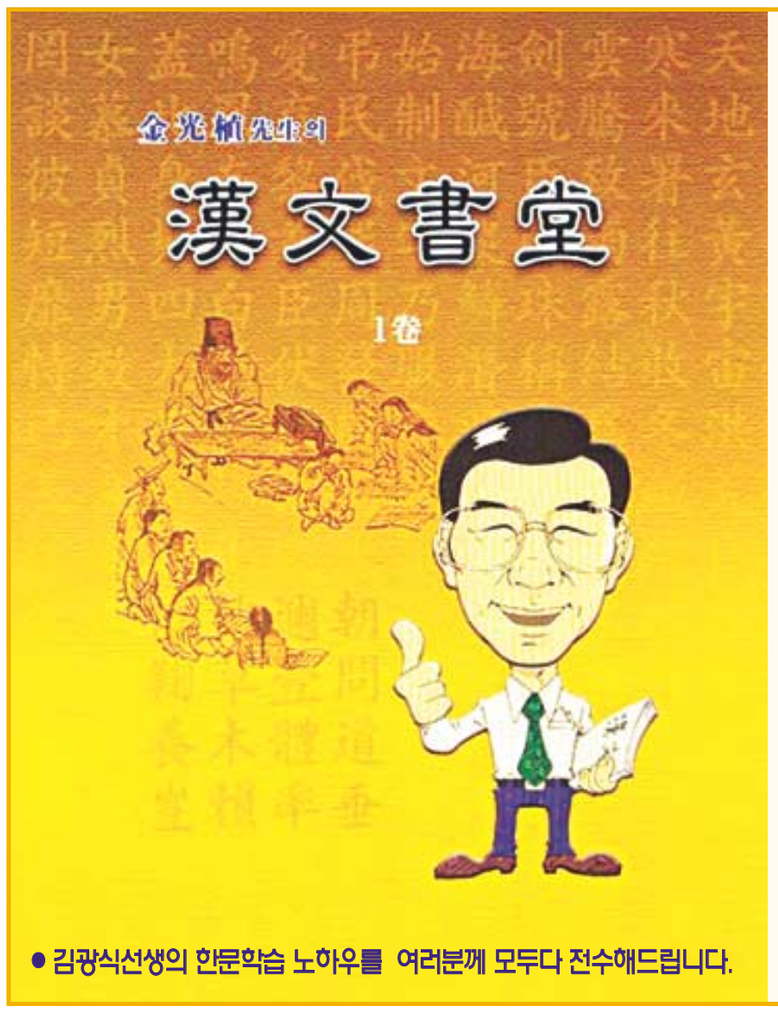
"신행수기에 나오는 많은 불자들의 정진 모습을 통해 늘 부족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언젠가는 제 신행생활을 정리해 신행수기 공모에 응모해 볼 생각이에요."

최근 3년 결사의 관음기도에 입재한 이씨는 수행과 더불어 봉사활동에도 열심이다. 바로 수행할 때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건강에도 좋은 차(茶)를 알리는 일이다.

여러 도반들과 함께 성신여대 대학원 차생활 예절학과를 수료한 후 다례교육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다. 현재 사찰은 물론 은석초등학교와 서울대 불교학생회에서도 무료 다례교육을 펼치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제 주위에도 신문 구독을 중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그분들에게 '자신에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꼭 신문을 보라'고 권합니다. 사찰 불사에 보시하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자기 공부를 위해 신문 한 부 구독하는 것을 아까워해서야 되겠어요? 부처님 가르침과 알짜 정보 가득한 '현대불교'를 읽다보면 구독료 이상의 소중한 보물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김광식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다 전수해드립니다.

머리에 쏙쏙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後學)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漢文書堂〉 12권에 실었습니다.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불자님들에게 희소식 !!

명광문화원 김광식 선생의 "한문서당"은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금년 연말(12월말)까지 한정 특별판매를 단행합니다.

정가 ~~180,000원~~을 150,000원으로 모십니다.

"한문서당"을 통해 깊은 학문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12개월(카드) 할부도 가능 !!

주문처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http://mahamall.co.kr
TEL. 02)732-1520
명광문화원 홈페이지 http://mkmunhwa.com
TEL. 043)222-2257

한문이 이제 쉬어집니다.

◇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 충청 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쏙 한맹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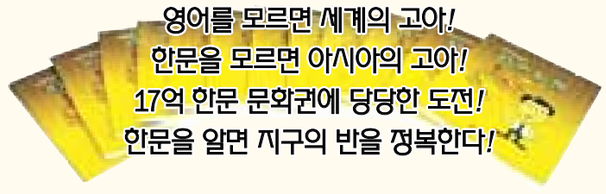
◇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 이원종 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에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앞 이빨에 털이 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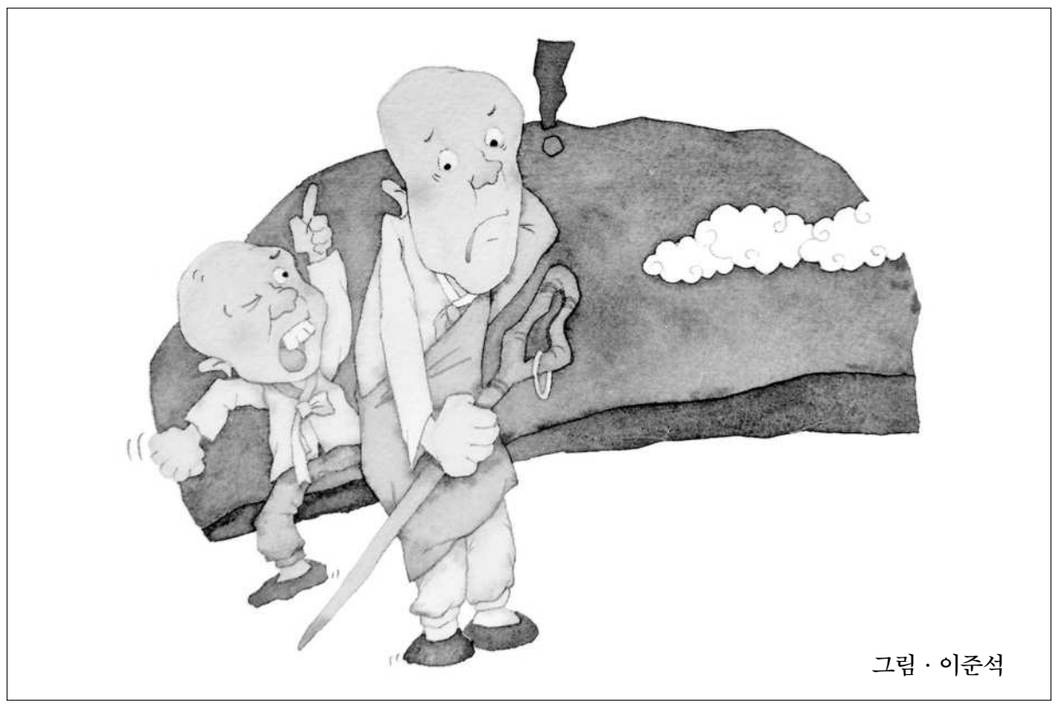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38〉 요설(饒舌)로 그 말을 비틀다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언어문자 외에는 법을 표현할 수단 없으니 차선으로 ‘문자반야’라는 절묘한 표현 등장

말재주 피우는 놈 · 밥통같은 놈 · 똥자루 등 과격한 언어로 안목 열어주고 불법 설파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말도 알고 보면 문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림의 방장으로서 어록 한 권 남기지 않으면 선사축에 제대로 끼어들 수 없는 것이 오가칠종(五家七宗)의 분위기였으니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 그렇게 많은 선어록을 대량 생산시키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불립문자’를 외칠 수 있는 그 강심장들을 열거한 곳이 전등사(傳燈史)이다.

경율론 삼장에 이어 선어록을 선장(禪藏)이라고 한다. 모두를 합해서 사장(四藏)이라고도 부른다. ‘잔소리쟁이’ 고타마 선사도 열반하시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뗐으니 그 스승에 그 제자들이라고 하겠다.

2차원 세계의 문자가 3차원 세계에서는 언어로 바뀐다. 말솜씨라고 해서 어디 빠지겠는가. 선종사에서 제일 말 잘하는 선사는 조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나머지도 그 못지않다. 차라리 말 못한 선사를 골라내는 편이 더 빠르겠다. 설사 반딧불을 모아서 수미산을 밝히고 표주박을 들고서 바닷물의 양을 헤아려 보겠다고 할지라도 언어문자 이외에는 법을 표현할 수단이 없으니까 차선으로 ‘문자반야(文字般若)’라는 절묘한 중도적 표현이 등장한다.

그래도 늘 진짜와 가짜는 있기 마련이다. ‘짝퉁 선사’를 골라내는 것이 선지식의 가장 큰 의무이기도 하다.

먼저 약산유엄(745~828) 선사가 석실(石室) 고사미(高沙彌)의 잔머리를 간파한 이야기다. 고사미가 약산유엄 선사에게 하직인사를 하려고 왔다.

“어디로 가는가?”

“강릉으로 계(戒) 받으러 갑니다.”

“계는 받아서 무엇을 하려는가?”

“생사를 면하고자 합니다.”

가만히 있을 유엄 선사가 아니다. 바로 거량으로 들어갔다.

“어떤 사람은 계도 받지 않고 생사를 여읜다고 하는데 너는 알고 있느냐?”

하지만 아직 이 질문을 받을만한 그릇까지는 되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250계를 제정하신 것입니까?”

교과서적인 답변에 유엄 선사는 할을 하였다.

“예끼 이놈! 저 말 많은 사미(요설사미 饒舌沙彌)가 아직도 입술과 치아만 놀리고 있구나.”

선사의 질문에 안목이 열리지 않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여 그동안 흉내만 내고 있던 고사미의 살림살이가 들통 난 것이라고 하겠다.

육조혜능 스님 헌창 운동의 일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 하택신회(670~762) 선사는 ‘요설사미(饒舌沙彌 말많은 사미)’라는 말의 원조이다. 13세 때 혜능 스님과의 첫 대면에서 이 말을 듣게 된다.

장황하지만 〈조계대사전(曹溪大師傳)〉을 그대로 인용하겠다.

“나에게 한 법(法)이 있는데 이름(名字)도 없고, 말로 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다. 안팎도 없고, 오고 감도 없고, 색깔도 없다. 유무(有無)도 아니고 인과(因果)도 아니다.”

그리고는 대중들에게 질문을 하였다.

“이것이 무슨 물건인고?”

대중들은 서로 쳐다보기만 할 뿐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이 때 13살 사미인 신회가 말했다.

“이것은 바로 부처의 본원(本源)입니다.”

“무엇이 본원인가?”

“본원이란 제불의 본성입니다.”

“나는 이름도 없다고 했는데 너는 어찌 불성이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불성은 이름이 없지만 화상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정말 이름을 말할 때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에 선사는 사미를 몇 대 때리고는 말했다.

“대중은 모두 나가고 요설사미(饒舌沙彌)만 남도록 하여라.”

‘요설(饒舌)’은 선가에서 ‘말재주 피우는 놈’이라는 뜻으로 자주 이용되었다. 본래 대승경전에서 ‘요설(樂說)’은 중생이 원하는 바에 맞추어 해주는 설법을 의미했다. 선종의 ‘요설(饒舌)’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써 흉내만 내는 것을 말한다.

안목 없이 선지식노릇을 하고 있다면 요설에도 십중팔구 속아 넘어가기 마련이다.

임제(?~867) 선사의 눈을 열어준 고안대우 선사는 ‘요설노파(饒舌老婆)’라는 극언으로 표현되어 있다.

‘쓸데없는 말을 중언부언 늘어놓는 할망구같은 놈’이란 말이다. 임제 선사가 눈이 열려 “황벽의 불법이 너절하지 않구나(無多子)” 라고 하면서 ‘불법을 알았다’고 하니 선배인 고안대우 선사가 “이 오줌싸개같은 어린 놈(尿牀鬼子)이 뭘 알고 그러느냐”고 하니 다시 임제가 옆구리를 세 번 쥐어박은 사건에서 연유한다.

오줌싸개같은 놈이란 잠자리에서 대소변을 못 가려 이튿날 아침 키를 둘러쓰고서 소금이나 얻으려 다니는 ‘똥 오줌을 못 가리는 어린 놈’이라는 의미이다. 이 말 때문에 고안대우 선사는 뒷날 ‘요설노파’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대우의 영향을 받은 임제 선사의 과격한 표현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 그는 ‘똥’이란 말도 즐겨 썼다. 심지어 〈임제록〉에서 경전을 ‘똥 닦아낸 휴지(拭不淨故紙)’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 ‘똥’이란 말도 계속 가지치기를 해나간다.

선어록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만난 ‘똥’이란 문자는 ‘똥막대기(乾屎橛 乾屎橛)’이다.

운문문언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마른 똥막대기니라.”

원래 선문답이란 동문서답이니까 별소리를 다하지만 내가 이 공안을 듣고서 일으킨 의심은 ‘똥막대기’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였다.

어느 청명한 가을날이었다. 도반들과 산에 갔다가 갑자기 대변이 마려워 몰래 숲 속 큰나무 뒤에 가서 실례를 했다. 워낙 갑자기 생긴 사건이라 휴지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손수건이 나왔다. 바로 닦으면 손수건마저 버려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손닿는 곳에 있는 잎사귀로 먼저 대충 닦았다. 다시 그 손수건으로 마감을 하고서 다시 호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었다. 절로 돌아와서 바로 세탁을 했다.

며칠 후 다시 그 코스로 산행을 했다. 갑자기 그 똥이 궁금해져 그 자리를 다시 찾았다. 날씨가 건조했던 탓인지 그야말로 ‘똥막대기’가 되어 있었다. 이게 운문 선사가 말한 그 똥막대기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휴지가 없던 시절인 당송시대에는 변소에서 휴지 대신 나무막대기를 사용했다. 대변을 마친 후 똥막대기를 이용하여 대충 털어내고서 뒷물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똥막대기로 제대로 털어내지 않으면 뒷물이 많이 든다. 그리고 사용한 똥막대기는 곁에 있는 다른 통에다가 옮겨서 따로 보관했다. 변소청소 담당자는 마른 똥막대기에서 똥을 털어내고 씻어 말려 다시 새로운 통에 담아두고서 다음 사람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큰 일을 당한 순간 사용했던 그 손수건이 똥막대기 역할을 했던 것이다.

반대로 변소는 포장된 언어로 바꾸어 놓았다. 선종에서는 변소를 동사(東司)라고 한다. 뒷간은 항상 동쪽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칙칙하기 때문에 항상 밝음을 의미하는 동쪽 켠에 둔 안목도 탁월하거니와 그 곳의 소임자를 정두(淨頭)라고 부른 것도 대단하다.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변소를 정랑(淨廊)이라고 한다. ‘반드시 깨끗하게 해야할 집’이라는 말이다.

요즘 고속도로 공중화장실은 거의 호텔급 수준이다. 화장실로 영업의 승부처로 삼아야 할 만큼 사람들이 청결함을 추구하는 시절인지라 깨끗함마저 경쟁적으로 상품화시켰다. 어느 휴게소의 화장실은 강이 내려다 보이고 대나무가 창가에 심어져 있는 그 ‘정랑’ 때문에 ‘참으면서까지’ 자주 이용하게 된다. 동사(東司)의 밝음까지 유리로 다 해결해 놓았다.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변소를 밝고 깨끗한 집인 ‘정랑’이라고 부르는 것도 선종의 요설이다.

마삼근(麻三斤)의 주인공인 동산양개(807~869) 선사도 운문 스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의 건달로 제방을 설렁설렁 다닌 탓에 운문 스님에게 ‘식대자’ 소리를 들었다. 식대자(食袋子)는 ‘밥을 눌러넣는 자루’ 즉 그러니까 ‘밥통같은 놈’이라는 말이다. ‘밥통같은 놈’이란 똥의 원인인 ‘밥만 축낸다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우의 ‘오줌싸개’는 임제의 ‘똥닦아낸 휴지’로 그 영향을 미치더니, 운문의 ‘똥막대기’로 연결되었다.

양개에게는 ‘(똥이 만들어지기 전의)밥통같은 놈’이라고 하였으니 오줌이나 똥이나 밥통이나 그 말이 그 말이다. 똥이 곧 밥인 불이(不二)의 경지인 것이다.

그리고 몸을 ‘똥자루’나 ‘고름주머니’로 표현하여 ‘사대(四大)가 공(空)하다’는 것을 그 과격한 요설로써 표현한 것이 선어록 도처에 널려있다.

그러나 초조(初祖)인 달마 대사는 반대로 침묵 그 자체였다. 그는 박해로 인하여 앞니가 부러진 까닭에 ‘결치도사(缺齒道士)’ 혹은 ‘결치노호(缺齒老胡)’라고 불렸다.

치아가 빠져 보기싫어 입술을 항상 꾹 다물고 있었던 모양이다. 얼굴모습도 서역인이라 별로인데 앞니까지 없었으니 놀릴까봐 말을 하려야 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양치질 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삼매에 빠져 늘 벽만 바라보고 있었으니 치아가 더 지저분해질 수 밖에 없었다. 판치생모(板齒生毛)는 이빨에 곰팡이가 필 지경이라는 말이다.

‘벽관바라문’으로 얼마나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지 그 결과로 인한 것이라 하겠다. 예전에 전강 선사는 판치를 ‘판대기이빨’이라고 했다. 앞니가 다른 이보다는 크고 넓어서 판자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설사 ‘달마의 침묵’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놓친다면 구피(口皮)선사 조주(趙州)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침묵의 ‘불립문자’를 설(舌)로써 ‘문자반야’로 전환시키는 순간이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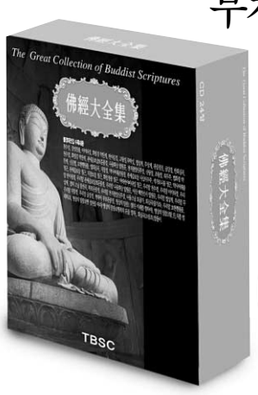
“앞 이빨에 털이 돋았다(板齒生毛).”

오디오불경대전집

New 2005년

佛經大全集 탄생

경전을 듣는 사람이면 어리석음에서 눈뜨고 무명을 깨뜨려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무소유보살경)



CD 23장



불경대전집 수록내용

천수경, 장엄염불, 아미타경, 화엄경 약찬게, 반야심경, 고왕경,목탁성, 법성게, 무상게, 관음정진, 금강경, 반회심곡, 천수경, 화엄경 약찬게, 관세음보살보문품경, 나옹화상 발원문, 천지팔양신주경, 산왕경, 조왕경, 북두주, 법화경 약찬게, 신심명, 보현행원품, 별회심곡, 지장경, 약시여래본원경, 관세음보살 사십이수주, 석가모니불 정근, 약시여래불 정근, 관세음보살 정근, 지장보살 정근, 화엄정중 정근, 마하반야바라밀 정근, 우리말 천수경, 우리말 아미타경, 우리말 반야심경, 우리말 관세음보살 보문품경, 우리말 나옹화상 발원문, 이산 혜연선사 발원문, 우리말 법성게, 우리말 무상게, 경허 스님 참선곡, 부모은중경, 우리말 천지팔양신주경, 나옹스님 토굴가, 회심곡(불가조), 우리말 보현행원품, 우리말 지장경, 우리말 금강경, 현대어 부모은중경, 명상의 말씀1 (밝은 미래를 향하여), 명상의 말씀2(탐,진,치를 멀리하고), 명상의 말씀3(옛 성현을 따라) 명상의 말씀4(행복의 문을 열자), 회심곡(소릿조), 탑돌이

◆ 수록시간 : 25시간 07분
◆ MP3용 : CD1장 + 고급우단 케이스 가격 = 25,000원
◆ 일반CD용 : CD23장+휴대용 CD자켓 가격 = 60,000원



MP3 CD 1장
컴퓨터,DVD,MP3CD 플레이어 용

부처님의 말씀은 수 많은 경전으로 엮어져 무량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세계를 다시 이 작은 CD로 감히 엮어 선을 보이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충고와 지도를 바라며 부디 이 「불경대전집」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은행계좌 : 제일은행186-20-017075 예금주 : 홍선희

티비에스시(TBSC) www.tbsc.co.kr T.3274-1198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16-58 용산전자 0/T1116호

현대불교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HYUN DAE BULKYO

호국불교효혜종

석 문 사

주지 혜전

사부대중 일동

참된 삶 실천운동 석문사 자비원

지난 10월 9일 여법히 봉행된 “제2회 석문사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가좌리 103-2번지
전화 043)264-3008. 011-9607-2199

참가업체 모집 국내 최초의 불교산업 전문 전시회에 참가업체 여러분을 모십니다

한국 최대규모의 종교산업 전문전시회

2006 한국불교박람회



2006. 3. 23(목) ~ 3. 26(일)

서울무역전시장(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참가신청: (02)736-0993

www.bexpo.org

전시분야

사찰건축 및 첨단포교

사 찰 건 축 : 종합건설, 석재, 목재, 황토, 조경, 난방, 기와, 전기, 조명, 단청, 불화, 창호, 사찰장식, 조립식건축, 지하수개발, 간판(안내, 게시판) 등

유 지 보 수 : 성보보수(목재, 석조, 기타), 보호제(방습, 방충), 방범(방범시스템, CCTV), 방재, 금고, 안전문, 안전망, 강화유리 등

첨 단 포 교 : 음향(앰프, 스피커), 조명, 인터넷전용선, 홈페이지 제작관리, 종무프로그램, 위성방송, 홀로그램 등

장례문화, 사찰행사 및 기타

장 례 문 화 : 납골관련 특별전시관, 불교장례문화 소개 등

행 사 기 획 : 행사종합기획, 출연자(협회 및 공급자), 음향, 조명, 무대설치, 기념품, 여행사, 현수막 및 행사소품 등

불 교 용 품 : 불상(청동·금·목조), 범종, 법고, 목어, 목탁, 죽비, 요령, 연등, 제기, 불교음반, 도서, 기획출판, 사보, 향, 초(일반·기능성), 염주, 표구, 액자, 승복, 좌복 등

종단 및 교육 : 각 종단 특별전시관, 종립학교 및 각종 관련 학교 교육전시 등

상 담 지 원 실 : 종단 및 사찰 종무행정, 법무, 세무, 각종 인허가, 템플스테이 등

기획 전시 및 전통차, 웰빙관

전 통 차 : 녹차, 보이차 등 각종 차 및 다구

친환경 먹거리 : 사찰 특산물, 채식, 친환경 농산물, 생식 등

웰 빙 관 : 명상, 요가, 선무도, 불무도, 선 실수 등

야외 전시 및 부대행사

특 별 공 연 : "BBS 특별 공개방송", "불교와 국악의 한마당"

야 외 전 시 : 야외전시장 특별운영

주최 : BBS불교방송, (주)제이컨벤션 주관 : 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

천년고찰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고 소원성취 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한국불교의 대표적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등 다수의 보물 및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로운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윤장대에 원(願)을 실어 돌려라 ~ 이루어지리라

어느덧 을유년 한해도 3/2가 지나갔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병 중에 계신 분, 그리고 대학입학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 모두 윤장대 윤전으로 업장소멸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모든 액이 소멸되고 바라는 바 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청 안 합장


윤장대


대장전(보물 제145호)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진영당


교지(보물 제729호)


자운루(문화재 자료 제143호)


보광명전 삼존불


명부전 지장보살 · 업경대


괘불


팔상탱


명부전 금강역사상


영남제일강원


용문사 전경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40~5:30, 30분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 (우)757-800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간화선 대중속으로



설선(說禪), 문 없는 문을 열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여시아문 | 1만5천원

범어사-현대불교 공동주최
10대 선사초청 설선법회
법문 · 질의응답 책으로 엮어

흔히 '선(禪)'은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라고 말한다. 하지만 언어나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깨달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을 것이다. 불교에 수많은 경전과 법문이 존재하는 이유다.

올해 3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는 이러한 '언어를 넘어선 언어'로 선이라는 '문 없는 문'을 열어 보인 법열(法悅)의 장이었다. 지난해 조계사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가 현대인들에게 '선수행'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면, 이번 설선대법회는 '왜 선이어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설선대법회의 의의'(지유) '무차선법회, 선이란 무엇인가'(진제) '21세기 대안, 왜 선인가'(혜국)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 참선수행'(고우) '선과 삶'(인각) '자비와 지혜를 조화롭게 닦는 선수행'(현산) '선수행의 바른 길'(지환) '생사문제와 선수행'(무여) '화두는 조사공안이다'(원융) '선수행의 단계'(정광)를 주제로 진행된 열번의 법회에는 선 수행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연인원 5만여 명이 참석해 그 열기를 실감케 했다.

이번에 발간된 <설선(說禪), 문 없는 문을 열다>는 설선대법회에서 펼쳐진 선사들의 감로법문과 법회 현장에서 오고간 질의응답을 고스란히 활자로 옮겨 놓은 '지상(紙上) 법회'다.

조계종 수행가풍 진작의 실질적 주역이자 우리나라 수행문화를 이끌어가는 선사들의 육성법문이 눈앞에 보이듯 생생히 펼쳐진다.

"깨달음에 가까이 가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것을 '화두공안'이라고 합니다. 그 화두공안도 열심히 하다 보면 깨달음이라는 것, 또 도(道)라는 것은 닦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지유 선사)

"참선공부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꾸준히 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공부에 단속(斷續)이 있으면 공부를 하더라도 향상이 없고 하다 말다 하면 오히려 퇴보하기 쉽습니다. 깨칠 때까지 수행하되 내생이든 후 내생이든 시간을 논하지 않고 오로지 화두만 참구할 것이니, 이와 같이 수행해 나가기만 한다면 이루지 못할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지환 선사)

"부디 이 자리에서 법문 듣는 것으로 다 됐다고 하지 마세요. 정 시간이 없으면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시간이라도 줄여야 됩니다.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참나가 무엇인고?' 하고 참구하세요."(혜국 선사)



올해 3~5월에 열린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는 현대인들에게 간화선수행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자리였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책에서는 특히 무차선법회로 진행된 회향법회에서 열린 법거량 현장이 눈길을 끈다. 자신의 공부를 점검받으려는 재가불자와 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는 진제 스님의 서릿발 같은 경책이 독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100여 년만의 폭설이 내린 3월에 시작돼 봄꽃 향기가 만발하는 5월에 끝난 설선대법회.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사물을 키워내는 자연의 진리처럼, 대중의 근기에 맞춰 울려 퍼진 법문은 중생을 부처의 길로 안내하는 소중한 자양분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자비심 넘치는 세상 히로스케 환상동화



빨강 도깨비, 불 뿜는 용과 함께 환상의 동화나라로 여행을 떠나보자. 일본을 대표하는 동화작가 하마다 히로스케의 동화집 <울어버린 빨강 도깨비>가 우리나라에 번역돼 첫선을 보였다.

히로스케의 동화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특유의 따뜻한 필체로 보여준다.

이번 동화집에는 눈멀고 귀먼 할머니를 위해 스님 대신 열심히 염불을 해주는 하얀 여우, 자신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준 아이를 위해 멋진 배로 변신하는 용, 인간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빨강 도깨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떠나가는 파랑 도깨비, 자신의 사후처리를 해줄 마을사람들을 위해 송어를 키우는 노인, 겨울나들이에 나선 아기곰에게 팥빵을 나눠주는 할아버지 등 자비로운 주인공들로 가득하다.

불자인 히로스케는 이번 동화에서 '선은 보상받고 악은 징벌 받는다'는 유교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없앴다. 그의 캐릭터들은 동물이나 도깨비나 불성을 가진 자비정신이 가득한 캐릭터로 그려진다. 히로스케가 만들어낸 따뜻한 캐릭터와 이야기가 주는 이런 감동은 그가 작고한지 50년이 넘도록 그의 동화를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게 만들었다.

히로스케의 동화는 완벽한 마무리를 하지 않는다. 뒷이야기가 더 있을 듯한 마지막은 오히려 더 긴 여운을 남기며 독자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준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울어버린 빨강 도깨비
하마다 히로스케 지음
안직수 · 안권수 옮김
박소훈 그림
이른아침 | 9천8백원

벼랑 끝 미소 찰나의 순간



빛과 시간-한국의 마애불
정양근 사진
눈빛 | 2만원

국보 84호인 서산마애삼존불.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이 불상은 햇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천진한 아이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애로운 부처님 같기도 한 미소를 보여준다. 이처럼 하늘과 맞닿은 벼랑에 새겨진 마애불(磨崖佛)은 빛의 조화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자연과의 합일(合一)을 이루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마애불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어온 정영근씨 역시 마애불에서 '빛과 시간'을 읽어냈다. 그가 최근 펴낸 사진집 <빛과 시간-한국의 마애불>에는 오랜 세월 견뎌 온 굴불사지 사면불상과 남원 신계리 마애불좌상, 월출산 마애불, 서산마애삼존불, 법주사 마애불좌상 등이 60여장의 사진으로 오롯이 담겨 있다. 빛과 마애불이 빚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내기 위해 수십 수백 번 카메라 셔터를 눌렀을 작가의 노력이 그대로 사진에 묻어난다.



마애불은 빛과 어우러지며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사진은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보물 제199호).

"마애불 답사를 다닌 지난 10년은 내 60평생 중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고 침묵 속의 휴식이며, 고요하고 깨어 있는 무쟁(無爭)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정씨는 "이 사진들은 순례길에 만난 부처님들 앞에 바치는 작은 정성"이라고 말한다. 이경홍 교수(경일대 사진학과)는 정씨의 사진에 대해 "찍혀진 사진을 통해 마음을 바라보고 또 자신을 읽어내는 수행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평한다.

책 뒤편에는 이태호 교수(명지대 미술사학과)가 쓴 '바위에 새긴 부처-한국인의 심상, 마애불'을 덧붙여 마애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여수령 기자**

"인도의 속살 직접 느껴보자"



뷰티풀 인디아
이태훈 지음
다른세상
1만6천원

인도 여행은 사람들에게 막연한 기대와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인도라는 단어에 예전처럼 설레지 않는다. 수많은 감성적인 인도 여행서와 사진들이 보여준 인도의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도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말에 선뜻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이다. 사실, 거대한 인도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그래서 수 천 년에 걸쳐 이룩된 인도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사와 맞물린 종교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이태훈의 뷰티풀 인디아>는 뷰티풀 세계여행 시리즈의 네 번째 편으로 단순히 인도 여행을 소개하는 여행서가 아니다. 지은이가 보고 느끼고 사진찍은 것들과 함께 그가 만난 사람, 문화, 유물 그것에 얽힌 역사와 종교의 이야기가 무겁지 않으면서 흥미롭게 펼쳐진다. 책장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인도의 속살까지 헤집고 들어가 그들의 뿌리와 맞닿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구성했다. 또한 종교 갈등으로 인도에서 독립 분리된 파키스탄에 대한 선입견과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도 문화의 한 영역인 파키스탄 지역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지은이는 전작들과 달리 몇가지 질문을 던지며 여정을 옮겨간다. "인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은 무엇인가?" "인도는 신의 울타리 안에서 정말 행복한 것일까?"라고.

그는 이 화두에 대한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가며 여행을 계속한다. 그리고 종국에 그가 깨달은 것은 이렇다. "가라, 그 땅을 디디고 서서 느껴라. 느린 걸음으로 그것들을 둘러보라. 당신은 그때서야 비로소 인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제7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천여 명의 죽음을 배웅하며 쓴 마지막 날들의 이야기!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선고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10년 넘게 해온 비구니 능행.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도록 불교계 최초의 독립형 호스피스 정토마을을 세워 오늘도 봉사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남긴 눈물과 감동의 사연들!
이 책은 능행스님이 만난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다. 딸아이의 갑작스런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엄마,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자식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벌어지는 우리네 인생의 다양한 모습, 아쉽고 안타까웠을 순간순간들이 책의 페이지 페이지마다 그려지고 있다.

이승과 저승의 간이역 정토마을 비구니 능행스님의 이별과 만남 이야기!
능행스님이 몸이 크게 아파 병석에 누웠던 2년 전 하나 둘 메모해둔 원고가 이 책의 바탕이 됐다. 그간의 활동을 일기체 형식으로 적어 애기가 생생하고, 그런 만큼 설득력도 크다. —중앙일보
능행스님은 잘살다가도 어느 날 죽음이 닥쳐 질질 끌려가기보다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미소로 답하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죽음일까 하고 묻는다.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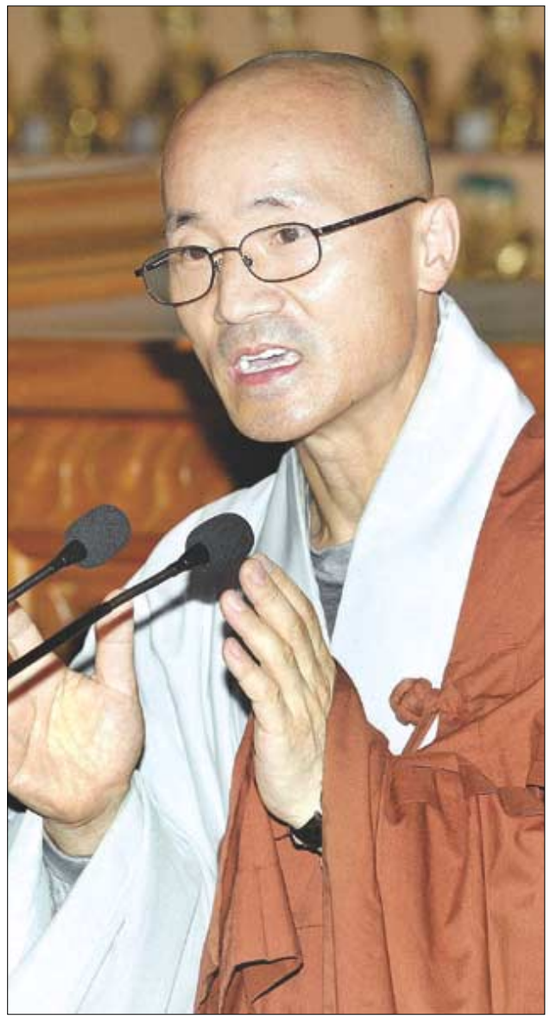
능행 지음 | 신국판 | 올컬러
276쪽 | 9,500원

02-335-5755

율장의 뿌리는 참회와 화합

동화사 - 현대불교 공동 주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수행 대법회 ⑧

주제 : 율장정신에서 본 종단의 제도 (10월 1일)
법주 : 경성 스님 (중앙승가대 강사)


승단의 위계와 규율을 지키기위해 많은 제도가 필요한것이 현대사회지만, 승단의 모든 법은 참회와 화합을 뿌리로 삼는 율장정신을 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경성 스님.

오늘 주제는 승단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율장정신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입니다.

종단의 호계원 제도를 중심으로, 율장정신의 어떤 것을 여법히 계승하고 있고, 사회법과 가깝게 다가가면서 본래 율장정신의 무엇을 소홀히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남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오탁의 견해(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견 의견 등이 난무하는 혼란함을 견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견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며, 지계정신을 바탕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계를 받고, 계율수행대법회와 같은 법회를 통해 잘못된 독선적인 자기의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 의견을 존중할 줄 알므로써 서로 이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율장의 화합정신입니다.

승단의 모든 제도는 율장의 화합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교 교단인 승가는 화합중(화합하는 무리, 화합하는 대중)으로 의역하는데, 승가가 화합하기 위해서는 계율을 받아 지키는 것이 선행조건입니다. 즉, 계율을 지키는 것에 의해서 승가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율의 본래 의미는 번뇌의 발동을 막아 번뇌의 단멸(斷滅)을 얻으려는 생활규정입니다. 특히 승가는 부처님의 교법을 호지하고 널리 전법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음과 존경을 받아야 하며, 비난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도적인 장치로 250계 348계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계율과 각종 제도. 그러나 그 연관성을 따져보는 것도 재미있는 '공부'다.

500계 등의 조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계율의 목적은 규제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있습니다. 계율의 실천을 통해 출가자나 재가불자들이 항상 당당하고 편안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상의 어떤 조건에서도 보다 더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은 원래 부처님이 정한 조목입니다. 불멸후, 제1결집에서부터 몇차례 결집에 이르는 동안 계율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의견차가 생겨 상좌부, 대중부의 근본 2부를 비롯하여 20부파로 분열되었고 유력한 부파들은 대동소이한 각자의 율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과(佛果)를 이루기 위해 수행자가 계학(戒學)을 성취하고 다시 계학(戒學)을 중심으로 정학(定學)을 실습하고 이 정(定)에 의해 혜학(慧學)을 성취하는 것으로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을 구현하기 위한 지악수선(止惡修善, 악을 그치고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 소승불교 입장입니다. 대승계는 소승의 형식적인 계율에 반대하여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대승계의 근본은 외적 율법에 두기 보다는 내적인 신념이나 태도를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대승계율 사상은 소승불교의 계율 사상이 면밀하고 또, 보다 율법적인 행위의 제한적 조건인데 비해 소승불교의 이론에 치중하고 비실행적인 요소들을 간소화한 삼취(三聚)로 요약됩니다. 계율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잘 지키고자 하는 것이 섭율의계(攝律儀戒)고 적극적으로 모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섭선법(攝善法)이며, 일체중생을 위해 연민하는 마음이 요익유정(饒益有情)입니다. 이 계율은 지악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행위의 규범이지만 금지의 방향으로 제어하는 것을 중요

범계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 지니지 않고 진정한 화합 불가능

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방향에서 이탈되어 나가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어, 자율적인 측면을 중요시 하는 율장의 참된 의미요, 모습입니다. 또, 수행자가 악을 그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을 행하고 자비와 이타를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가 보다 더 강하고 굳건하게 결합될 때 보다 더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정신적인 측면에서 율장과 사회법제도를 비교해 보면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사회법제도는 범죄예방을 위한 처벌을 말하지만 율장은 참회를 통한 청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회를 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드러낸다는 것은 큰 결심과 용기가 필요하지만 드러낼 때 밝아지는 것을 바로 느낍니다.

의식을 한번 깨쳐내고 벗어버릴 때 여러가지 갈등적 요소가 환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종단제도도 결코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소 민주적인 다수결의 제도를 혼용합니다만 율장이 제정되면서 만들었던 근원적인 의식은 그대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참회하는 지악의 수행과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적인 작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승가제도에 대한 참회 등 승단의 중요행사는 거의 백사갈마에 따릅니다.

특히 승잔죄에 대한 참회에 백사갈마가 시행되는 것은 계율을 범한 수행자의 진정한 참회를 통해 대중의 화합으로 사면과 복권을 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범계자는 마땅히 스스로 대중앞에 나가 고백하도록 하고, 반드시 고백한 후에는 죄의 경중에 따라 대중이 결의로 풀어주어야 합니다.

악행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장차 중죄로 발전할 것 같은 경우는 구출(驅出)갈마, 가책(呵責)갈마, 의지(依止)갈마, 차부지백의가(遮不至白衣家)갈마 등의 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구출갈마는 속가에 출입하면서 위신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여 재가의 정신(淨信)을 잃게 되고 나아가 승잔법을 범하게 될 것으로 염려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오가악행(汚家惡行)한 지역으로부터 떠나서 근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책갈마는 소송이나 송사를 하여 다른 비구들의 다툼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일정한 복사(服事, 참회하고 법칙을 이행하는 것)를 부과하여 반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의지갈마는 거듭하여 승잔죄를 범하거나 범하기 쉬운 행위를 하는 비구를 선지식 등에 의지시켜 교정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차부지백의가갈마는 신심 깊은 재가인을 부당한 일로 분노하게 하는 비구에게 재가에 가는 것을 금지하고 상대 재가인에게 참사(懺謝)시켜 근신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마를 하는 방식은 참례(參列) · 동의 · 제출 · 토의 · 재결 · 해산의 순서에 의합니다. 참례(參列)는 전원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일 참례할 수 없을 때는 그 결의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승인을 해줘야 하며, 단 한사람의 이의가 있더라도 갈마는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그만큼 갈마는 죄를 짓고, 참회를 통해 복권되는 것이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엄격한 것입니다. 갈마는 출석 인원으로 보면 1인으로 하는 것(심념법,心念法), 2인 혹은 3인으로 하는 것(대수법,對首法), 4인 이상으로 하는 것(중승법,衆僧法)이 있는데, 승단의 최소 단위는 4인이므로 승단 행사는 중승법이 정규입니다. 심념법은 자기 마음으로 참회하는 것이고, 대수법은 삼의나 발우 등을 수령하거나 제기(提棄)할 때 쓰입니다. 중승법은 4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20인 이상의 4종류가 있는데, 20인 이상의 갈마는 입단작법(入團作法)을 시작으로 해서 중죄(重罪)의 참회를 받거나 그 형

법회 동영상 중계 hompy.buddhapia.com/homepy/morals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청동불상제작전문 성화불교전시관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쑥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박잡는 틈새업종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쑥뜸을 뜰 수 있다.
오행쑥뜸기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쑥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쑥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 좌훈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훈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행좌훈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특허 등록
ISO 9001:2000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 제 03662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07019-3001
실용신안등록 : 제 0300642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18970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28990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 인증서번호 :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오행쑥뜸기, 음양 쑥뜸기, 오행좌훈기 등을 찜질방 및 사우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독점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완벽한 본사의 교육)

문의전화 02)521-4453

www.moxa4u.com 오행쑥뜸·좌훈기/음양쑥뜸기 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
D.M.I산업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 창업보육센터

(刑)을 용서해 복권시키는 일 등 모든 행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승가의 전통적인 의결방식인 갈마는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찬성을 전제로 진행되는 화합을 지향하는 운영 회의제도입니다. 갈마의 목적은 첫째, 의결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며, 둘째 계율을 범한 구성원의 진정한 참회며, 셋째 대중의 화합으로 사면과 복권을 꾀하는 것이며, 넷째 중죄를 범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 갈마의 진행 과정에서 두 번 세 번 대중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의도인데, 이런 의결 방식은 현 종단의 호계원법에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호계원은 종단의 사법기관입니다. 초심 호계원과 재심호계원으로 구성되며, 초심

갈마, 구성원 전체 참여·찬성이 운영원칙
호계원 다수결의 방식 율장정신에 어긋나

호계원에서는 호법부에서 제소한 징계에 관한 사항과 종무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제소한 사항 등을 관장하고, 재심호계원에서는 초심호계원을 거쳐 재심에 상소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이런 초심과 재심호계원의 제도는 율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백사갈마, 즉 두 번 세 번 대중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갈마제도에서 범계자에 대한 논의에 백사갈마를 취하는 것은 대상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도반이기 때문이며, 율장의 기본정신이 처벌이 아니라 화합이며, 참회를 통해서 청정한 대중의 무리와 함께 수행하고 탁마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종단의 호계원제도도 이런 취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장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호계원법은 갈마의 현대적인 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마나 호계원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은 경미한 범계 행위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4바라이죄나 5역죄 등의 중범계는 이미 수행자의 신분과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논의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대방등대집경>의 부처님과 빔비사라왕의 대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갈마와 호계의 목적도 범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범계자의 진정한 참회를 통해 대중의 지혜와 화합으로 사면과 복권을 꾀하며, 중대한 범계를 예방하고 경미한 범계를 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호계원 제도가 문제는 있습니다. 호계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전체 대중의 참여로 이뤄지는 갈마와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호계원제도는 심의하는 모든 사항에서 승가 대중 전원이 참여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승법을 채택하면서 일정한 법랍과 연령을 갖춘 대덕이상의 율장과 청규에 밝은 일당백의 혜안을 갖춘 선지식이 승가 대중을 대표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 호계원은 7인, 재심호계원은 호계위원장을 포함해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첨예하게 다른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민주적인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율장정신에서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전원참석 전원동의로 갈마가 성립되는 것에 반해 초심호계원은 7인 중 5인이상 참석하면 성원이 이뤄지고, 2/3가 동의하면 가결됩니다. 재심호계원도 9인중 7인이 참석하면 회의가 진행되고 역시 2/3가 동의하면 가결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율장에서 만장일치제는 대단한 화합정신이며, 승잔죄에는 엄격한 갈마의식이 있습니다. 만일 가까이에 스님이 없을 때는 20인 이상의 승단을 찾아가야 하며, 병이 들어 참석 못하면 병자를 들것에 싣고서라도 참석하게 하고, 병실을 벗어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갈마대중이 병실로 모두 옮겨가 갈마를 하는 엄중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율장정신은 함부로 가볍게 할 일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율장정신은 화합으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합은 배려와 이해심에서 출발합니다. 갈마의 정신 또한 화합을 원칙으로 이뤄지며, 화합을 이룩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범계자를 향한 배려와 이해심입니다. 종단의 호계제도 또한 호계원 전체의 화합으로 심사가 이뤄지며, 초심과 재심을 통해 피호계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장정신에 담겨있는 배려와 이해하는 마음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실천한다면 모든 대립과 반목을 물리치고 진정한 화합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전체의 성숙과 발전을 맞게 될 것입니다. 또, 화합의 극치인 화엄의 세계를 이룰 것입니다.

정리=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경성 스님은

해인사로 출가하여 혜총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강원과 율원을 졸업했으며, 해인사와 범어사 선원 등에서 정진했다.

중앙승가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파계사에서 성우 율사로부터 계맥을 이었다.

현재 해인사 희랑대에 머물며 조계종 소청심사위원과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교수사, 중앙승가대학 강사이다.



참가 대중들은 경성 스님의 논리적인 강론에 빠져들며 계율의 근본정신을 마음깊이 새겨 넣었다.

논 찬



재가 포교사의 활용 방안과 승단과의 관계는?

지현 스님
(송광사 율원장)

질문1 : 조계종의 재가 포교사가 8,000여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뜻 재가포교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교사의 포교일선 포교방안과 출가승단과의 관계에 대한 스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성 스님: 본사나 각 말사를 소개하는 불교문화해설사로서의 활용방안을 비롯해 병원,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어린이 · 청소년 법회, 사찰수련회 등 포교사가 필요한 요소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호스피스나 불교사회복지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의 한 부분을 열어준다면 불교를 잘 아는 진정한 불자가 봉사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 스님의 역할을 중개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포교사가 포교당을 직접 운영하는 문제는 심각한 불교의 왜곡현상을 방치할 수 있는 것으로 염려됩니다. 포교사들은 스님의 인가와 종단의 제도적 장치에서 각자에게 맞는 소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종단은 포교사들이 제도적 장치 안에서 나름대로 불교를 전파하고 홍포하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틀을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질문2 : 불교를 배우고 싶어하는 열기가 증폭되어가는데 불교교양대학 등 교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좀 더 배우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체계적인 방안이 있으신지요. 또, 포교원과 교육원의 인가 하에 무수히 설립되는 교양대학이 종단이 만든 하나의 기본 안을 준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경성 스님 : 먼저 불교를 배우려는 재가신도들이 절을 꾸준히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좋은 교육여건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원에서 잘 만들어진 교양대학 운영방침과 기본 교재를 활용하고 활성화시킬 수 장치가 부족한데, 스님이 주관하고 포교사가 관여해 도심 포교당을 분원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살이나 자자와같은 여법한 계율에 대한 적극적인 법회의식이 정신적인 버팀목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3 :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생명나눔운동으로 장기기증운동의 확산이 예상됩니다. 종단의 제도로 생명나눔운동을 확산시켜 생명의 존귀함과 생명살림의 공덕을 넓혀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성 스님 : 꺼져가는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보살행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 입장에서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지만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런 제도적 장치를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지수화풍 공의 상태로 가기 이전에 대사회적으로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런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시신기증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갈마 정신이 선거제를 어떻게 포용할 수 있나

김호성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질문1 : 심의 횟수를 두 번 세 번 거듭한다는 것만으로 호계원이 갈마의 현대적인 응용 계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갈마는 정치적 성격을 갖지 않는 종교적 의례였는데 호계원에서는 교단의 정치적 행정적 힘을 둘러싼 분규같은 범계 행위를 다룰 때, 정치적 성격을 갖는 사법적 행위가 됩니다. 호계원 제도 외에 이런 범계를 종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절차나 방식, 기구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경성 스님 : 종교적인 의례로 전원합의 전원찬성이라는 갈마제도가 호계원법에 온전히 이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호계원 제도로서는 모두가 공감하기 어렵기에 중앙종회라는 상위의결기구가 있습니다만 역시 하나로 뜻을 엮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로회의를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의 여법한 갈마를 통해 아직 정신적인 계승 부분이 충족되지 않은 첨예한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해관계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로회의는 부정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중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 종단제도가 율장 정신에 맞춰 수정해야할 과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따르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2 : 율장정신에는 '화합정신' 외에 좀 더 다양한 정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권력에 대해 방하착하는 '출가정신, 탈권력 정신'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만장일치의 정신 제도를 어떻게 계승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고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 권력추구자들의 페어플레이를 위한 제도인 선거를 갈마 정신이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까요?

경성 스님 : 청정과 화합, 범계자에 대한 배려, 능동적인 지계정신을 율장정신에서 사상적 가치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계율에 대한 의견과 관점을 논의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시각, 이론 등을 정립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시급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출가정신 탈 권력정신은 대중을 위해 수행 봉사한다는 정신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마에서는 만장일치를 주장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승단의 모든 제도가 확장되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페어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건전한 선거제도를 통해 다수의 동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3 : 발표문에서 '소승의 형식적인 계율' '소승불교' '소승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분율을 전적으로 소승계라고 지칭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경성 스님 : 소승계, 소승불교라는 것은 대승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악을 그치는 지지계를 수행 않고 작지계인 대승범망계로 뛰어넘거나 집착한다는 것은 1층, 2층이 없는 3층 누각을 지으려는 처사와 같습니다. 지지와 작지를 수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비와 이타를 동시에 구현하는 보살도라고 생각합니다.

Wellbl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캅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캅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茶에 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 여가지의 茶

쉬영보이, 개명기념 인삼오룡 금품 2만원 한정판매

보이차 전문점 '갈로수'가 '쉬영보이'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4-10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 FAX 02)737-0855 / H.P 017-411-0882

www.familydoctorbooks.com *주소창에 한글로 패밀리닥터를 치세요.

담당의와 우리가족 주치의 BMA 세브란스 패밀리닥터의 협진 시스템

어떤 병이든, 패밀리닥터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영어 · 독일어 불어판에 이어 2005년 드디어 한국판 출간

치료를 위한 지침서로
예방을 위한 안내서로



BMA 영국의사협회 지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편역

BMA 세브란스 패밀리닥터

증상발견부터 예후까지 질병치료의 전 과정을 세계적 권위의 영국의사협회 전문의들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우리시대 최고 명의들이 도와드립니다.

연세의대 교수들이 영국의사협회(BMA)가 펴낸 책들을 한국 실정에 맞게 고치고 보가... 질병의 증상, 진단 검사, 치료, 예후, 간호법 등을 정리 – 조선일보

초대형 건강서적 '패밀리 닥터 시리즈'... 가장 큰 장점은 환자가 이해하기 쉽다는 것... 또 병의 예방과 조기진단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 동아일보

질병의 발생부터 치료가이드까지 친절하게 소개... 환자의 눈높이에서 치료와 부작용, 환자의 선택과 대안까지 완벽한 매뉴얼을 지향하고 있다. – 중앙일보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의사협회(BMA)가 30여 년에 걸쳐 펴낸 이 시리즈는 '3분 진료'의 장벽을 넘기 위해 주요 질환별로 환자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 경향신문

투병 중인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는 치료를 위한 지침서로서, 일반인들에게는 질병예방과 조기진단을 위한 의학 정보서로서 손색이 없다. – 한겨레신문

암, 당뇨, 고혈압 등 대표적인 성인병은 물론 요통, 간질, 우울증, 천식, 파킨슨병, 거식증과 폭식증, 스트레스, 간방증과 치매, 자외선과 피부암, 불임 등 한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 분야별 전문의들이 의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와 치료법 등을 반영해 쉽고 상세히 설명한 일반인용 의학총서다. – 서울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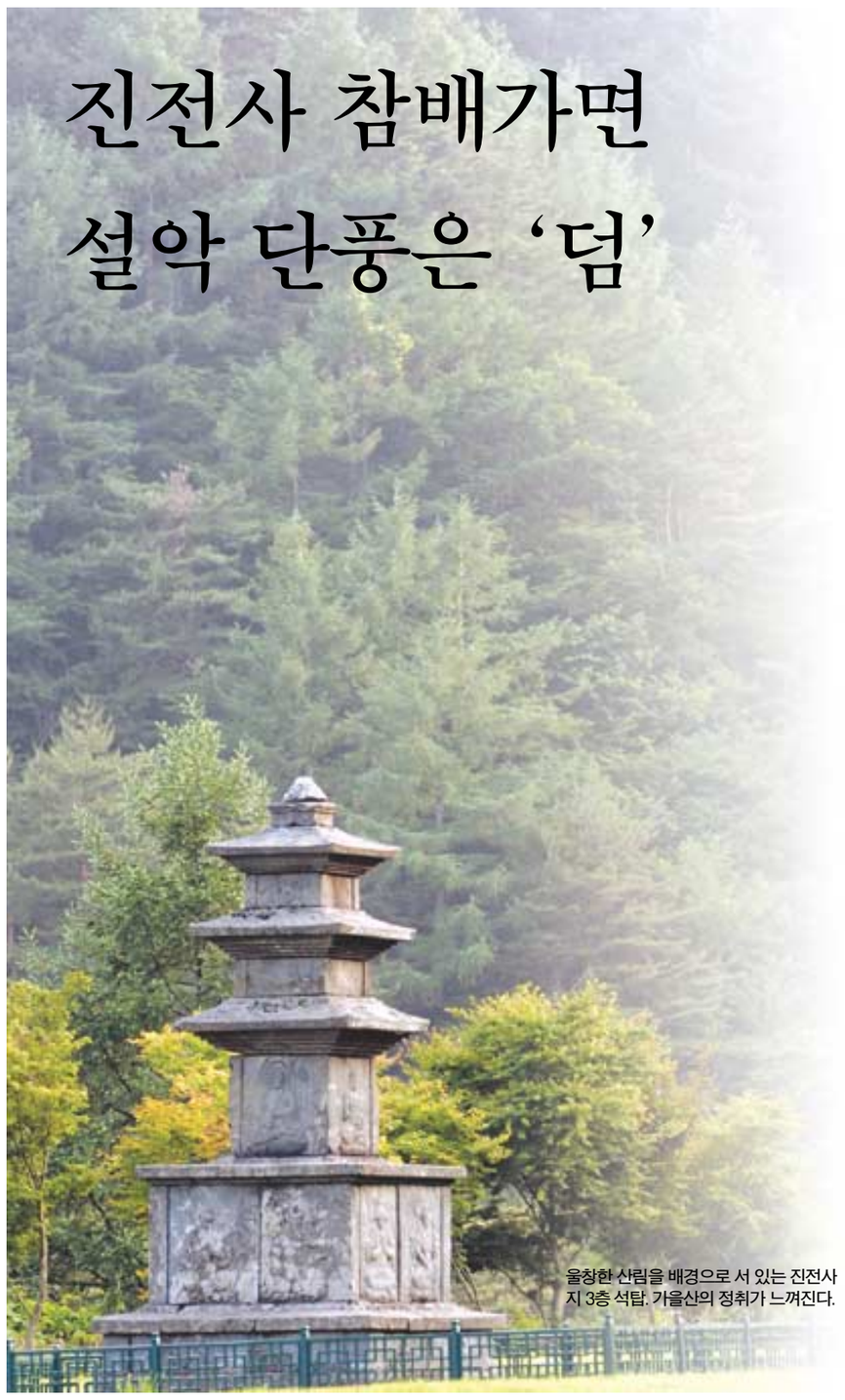
| 판매처 | 연세대학교 신촌 · 영동 세브란스병원 및 대형 병원, 전국 유명서점 및 인터넷서점, 대형 할인마트, 도서출판 아카데미아
▶ 100권 기획 50권 출간 | 계속 출간됩니다. ▶ 각권 12,000원 | 낱권으로도 판매합니다.

질병치료는 물론 예방과 조기진단에 대한 작은 투자로 치유를 앞당기고,
질병발생과 그에 따른 치료비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영국의사협회 지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교수진 편역
국변형판(140×194mm) | 전면컬러 | 고급양장 | 120~228쪽 | 각권 12,000원
문의전화 02)576-0922

도서출판 아카데미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16 | 전화 576-0922 | 팩스 577-8091 | E-mail · academya@korea.com | www.academya.co.kr

진전사 참배가면 설악 단풍은 '덤'



울창한 산림을 배경으로 서 있는 진전사 지 3층 석탑. 가을산의 정취가 느껴진다.



지난 6월 열린 진전사 복원 낙성식에서 불자들이 기와를 봉정하고 있다.



불을 밝힌 진전사 대웅전과 요사채.

붉게 물든 산하(山河)가 행락객들을 유혹하는 가을이다. 화려한 수목들과 대화하며 산에 오르는 것은 가을에만 만끽할 수 있는 특권. 물론 시기와 장소를 잘 선택한다면 그 즐거움은 배가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특권을 더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설악산 진전사다. 진전사는 설악산에서 승용차로 불과 15분여 거리에 위치해 있어 가을산을 보고 사찰도 참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명소다.

전국 최고의 단풍을 자랑하는 설악산에 위치한 진전사는 구산선문의 하나인 가지산문을 연 도의국사가 주석했던 사찰.

도의국사는 명실상부한 조계종의 종조(宗祖)로, 통일신라 시대인 서기 821년(헌덕왕 13)에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서라벌로 돌아와 법을 널리 폈던 대선사다. 특히 도의국사는 유학 당시 육조 혜능의 법을 계승한 서당 지장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귀족적이면서 교학에 익숙한 당시 불교계 분위기속에서 도의국사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는 선종 고유의 가르침을 펴보지도 못한 채 진전사에서 주석하면서 후학들을 지도했다. 도의국사 이후 일연 스님이 입산해 깨달음을 얻기도 했다.



보물 제439호 도의국사 부도탑.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산 37번지에 위치한 진전사는 9761평 부지에 20평 규모인 대웅전과 42평의 요사채로 꾸며져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대웅전은 영주 부석사 등 고려시대 불교건축물을 참고해 주심포양식의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이뤄졌다. 또 현지에서 발굴된 기와 모양과 문양을 재현해 기와를 올렸다.

요사채는 정면 7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양식. 진전사에는 또 국보 제122호로 지정된 진전사지 3층 석탑과 도의국사 사리를 안치한 보물 제439호 도의국사 부도탑 등이 있다.

진전사 주지 마근 스님은 "진전사는 조계종을 상징하는 곳"이라며 "아직 복원 불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완전한 사격(寺格)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조계종 종찰(宗刹)을 찾아 참배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20일이면 설악산 단풍이 모습을 감춘다고 하니 지금부터 떠날 준비해야 할 듯.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인근의 신흥사와 낙산사를 찾는 것도 좋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찾아가는 길

- 영동고속도로-강릉-양양방면-양양 장산리-석교리-둔전리
- 중부고속도로-홍천IC-인제-속처-양양물치-장산리-석교리-둔전리
- **문의:** 일도 스님(진전사 총무) 011-545-2375

게시판

어린이 불교생태학교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10월 22~23일 양평 용문사, 생태농장 '초록향기'에서 '어린이 불교생태학교 용문사 가을캠프'를 연다. (02)720-1654

낙산사 음악회 양양 낙산사는 10월 15일 오후 6시 보타전 특설무대에서 'KBS강원 산과 꿈, 희망의 음악회'를 개최한다. 김종서밴드, 문희준, 슈가 등이 출연할 예정. 18일에는 '강원예술고 감사와 사랑의 음악무대'도 진행한다.(033)672-2447

미황사 괘불재 해남 미황사는 10월 15일 오후 1시 경내에서 괘불재는 봉행한다. 괘불재는 보물 제1342호 미황사 괘불을 봉안하며, 판소리 공연, 수륙천도재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061)535-2706

B4면 상식 퍼즐 정답

회	암	사	지			
광			화	과	자	
반			자		비	
조	실				수	
	상				관	우
	사	방	치	기		정
				식	탐	

전시



동글동글 동자의 얼굴을 아기자기하게 표현한 이재순 作 '동불'.

전통미 배인 현대의 숨결

대한민국문화재조각회展 19~25일 공평아트

청명한 가을에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불교조각의 세계로 빠져들어 보자.

대한민국전통문화재조각회(회장 한봉석)가 제9회 대한민국전통문화재조각회전을 10월 19~25일 서울 공평아트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80여명의 회원 가운데 58명의 회원이 작품을 출품한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전통에서 탈피해 보다 현대적으로 미화된 조각'에의 도전이다. 8회까지는 주로 불상과 불교조각에 포커스를 맞춰왔다. 그러나 올해는 보다 현대적인 조각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상호를 드러내지 않은 채 단아한 나뭇결로 광배와 입상을 표현한 조병현씨(지정문화재 조각기능 671호)의 작품 '여래', 거친 자귀(나무를 깎아 다듬는 연장)의 흔적을 그대로 살린 박찬수씨(중요무형문화재 108호 목조각장)의 '어머니', 부드러운 선과 거친 화강암의 질감이 드러난 이재순씨(지정문화재 조각기능 1227호)의 '동불(童佛)',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하만호씨(지정문화재 조각기능 1886호)의 대리석 '비천상' 등은 현대의 숨결이 전통의 바탕 안에 고스란히 배어난다.

한봉석 회장은 "이번 작품전은 지난 5월 개최했던 '불사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아름다움' 세미나의 연장으로 봐도 좋다"며 "어려운 형편에도 꾸준히 작품을 출품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의 좀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02)733-9512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박찬수씨의 '어머니'.



조병현씨의 '여래'.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담소원(談笑園)

쑥과 창출, 석창포, 박하 등으로 만들어진 천연쑥향 담소원은 지필 때 발생하는 기운이 실내의 공기를 정화시키며 강력한 살균, 살충작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준다.

쑥에 포함된 성분은 피를 맑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도와 주고 부인병, 냉증, 비염, 폐결핵의 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탁월한 힘을 발휘하는 기능성 향이다.

가격은 1만 2000원.



밀납양초 (Bees Candle)

2005年 新製品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개발중 이번에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밀납초의 특징

① 그을음이 없습니다.
② 연소 시간이 일반양초 2배이상 길어집니다.
③ 연소 되면서 벌꿀향이 은은히 실내를 가득채워 실내공기를 정화 시킵니다.
④ 지금까지 양초에서 발생하는 내음새 그을음을 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
⑤ 토종벌집에서 추출한 밀납이니 순수한 우리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하시여 양초도 선별하여 사용하십시요.

- 1호 59中 × 18cm 約 연소시간 72시간 以上
- 2호 59中 × 13cm 約 연소시간 50시간 以上
- 3호 47中 × 14cm 約 연소시간 30시간 以上
- 4호 47中 × 9.5cm 約 연소시간 24시간 以上
- 밀납초 받침대 1호 ~ 4호까지 사용
- pc컵초 7시간 以上
- 선물용 세트 (1 ~ 4호 밀납초 받침대)



야광 용초
뒷줄 6개 = 10-1 70中 × 35 cm
앞줄 5개 = 10-2 56中 × 26.5 cm
그 외 모든 양초 제조 판매합니다.



※ 팩스로 주소 보내주시면 견본이나 팜플렛 보내드리겠습니다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찬덕 연등제작사

현대불교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최고의 품질과 기술을 보장합니다

대 표 김 기 찬

임 직 원 일 동

- 비단등
- 팔모조립등
- 황금등
- 만월등
- 종등
- 영가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

현대불교신문 창간11주년을 축하합니다

공익법인 韓國六壬學會

www.taotemple.net



총재 **효사** 성심

역학문화를 선도하는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한민족의 근원적 사상인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철학사상을 담고 있다.
천지인동근(天地人同根)이요
천지인 일체(天地人 一體) 즉,하늘과 땅과 사람은 하나임과 함께
육임가(六壬家)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주체임을 나타내고 있다.
원형은 하늘,정사각형은 땅(지구), 가운데 직선은 인간(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제사장)을
나타내며 예언자로서의 복(卜)과 예언을 청하는 뜻의 점(占)이 어우러져 있다.

☎ 02)993-8680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호



聖鐘社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 본사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02)733-6141 / 팩스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ungjongsa.co.kr
- 대표 : 범산 원광식 (인간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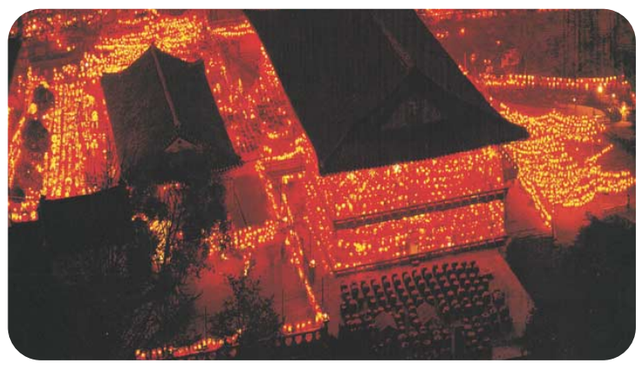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불제대원기업 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등간격

22cm,30cm,50cm,
1M,2M,3M,5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 불제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휠라멘트가 6배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사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건전지용 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정품)

법당등(궁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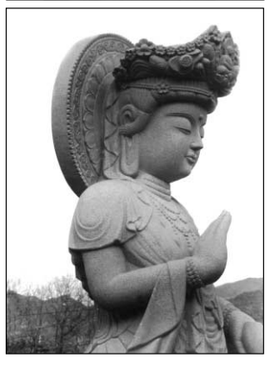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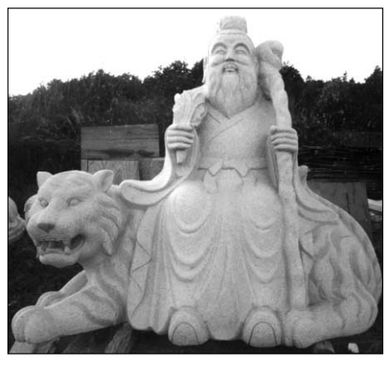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한국불교출판의 미래와 함께 하겠습니다

불교서적 총판 법 우 당

현대불교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임직원 일동

서울시 강북구 수유 6동 524-58번지
전화 02)999-8315.8316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서울, 경기, 경남, 전남, 충남지역(시가 50억 전후)
매매물건 보유, 꼭 필요 하신분만 직접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며 대리상담은 사절합니다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부산큰사찰 급 구함
2. 대구목조사찰 500평-16억
3. 칠곡사찰 500평-1억3천5백
4. 경북관광사찰-12억
5. 평창3만평사찰-7억
6. 종로구여법한사찰 30억
◆ 1억~10억 사찰, 사찰터 많음
※ 직원, 공양주, 기도스님 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급)안내

• 위치: 양산시 웅상읍(일명 서창)
• 대지: 60평(평당 200만원 이상)
건물: 법당 30평, 요사 32평
칠성각 5평(신축 단청필)
• 가액: 2억6천(은행 9천포함)
• 특징: 부산시내버스 5개노선
울산시내버스 2개노선
신도시 요충지

011-868-5997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4층건물 2층내),
법당1,방2개,후원1개,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 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 1천 5백만원
• 모든시설완비. 바로 법회 가능함

017-269-2629
032)517-3001

도심포교당안내

• 위치: 밀양시 교동
시청주변
• 대지: 310평
• 건물 3동, 3층건물 1동
단청 슬라브 기와 1동
별채 1동
• 가액: 6억 5천

010-4876-5535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군청 소재지
• 땅 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18평 외 미륵불
• 요사: 23평, 용왕전
• 급매 1억2천, 약수물
• 위치 : 영월
• 부지 : 만평
• 법당 : 25평
• 요사 : 100평
• 가액 : 6억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원 안내

• 위치: 상계역 2분거리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내 위치
• 2,3층사용 보증금 1천만원
월 1백만원 / 2층만 사용시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2층 40평 3층 20평
• 삼존불 모셔져 있고 시설완비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시설비 약간

02)952-8131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하단동
• 법당 30평
요사 20평
부지 73평
• 가액: 1억8천만원

010-8955-5535
055)338-3020

사찰안내

• 위치: 서울 성북구 정릉4동
• 건물: 약40평(인법당)
• 법당: 18평, 부지: 약 300평
• 단청 있으며 전망 좋음
• 가액: 2억9천

02)918-1215
016-237-3006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경계
• 건물(조립식)
대지 200평, 법당 25평
요사채 10평,
부속창고 20~30평
총 1600평
• 심야보일러 130m암반수
• 가액: 1억5천(절충가능)

016-9559-8889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시내
• 부지: 850평
• 법당: 20평
• 요사: 40평
• 양도가: 8억
• 산세 계곡좋음

• 위치: 경기도
• 부지: 120평
• 법당: 20평
• 요사: 40평
• 양도가: 4억5천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천호 4동 암사역 2분거리
대로변 변화가
• 평수: 48평(5층 건물중 2층)
• 시설: 사존불외 집기일체
후불탱화, 방2칸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즉시법회가능

010-7324-5115

포교당안내

• 위치: 인천 서구 가정동 부근
• 3층 건물에 3층 70평
법당30평, 주지실, 사무실,
총 방5개, 참선방 4칸,주방, 욕실,
화장실 3개(실내외)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세66만원,시설비25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9969-9895
032)572-750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376평, 전: 156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전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 총 602평에 대지 402평,
대웅전 33평(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7층석탑.
※수행과 포교에 적합
• 가액 : 7억 3천만원

011-9411-5302

포교당안내

•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 근교
• 대지: 3천평
• 법당: 20평
• 요사: 20평
• 가액: 2억
• 산세좋은
수행도량 암자

• 위치: 양산
• 대지: 280평
• 법당: 20평
• 요사: 30평
• 가액: 3억5천
• 조용한 시골 암자

• 위치: 청송 보현산
• 대지: 1,400평
• 법당: 30평
• 요사: 25평
• 가액: 5억
• 기가막힌 계곡,
버스진입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1)581-1599, 018-563-9575
대길부동산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포교당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37평 건물중 3층
(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 답사후절충 (집기일체)

019-656-2766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창녕
유어면 진창리
• 대지: 150평
법당: 목조 12평
요사채: 25평
입식주방, 욕실, 교통편리
• 가액: 8천3백만원

016-652-7547

사찰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학교 부근3층건물의 2층
• 법당 23평, 전체 43평 방3개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010-7188-5612

암자(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대구,진주고속도로 공사중)
• 대지 100평.
• 건평 : 본채, 요사채, 방4개,
입식주방, 욕실2개, 창고1
• 합천읍 5분거리, 50호 촌락
• 가액 : 5천만원(절충가능)

055)932-9917

토굴(급)안내

• 위치: 단양. 새집 양도
• 대지(전포함) 839평, 집 20평
• 경관수려 A급, 전망최고
도로, 전기, 시설 되있음
• 부분 매매 가능. 가액 6500만원
• 혼자 계실분 적합

010-6460-1316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 평수: 860평
건평: 30평
• 조경완벽 앞에
바다 뒤는 산
• 가액: 1억3천만원

010-4571-0128

사찰안내

• 건평 60평, 1,000만원
보증금, 월 40만원
• 내부시설 황토로 되어있고,
전통좌욕기 쑥뜸시설 완벽
환자치료한 스님은 더욱
좋습니다.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33)631-4831

토굴터안내

• 위치: 경북 군위 우보
• 평수 169평. 건물 1동
다용면적 100평
• 가액: 3천8백만원
• 배산임수 명당절터
마을맨 끝집

011-9585-4908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남일면
• 법당 요사채1동 방3개
• 가액 : 5,000만원

010-9537-0108
043)296-4480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시 원주시근교
원주버스터미널에서 10분거리
서울에서1시간거리
• 종교부지800평외 320평사용
적멸보궁20평 대웅전30평
산신각 미륵대불 3층불보탑
진축요사채50평(심야전기보일러)
(진입로포장완료)
• 정남향 산세수려 한도량 30년사찰
건강사유로 양도함
• 가액: 4억9천만원(절충가능)

011-361-0516

암자안내

• 위치 : 구미시 옆 칠곡군
약목면 소재
• 임범당, 정원 밭. 350평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년 4350만원, 양도도 가능
양도가 1억

017-813-9126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 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042)274-0108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 종교부지 750평,
대웅전 30평
요사 2동
• 주차장 완비
• 가액: 답사 후 절충

055)962-7401

사찰 안내

• 위치 : 의정부(대로변)
• 대지: 56평
건평 21평
(조립식주택)
• 가액: 답사후절충

010-4343-311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 2층 법당 44평
3층 후원 41평
총 85평
• 가액: 전세 2억
시설비, 권리금 없음

011-9912-7576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30만 신도시
지하철2분거리
• 평수: 100평, 시설최상급
• 가액: 보증금 1천5백만원
월 130만원
• 특징: 10년 운영중
(불교교양대학)
시설비 절충가능

011-9904-6957

토굴안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 대지 200평(텃밭 포함)
건물 3채, 45평(임법당),
요사채, 후원(창고)
• 가액: 4천만원
• 기도와 수행에 뜻을 두신분

017-401-4939
063)631-8439

포교당 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내
3층건물중 3층
• 옥상 및 휴게실 사용
• 평수: 50평 법당: 24평
삼성각, 상담실, 대중방, 주방
• 가액: 전세 2천5백만원
시설비 1300만원
일년월세 600만원, 사용가능

011-679-1080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2천만원 포함)

019-503-7959

사찰 안내

포교당(굿당)

• 위치:지리산 요지
(산청군)
• 건물 300평 매매
• 가액:2억6천3백

017-592-3902

사찰부지안내

• 위치 : 전북 완주군 소양면
• 임야 2만3천평(일부 田)
• 도로인접
• 평지 5천평
(전주시에서 10분거리)
• 가액 : 평당 1만5천원
*계곡, 경관 좋음

011-681-6927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연재구
연산동 지하철 옆
3층건물 모두사용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답사후결정

016-504-3276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관련 전문
대출 기관

• 사찰 매매 잔금 대출
• 불사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재무부인가 제 9-205호
「대구」보현사신용협동조합
문의전화 053)426-1037
전문상담 : 서서열 전무
011-527-1037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인계면 부근
• 땅 2,312평, 대웅전 20평,
사시각 5평, 요사채30평
행랑채, 차고
• 가액 : 상담 후 결정

033)562-7053
011-793-705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가야면
• 대지 : 300평
건물 : 법당1동, 요사채2동
다용도 40평
• 특징 : 남산 제1봉, 등산로 입구
• 가액 : 보증금 300만원,월10만원
비품시설 800만원
• 즉시법회 가능

010-5514-2412
055)931-7280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상가건물 2층에 2층
평수 : 33평
• 가액: 전세 4천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1-9956-2877
02)909-2534

사찰겸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부천역사 2분거리)
•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연립 5층의 2층 30평
• 법당1개,큰방2개,거실,욕실,
도시가스(살림해결), 금불상,
삼존불,법단2단 목조각
• 가액:보증금 1천만원에 월 55만원
시설비 6백만원, 주차가능
※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보시는 분 적합

011-650-8481

사찰 안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 20분거리)
• 대지: 200평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목조)
부속건물 18평, 11평
• 옥천읍 5분거리에 270호
촌락의 산자락에 자리한 작고
아름다운 사찰로써 완벽하게
가꾸어졌음
• 가액: 1억2천만원

011-9405-818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인천지역
• 평수: 30평. 3층건물 3층
• 옥상 50평 사용가능
법당, 방, 베란다, 후원 완벽함
• 주변에 절이 없으며
약 10만세대 입주예정
포구에서는 배 300척 있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몸만들어오시면됨

010-7181-7569

사찰, 법당, 앰프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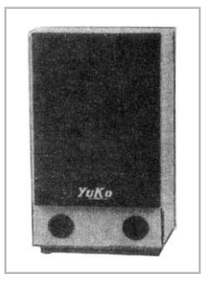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
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아이들이 사랑받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삼성카드 '사랑의 펀드'와 함께 나눌수록 더 커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만나 보세요. 가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름다운 꿈을 포기하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향해 삼성카드가 대한민국의 푸른 싹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사랑의 펀드'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후원 분야 : 백혈병 어린이, 결식아동, 빈곤아동, 학대아동, 미숙아 사랑

삼성카드 홈페이지 내 푸른 싹 키우기 캠페인을 클릭하신 후 카드 결제 및 보너스포인트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더 행복하게 –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kr

삼성카드 사랑의 펀드란? 2003년부터 신용카드 회사 최초로 시작한 사회공헌 펀드로 기존의 모금운동과는 달리 고객과 삼성카드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펀드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5년 9월 현재 모금액이 2억 원을 돌파, 사회공헌펀드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카드 SAMSUNG

한 해 농사 잘못 지으면 추수해들일 게 없어

우리는 인간이라는 고등 동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중세계에서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한테 종종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허나 우리가 열 번을 하고 백 번을 해도 그게 감지가 되지 않는다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믿을 수가 없고요. 이름만 그냥 '주인공' 이렇게 부르면 되는 줄 알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불이 들어오게 코드를 꽂아야 할 텐데 똑바로 코드를 꽂느냐 못 꽂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똑바로 꽂아야만 불이 들어와서 한 방에서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도 다 환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드를 제대로 꽂질 못하고 이름만 부르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짧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부처님도 계신 거지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종종 해 드렸죠. 그러나 그뿐입니까? 태어났다면 우리가 먹히고 먹고, 짐승들이나 곤충들이나, 또 인간 자체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모두가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뺏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뺏기고 잡아먹히고, 뺏기기만 하면 좋은데 잡아먹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훌렁 나자빠지죠. 이러한 문제들을 볼 때에 곤충에서부터, 짐승들로부터 인간까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모두 아주 극난하게 허우적거리고 살얼음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생 나와서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그 점을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고기들이 물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죽듯이 우리도 역시 물주머니에 갇혀 있으면서 그 물주머니에서 서로 잡아먹고 서로 빼앗고 서로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야 어찌 '이 물주머니에서 벗어나야만 너희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 안 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한 치도 거저가 없고 에누리도 없고 자유도 없고, 이러면서도 극난하게 뺏기고 뺏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한 번쯤 넓게 생각을 하고, 좀 더 깊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극난하게 헤매다가 한 철 나기 전에 알아야 할 이 문제를, 한 철이 나고 세세생생에 뒹굴면서도 아예 몰라서 그 물주머니를 벗어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먹고 사는 게 뭐길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속의 생명들을 위해서 먹어줘야 하고, 또는 내 몸뚱이가 집합소가 돼서 그 안에 따뜻하게 살게 해줘야 하고, 심부름도 해줘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뚱이가 나냐고 하신다면, 모두 내가 아닙니다. 가짜 나도 아니고 진짜 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같이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산다, 더불어 같이 먹는다,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대로 곤충 하나 빼놓지 않고 풀포기 하나 빼놓지 않는 그러한 한마음이 되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도 혹성이라고 하고 우주라고도 할 수 있는, 은하계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그 몸뚱이 하나에 생명들이 헤아릴 수 없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하나를 잘못 생각하면 전체 생명들이 그 생각을 따라서 잘못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잘 생각을 한다면 전체가 따라서 잘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머리를 만들어놓고 한생각이 대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소뇌도 있지만 중뇌에서 책정을 해서 사대(四大)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통신을 해서 모두 일체가, 공장 공장이 다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우주의 한 덩어리라고도 볼 수 있고, 한 블랙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 샛별 세계라고도 할 수 있고, 은하계라고도 할 수 있고, 위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체가 한생각에 의해서 모두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한생각을 잘못한다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잘못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체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돼서 악업 · 선업 · 영계성 · 윤회성 또는 인과성 · 세균성 이 모두가 한데 합쳐서 모두 살고 있고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말을 했죠. 오신통이 지금 시쳇말로 한다면 컴퓨터와 같다고요. 자동적인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고요.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입력이 됨으로써 현실에 자꾸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오는 자체를 가지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다고 오산을 하고, 자꾸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속고 있습니다. 그건 의식 속에서 입력이 돼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각자가 생각할 때에 이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잘되는 건가, 이거는 한 찰나에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렇게 대해줘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면서도 그냥 행합니다. 그렇게 행하면 그대로 그 의식을 따라서 다시 차곡차곡 입력이 되니까 여기에서 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너만이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고, 너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너만이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네 몸뚱이를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갈 수도 있고,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주는 것도 너뿐이다.' 하고 모든 것을 거기 맡기고 해라. 그렇게 되면 그 컴퓨터에 입력된 게 과거에 입력된 것은 나오는 것이 없어지면서 새로 입력되는 게 들어가면서 새로 생각해서 넣은 것이 새로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은 절에 가면 손을 꼽고 기도하고 빌고, 나한테 에너지를 달라고 하고,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병 낫게 해달라 그러고, 해달라고 그러는 데서 그만 공덕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광대해서 부처님 마음과 일체제불의 마음을 한데다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진리가 그러하니까 그대로 하시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마음공부를 안 한다면 정신계로부터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빈집이 되고, 빈집이 됨으로써 물질계에서만 허덕거리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허탑하게 지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볼 점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인간이 어떻게 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는데, 이 일체 만물이 어떻게 해서 움죽거리고, 어떻게 해서 서로 사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서로 이렇게 모두 눈에 보이지 않게 모두 살고 있나, 하다못해 돌 한 쪽까지도. 인생이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닐까요?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주인공한테 왜 '너'라고 하는가? 내가 '너'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또 감사재를 지내라고 했더니 이건 고사 지내는 것과 같은 게 아니냐? 또 이 잘못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질문해왔고요. 또 부산에서 설법할 때 부처님을, 부산에서는 모두 각각 집집마다 모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을 각각 집집마다 모시는 게 어떠하냐고 질문이 들어왔고요, 또 병원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한해서 방편상 내가 먹는 약을 줬습니다.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한 식구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을 때에 그 강박감과 허탈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로 채우겠습니까?


그림 · 최주현

이 한 생 동안에 배워서 익히고 깨달으면 세세생생 그대로 자유인이니라!

만약에 그렇게 와서 급하게 닥치면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부터 종잡아서 가라앉혀놓고 관하게끔 만드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또 그 사람들이 80%는 나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그러면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녀들한테나 부모들한테나 형제들한테나 말입니다, 그냥 살다가 갑작스럽게 별안간에 형제가 뭐 몹쓸 병에 걸렸다고 그냥 대번에 와서 하니 그 사람 자체가 그릇이 만들어져야 서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깃불을 들어오게 하려 해도 가설을 해놓고 전기가 들어오게 만드는 법인데 하물며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이것이 제삼자가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불이 들어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또는 나쁜 사람이 된다고 그러는데 나쁘게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부모네가, 50%, 60%는 부모네한테 달렸다고 봅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취미가 없어지는 것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도 이거 부모가 상식적으로 챙겨줘야 할 문제들을 모두 못 챙겨주고 있는 것을 내가 아주 눈으로 선연하게 봅니다.

첫째는 애들이 공부를 할 때에 너무나 그 강박감이 어깨를 누르고 스트레스가 되고 떨리고 무겁고 이러니까 힘이 빠지고 의욕이 생기질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는 애들도 피로회복제를 한 알씩 꼭 먹여야 되고, 종합비타민 하나씩은 꼭 먹여야 된다 이건 상식입니다. 몸뚱이는 어디까지나 심부름하는 집입니다. 집이 한군데 어디가 허술해지면 기울어집니다.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고 남편이 부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건 서로 간에 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주인공에 맡기고 마음으로써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지, 육신이 먼저 움죽거리면서 마음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일체 만물이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돼서 통신이 되고 해서 살아나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자식이다 부모다 이러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설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이 됐으면 내 주인공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하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으로써 부드럽게 다독거리고 대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만이 아이들도 안도감을 갖고 진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떨리지도 않고 여여하게. 그런 건데 "야! 이…." 어쩐 집은 "요놈의 새끼야! 너는 배울 시기에 배우지도 않고 만날 잠만 자고 놀러만 다니고 요놈의 새끼, 밥 바가지 차기 똑 참하다." 요러고 홀쩍 돌아선다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공부해! 공부해!" 하고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길 해도 열 번 이상 들으면 싫증이 나고요, 아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여러분도 그때를 지내보셨으니깐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층 더 합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자기 그릇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그 사람 그릇을 좇아가주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면 자식도 그렇게 따라갈 것이고, 부모가 그렇지 못하면 자식도 그렇지 못하게 따라갈 것입니다. 그게 자식이 아니라 즉, 자깁니다. 즉, 자기예요. 2세, 자기. 그런데 자기가 모자란다고 하면 뒤를 돌아다보고 앞을 내다보고 이끌어야 하는데, 자기는 돌아다보지 않고 그냥 걔 차원에서 그냥 막 내뜨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가친척이라도 그렇고 친구라도 그렇고, 사업을 하면 직원이라도 그렇고, 또 공장을 하면 공장 직원이라도 그렇고, 자기가 하는 대로 그 차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 마음, 한생각을 내는 데 잘 내게끔 이끌어주는 선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홍보입니다. 가정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렇게 한생각을 잘 내는 게 아주 중요하죠. 어떤 분이 공장을 하는데요, "스님!" "왜 그래요." "공장에서 자꾸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데?" "직원들이 손가락도 부러지고 손목도 다치고 일이 왜 그런지 이익이 남질 않고 자꾸 그런 데로 돈이 빠지고 도저히 이거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지 그래. 그 기계도 말이야, 새로 들여놓은 기계도 그렇고 모두가 한마음으로서 한 주인이 모든 것을 운영을 하는 거라고 한번 진짜로 믿고 생각해 봐."

그리고 감사재라는 것은 화목재라고 생각하라, 화목재. 초하루나 보름에 떡을 해서는, 떡도 요즘은 맛이 없어요. 모두 먹을 게 많아서요. 그러니까 기증떡, 왜 저 보풀보풀한 거 있죠? 그런 걸로 한 서너 조각 큰 것 해서 그냥 물 한 그릇 떠놓고 향, 초 켜놓고선 그냥 그저 우리가 한마음으로서 기계 하나도 빠짐없이, 하다못해 사람의 마음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한마음으로서 구성돼서 우리가 모두 제일로 '주인이 하는 거니까.' 하고 감사재를 지내고 화목재를 지내고 화목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나누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런다면, 껄쭉껄쭉했던 마음도 녹아지고 같이 화합이 됨으로써 운영이 잘돼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일같이 하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넉넉히 베풀고 말입니다.

또 그 가운데 돈이 생기면,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는 것을 전부 알게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조금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을 좀 보태주고 이렇게 해나가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3년이 됐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지 모릅니다. 단합이 돼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째서 고사입니까? 화목재지. 이것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마음이나 똑같아요. 하다못해 기계에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사람이나 말하고 그러는 줄 알지만 하다못해 풀포기도 말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공장 안에 기계가 돌아가고 그러는데, 또 사람이 출납을 하고 모두 가지각색으로 여러분이 다 분야마다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히 안 된다고 할 때 그런 걸 일러줍니다, 화목재로 지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네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 스님이 고사 지내란 말도 없더니 왜 저렇게 고사를 지내래나?' 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여러분이 똑똑하고, 얼마나 잔재미가 없고, 얼마나 화목을 도모하지 못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화목재지 어떻게 해서 고사가 됩니까? 하다못해 거기에다가 뭐 음료수라도 사다놓든지 맥주라도 한 잔 갖다놓고 같이 화합적인 얘기를 나누고 어떡하든지 같이 해보자고, 어떡하든지 같이 해서 같이 먹고 살자고 이렇게 화목하게 해나간다면 어느 누구가 그걸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럴진댄 아마 귀신의 마음도 그래서 한마음이 돼줄 겁니다.

그러하니 이것은 말을 붙이기에 달려 있는데 붙이기에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크게 사업하는 사람이나 또 상업하는 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데리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바깥에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안에서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해 농사를 잘못 지으면 추수해들일 게 없어요. 그렇듯이 내 자식들의 농사를 잘 지어야 추수를 해들일 게 있죠. 모두가, 여러분도 그렇고.

또 아까 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병원에

☞B20면으로 계속

나 먼저 믿고 나 먼저 알고 나 먼저 깨달아야

☞B19면에서 계속

서 버림받고 나온 사람들, 이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린애가 병원에서 버림받은 것은 몸이나 머리나 이만큼씩 하게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속수무책이죠. 그러면 한 가정에, 여러분이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가정에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그냥 식구가 자나 깨나 나가나 들어가나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는다면 얼마나 그게 불행한 가정입니까? 그 불행한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다가 즐거운 가정으로다 만들어줄 때에 어떠한 방편으로 해야만 그게 즐거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나는 가정이 화목하게 될 수 있고, 슬기롭게 넘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어떠한 거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 그 약은 성한 사람이 먹어도 아무 탈 안 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소박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 80%는 병원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다 낫고 있습니다. 왜냐? 마음이, 저 스님이 저거는 특별히 날 줬으니까 '특별히 스님이 날 주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주신 거니까 나는 정녕코 나을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방편을 안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병원에서 버림 안 받은 사람들은 병원에 다니면서 고치게끔 해주고 또 '병원에 나는 안 가겠다.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걸 재료로 삼겠다.' 하는 사람은 그대로 또 밀어주고,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지, 내가 무슨 그것을…. 내 속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즉시 앉아서 고치시도록 하세요.

또 부처님 모시는 거요. 부산에서 질문이 들어왔고 재차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일본에는 부처님을 집에다 모시고도 정열적으로 거기다가 무슨 기도를 하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밥 먹을 때 밥을 거기다가 먼저 떠놨다가 그냥 내려다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질 않습니다. 그냥 모셔놨다 하면 향 초 켜고 그냥 온통 저녁이면 앉아서들 기도를 하느라고 모두 그냥 거기에 매달린단 말입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하면 사불(邪佛)이 돼요.

사불이 되면 첫째는 부모가 그렇게 하던 거를 자손들이 안 하면 아예 그냥 좋지 못한 현상이 벌어지게 돼 있죠, 사불이기 때문에. 또 둘째는 그것이 사불이 되기 때문에 그저 이력하다가 조금만 안 해도 문제가 일어나고 세번째는 내가 항상 거기에 의존을 하고 지냈기 때문에 공력이라는 건 맛볼래야 볼 수도 없고 자기 깨우친다는 거는 말도 해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구니 소굴을 만드는 거죠. 자기도 마구니가 되고, 또 부처님도 사불을 만드는 거고 세세생생에 이거는 좋은 일이 못 되죠.

그런데 모신다고들 하니 지금 가정에서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며 살기가 얼마나 급급하고 어려운데, 그래서 애들하고 대화할 사이가 없는 집들도 많은데, 하물며 그거를 놓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야만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이 몸뚱이가, 지금 모든 생명을 살리고 있는 집합소인 이 몸뚱이가 바로 내 부처가 아닐까요. 이 부처님 속의 마음이 '일체제불의 마음' 그 노래 부르시죠? 그 노래 부르시다 보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게 그대로 법입니다. 왜 우리는 현명하게 살지를 못할까요? 왜 우리는 부처님께서 '너희는 너 먼저 믿고 너 먼저 알고 너 먼저 깨우쳐야 이 세상의 섭리를, 우주의 섭리를 다 알 수 있느니라. 병풍 둘러치듯 한 이 진리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느니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물주머니에서 벗어나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느니라, 세세생생을 그것도. 짧은 한 생을 보내면서 이 도리를 배우느라고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생 동안에 이것을 배워서 만약에 익히고 깨달으면 세세생생에 그대로 자유인이니라. 내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고 네 마음부터 알아야 내 마음을 네가 둘 아니게 알 수 있느니라.' 이랬으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 우리가 이 도리, 정신계의 마음 도리를 배우지 않는다면 마음을 발전시킬 수가 없고 이 버튼을 누를 때는 정신계고, 누르기 전에 이렇게 갖다가 대기 전에는 물질계예요. 그래서 정신계에서 갖다가 누르면 물질계로 (전구를 가리키시며) 나오죠, 이렇게 불이 보이게끔. 그 차이예요, 정신계와 물질계가. 여러분이 집을 짓겠다고 생각하고 설계를 떠가지고야 집이 올라가지 그대로 집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한생각을, 꿈을 꾸더라도 한생각을 잘 하세요.

옛날에 이성계 얘기 했죠? 꿈 꾼 얘기 말입니다. 꿈이 아무리 나쁘게 생각이 돌아가더라도 '허허! 이거는 나를 공부시키느라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아하! 이게 모두 거기서 하는 일이니 잘되게 잘 돌아가게 할 양으로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하고 이렇게 마음을 돌려서 탁 거기다 놓으면 구정물이 나오다가도 새 물로 바꿔서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건 그림자 같고 빛보다 더 빠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이것저것을 막 바꿀 수 있지만은 물질적으로는 이것저것을 막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전에 바꿔서 나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남들도 홍보를 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진로를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부잔데도 가난한 사람 또 정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그렇게 하세요.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북하면 몸을 뒤틀고 못 쓰는 사람 또 단전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가정 파탄이 나고 모두 못 살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한 집이라도 알게 하면 좋은 일인데, 정말이지 이 공부를 여러분이 하면서 얼마나 좋게 사는지 나는 그거 생각만 하면 흐뭇하고 또 내려다보면 '아휴, 모두 나 예전에 모를 때 모습이구나. 저렇게 모자라게 사는구나!' 하고 씁쓸하게 침을 삼키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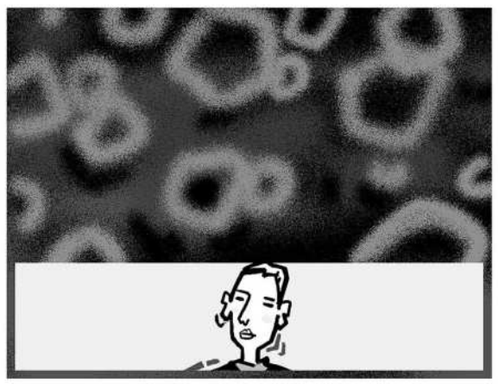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물주머니에서 벗어나야
너희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느니라!

하여튼 그저 하지못하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실천에 옮기면서 생활 자체가 그대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니까, 모든 것은 당신이 있길래 세상이 있고 상대성 원리가 생긴 거니까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래야 입력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들어가면서 새로이 살 길이 생기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말입니다, 때에 따라 곤충도 됐다 짐승도 됐다가 작부도 됐다가, 남자도 됐다 여자도 됐다, 아이도 됐다가 어른도 됐다 늙은이도 됐다가 별게 다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여여하시고 걸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부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이름은 이름일 뿐입니다. 이름은 이름일 뿐이에요. 너라고 한들, 부처라고 한들,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들, 지장이라고 한들, 이름은 이름일 뿐인데 내가 그렇게 말해드리는 것은 자기 중심 주는 자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살던 자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밀접하기 때문에, 너라고 하는 게 더 정답고 더 밀접하게 들어가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긍정적인 진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라고 한다고, 왜 이런 게 있죠. 자식이 귀하면 손주가 귀하고 귀엽고 그러면 "어휴, 요놈의 자식." 그러고서 궁둥이를 쳐주는 수도 있죠. 그게 욕입니까? 그건 욕이 아닙니다. 또 "아! 이 분둥이 같은 놈의 새끼! 왜 이제 왔어?" 하고 그럴 때 그것이 욕입니까? 욕 아닙니다. 이름이 욕일뿐이지 그 속에는 뜨거운 정열이 포함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얼마나 치열하게 믿고 얼마나 밀접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만이,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게 못된 이름입니까? 아주 깔보고 그냥 뭉개는 이름입니까?

자기하고 둘이 아닌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냥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할 때에 문제는 달라지죠. 그거를 알게 되면, 포함해서 알아지게 되면 그때 가서는, 때에 따라서는 참 크나큰, 정열적이고도 크나큰, 뭐 어떻게 갚을 수가 없으리만큼 될 때에, 자기 마음이 스스로서 존경이 되고 스스로서 알게 되고 스스로서 행하게 될 때에 '아하! 이것은 부처님이라고 해도 내 몸뚱이 전체가 네 것이지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사는 것도 없고 내가 하는 것도 없고, 내가 말하는 것도 없고 내가 보는 것도 없고, 내가 듣는 것도 없구나! 그러니 내가 나라고 할 게 하나도 없구나! 어, 그러니까 당신 거야.' 이렇게 되겠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11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깨달음(토통)과 불치병 · 난치병 · 각종암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참선공지도자**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 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 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무량한 功德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 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 체험, 빙의 · 해리 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 천도비법등 신비법 전수.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자비의 손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善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 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現 참선공 협회장

전수반 안내
10월 21일 13:00~18:00 까지
(매주 금요일 12회 과정)

무료공개전수
10월 20일 16:00~19:00

전 수 비
2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천도비법
자비손 치유법
음성 내공법
빙의 · 해리 치유법
칠차원 생명법
전생 치유법
내생 치유법

◆ 교육후 神임상최면사 자격증 · 神치유명상사 자격증 · 참선공 자격증 발급.
◆ 지도자 과정 전수후 사회활동 하실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 · 후원 합니다.

卍신선암 神치유명상센터 神임상최면협회

● 전화 : 02)383-1319/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현대불교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합니다

HYUN DAE BULKYO

한국대승불교 조계종

종 정 김봉진
총무원장 김 부 경 사서실장 성운고

종회의장	황관능	서울종무원장	석지성
원로원장	석무변	부산종무원장	성운고
포교원장	김대공	대구종무원장	한혜봉
기획원장	강법성	광주종무원장	김법장
사정원장	이경담	동부경남종무원장	허 준
문화원장	유무정	서부경남종무원장	황약산
교육원장	조굉송	중앙경남종무원장	이경담
		경북종무원장	최보해
		경주종무원장	지일장

총본산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TEL 055)521-1236, 1286 / 사서국 051)852-3707 / FAX 051-853-5622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방 장 야부초우
주 지 이산현문
부주지 산옹지은

총무국장	문 성	기획국장	오 심
교무국장	보 화	재무국장	혜 철
사회국장	명 현	포교국장	영 랑
호법국장	상 원	원 주	범 철

총림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TEL 055)382-7182 FAX 055)382-7196 www.tongdosa.or.kr

'도심 속 문화와 신앙의 대가람'



주 지 김도원

총 무 엄행주
교 무 윤갈웅
재 무 정도웅
노 전 김갈용
신도회장 김형대

사부대중일동합장

大韓佛教 天台宗 釜山 三光寺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TEL 051)808-7111~5 / FAX 051)803-1332 / www.samkwangsa.or.kr

부산불교회관은 도심포교를 위해 계획 설계된 미래 불교 도량입니다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 여여정사

(부설)신행학교

선원장 정 여
명예회장 김경환
신도회장 이향순

신도회, 동문회, 거사림회, 청년회, 어린이회, 복지회, 합창단,
다도회, 선림회, 참선부, 수림회, 금빛모임,교무위원

■ 여여선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 2동 157-1
TEL 051)853-5486~7 / FAX 051)863-6422
■ 여여정사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TEL 055)355-9290~1

대한불교조계종 신창농장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한나래문화재단

주 지 深 山

홍법사 개원 2주년 기념
지관큰스님 초청법회
일시 : 10월 17일 오전 10시
홍법사 잔디마당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220-1
전화 : 051)508-0345
팩스 : 051)508-6561
HOMEPAGE : www.busanbuddhism.com
E-mail: 5080345@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묘봉산 혜원정사

사회복지법인 혜 원

조 실 고 산
주 지 원 허

고산장학회 / 선지식회 / 자비회 / 만불회 / 지장회 / 관음회 / 연꽃부부회 /자원봉사단 / 선원대중 / 혜원합창단 / 청년회 / 대학생회 / 중·고등학생회 / 어린이회 / 사회복지법인 해원 부설 선재어린이집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산1113-1
전화 051)866-7771
팩스 051)866-7777

대한불교조계종

미륵산 미래사

주 지 여 진
신도회장 김보리성

■ 법회안내
신중법회 : 매월초하루(전체법회)
보현법회 : 매월 음력 초여드레(40-60세)
지장법회 : 매월 음력 열여드레(전체법회)
※ 조계종 원로위원 원명 큰스님 법문
관음법회 : 매월 음력 스무나흘(20-40세)
청년회법회: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전화 055)645-5324

(재)부산불교신도회

(부설)부산불교최고지도자아카데미

회장·학장 공병수

직전회장 류진수
상임부회장 김성림
부 회 장 황진옥 이상률
감 사 김창석 서병흔 이대원성
기획실장 홍정표
사무총장 이욱태
재무총장 황국근
아카데미운영위원장 이숙희

이사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57-1
부산불교회관 5층
전화 051)853-2021 팩스 853-2036

부산여성불자회

자문위원 이영숙,박성빈,백명숙
회 장 왕선자
부회장 이윤목,홍말연,김현숙
총 무 류경자, 하영조
재 무 김지언,박정연
감 사 이경월,이소연
교 화 이복선,이은지,박갑연
운 영 임정숙,김경자,서화영
봉 사 박영옥,김경희,김현숙
장학위원장 홍말연

이사 및 각 지구회장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 5층)
전화 051)854-4166 / 팩스 051)867-8048

나에게 아비라 기도는 (상)

김두만 (부산 광역시 북구 금곡동)

지금 내 차는 백련암을 향해 달리고 있다. 지금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치 못하며 백련암을 찾아가고 있다. 세상살이에 끄달리면서도 때가 되면 백련암으로 달려가는 마음은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부처님 말씀에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만나기 어렵고, 또한 정법(正法)을 만나기 어렵고, 좋은 도반을 만나기 어렵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 이유는 나는 이미 사람의 몸을 받았으며 부처님을 만났고, 대한민국 수많은 불제자 가운데서 성철 큰스님에게 심원(心源)이라는 불명을 받으면서, 정법 공부를 했고, 백련암으로 삼천배를 하도록 이끌어주신 진여심, 대원행 보살님을 만났으니 말이다.

16년 전 여름, 나는 부산 범어사 청련암에서 오만한 나의 탐진치로 인해 잃어버린 재산과 사업의 재기를 원하면서 시커멓게 타는 가슴을 안고, 어설프고 서툴기만 한 모습으로 무턱대고 절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던 중년의 진여심 보살님이 어느 날 나에게 사과 한 조각을 건네며 다가왔다.

"처사님, 무슨 고민인지 모르겠지만, 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시려면, 해인사 백련암이라는 곳에 성철 큰스님이 계시는데, 거기 가셔서 삼천배를 하고난 후 친견을 한번 해보세요."

당시 나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건성으로 대답했다. 솔직히 삼천배라는 절의 숫자가 얼른 이해도 되지 않았고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다. 무더운 여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데 108배도 아닌 삼천배를 한다는 것이 당시의 내 의식수준으로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것 같았고, 광신적인 종교집단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한편 내 나름대로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에 매일 청련암에 가서 절을 하고 있었고, 무리하게 절을 해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 와중에 처음에는 어설프고 서툴기만 하던 자세가 차츰 모양새가 갖추어져 가고, 절 횟수도 늘려 갈 수 있었으며, 조금씩 심리적인 안정감도 느껴지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작은 여유도 생기기 시작했다.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에 불교서점에 들러

사업 실패후 재기 꿈 다지며 절 찾아 기도
삼천배 경험하며 성철스님 친견 기다려
절하면 할수록 조금씩 변화되는 나 발견

불교관련 서적을 몇 권 씩 사서 보면서 불교가 무엇인지 알아야겠다는 생각과 열정만이 나를 지배한 채, 그 해 여름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땀이 밴 옷과 몸을 법당 밖으로 나와 말리면서 자판기의 커피를 마시는 나에게 진여심 보살님이 환한 얼굴로 다가왔다.

보살님은 범어사에서 100일 동안 1000배와 능엄주 30독씩 하는 기도를 오늘 회향하고 가신다면서, 처사님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도반 한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하셨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며 커피를 한잔 빼 드리고 법당으로 올라오면서 생각에 잠겼다. 저분들은 어떤 생각과 간절함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법복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을 때 까지 절을 할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한참 동안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복잡하던 내 심경으로는 그 의문을 뒤로 할 수밖에 없었고, 오직 나의 뜻한 바대로 내 기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며칠 후 진여심 보살님이 전화로 "오늘 오후에 좀 만날 수 있겠느냐"는 말과 함께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지요?"라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얼떨결에 "예"라는 대답을 하고 약속장소에 나가니, 대원행 보살님과 내 나이또래의 여류 거사님이 같이 나와 계셨다.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원행 보살님께서 여류 거사에게 같이 좀 갔다올 곳이 있다며 일어섰다. 나 역시 엉거주춤 영문도 모르고 뒤를 따라가니 법복(승복) 맞춤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들어서자 대원행 보살님이 손수 잿빛으로 물들인 무명천을 내 놓으시며 나를 가리키면서, "저 처사님 법복 좀 맞춰 주세요"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순간 '남자가 무슨 법복을 입나?' 하고 생각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남자들이 법복 입은 모습을 한번도 본적이 없기에 법복이란 보살님들이나 절에 갈 때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순식간에 법복집에서 옷을 맞추고 나오자 여류 거사가 나에게 말했다. "백련암에 삼천배 기도하러 가실 거죠? 저도 갈 거니까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백련암에서는 거사들도 법복을 입어야만 삼천배 기도를 할 수 있고, 성철 큰스님을 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복을 찾는 다음날 백련암으로 삼천배 기도를 가는 일정이 나도 모르게 잡혀 있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인연이 백련암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나는 얼떨결에 백련암에 따라와 삼천배 기도를 했는데, 정말 지옥훈련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같이 온 도반들이야 모두들 오랜 세월동안 삼천배를 해 온 경험이 있기에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나는 아니었다. 법당 마루 바닥에 기도하는 좌복을 포함하여 내가 설 수 있는 공간을 동그랗게 그려놓고 그 밖을 나가지 않고서 4시간 안에 삼천배를 모두 마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계산을 해보니 한 시간에 약 800배의 절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물러설 곳 없이 만들어진 상황! 기도 잘하라고 노보살님이 해 주신 법복을 입고, 선배 도반들이 그어준 동그라미 안에서 무조건 해 내야 하는 삼천배 기도가 드디어 내 인연공덕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몸은 이미 나의 생각을 벗어나서 움직이고, 내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해가면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땀은 그동안 남을 돌아보지 않고 욕심으로만 살아온 세월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있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대략 2700배를 넘어설 무렵부터는 몸의 감각이 하나씩 마비되고, 나의 의지와 생각이 배제된 로봇 같은 무의식의 세계가 되어서 절을 하고 있었다.

지금껏 나를 지배하고 있던 돈과 명예와 사업, 그리고 온갖 세속의 인연들, 그 모든 것들이 내 몸에서 날아가고 있었다.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도반들의 원력으로 시작된 삼천배 기도가, 절의 횟수가 더해가면서 조금씩 나를 변화시키고 벗겨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의 마음은 이 절을 다해서 빨리 삼천배가 끝나고 성철 큰스님 친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계속)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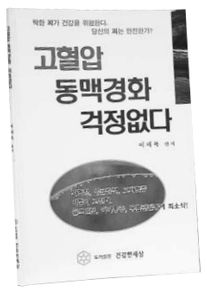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신간

몸에 지니기만해도 병이 낫는 청혈기술

고혈압 동맥경화 걱정없다



이 재 복 편저

이책속에 귀하의 평생 건강이 있습니다.

100쪽 값 6,000원

- 죽음을 부르는 탁한피 당신의 피는 안전한가
- 꽉막힌 혈관 확 뚫어라
- 심혈관 질환의 주범, 고지혈증
- 고지혈증의 원인과 증상
- 증이라고 무시 했다간 큰코다친다.
- 한국인이 더 위험
- 심장병 환자에겐 시간은 생명
- 뇌졸증 주범은 뇌경색
- 몸에 지니기만 해도 병이 낫는 청혈기술
- 북한 의학박사가 발명한 방해석의 신비
- 18년간 1만명이상 임상시험
- 심, 혈관질환 치료율 98.8%
- 당뇨 합병증예방, 치료한다.
- 21세기 인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의학적 대발명
- 38년간 고생하던 두통이 하루만에 없어졌다.
- 불면증이 4일째부터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
- 두통과 메스꺼움이 7일만에 없어졌다.
- 편두통에서 벗어났다.
- 두통으로 하루 8알씩 먹던 진통제를 끊게 되었다.
- 신우신염이 좋아졌다. - 이명증이 없어졌다.
- 하지 정맥류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 손, 발 저림이 하루 밤 사이에 깨끗
- 혈압 200-97이 3일만에 120-70으로
- 고지혈증이 없어지고 피가 맑아졌다.
- 소변에 혈흔이 나타나지 않는다.
- 극심한 생리통이 없어졌다.
- 25년간 복용하던 혈압약을 안 먹게 되었다.
- 숨이 차고 , 불안, 가슴두근거림이 없어졌다
- 심장 압박에서 벗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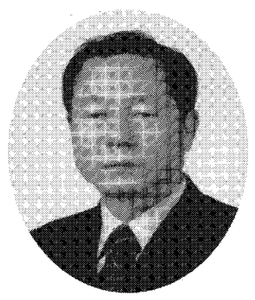
※많은스님들이 애용하신후 질병에서 벗어나고 계십니다.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 02)3436-3206~7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大吉) 성공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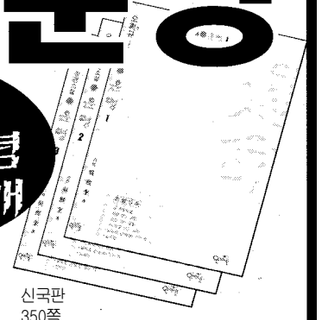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무량사 1000일기도와 1000불 봉안 발원문

시방삼세 두루하신 부처님, 제 간절한 서원을 자비로써 가피하시고 증명하옵소서.

질병과 가난, 가정불화, 자녀문제, 사업관계, 직장관계, 불의의 사고 등 얽힌 업연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하여 동참 재자들과 업장소멸 참회정진 아미타 1000일 기도와 1000분의 부처님을 모셔 부처님의 가피로 현생에서 소원 성취되어 행복하고 회향공덕으로 선망부모, 조상님, 스승님, 친인척 인연있는 모든 영가 나와 가족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력의 배에 의지하여 극락왕생 성불을 발원합니다.

기도 동참자 분들께는 기도비가 완납되는 대로 한 분의 아미타 부처님이 자기 부처님으로 모셔지며 1000분의 동참 재자가 모이면 저절로 천불전은 완성됩니다. 나무아미타불

무량사에서 각 원 합장

■1000일기도 기간
입재식 : 2005년 11월 2일(음력 10월 초하루)
회향식 : 2008년 7월 1일
■1000일기도 동참금
월 2~3만원(총 72만원, 월납·분납·일시납 가능)
■동참 계좌번호
농협 601111-52-396120 예금주 : 최호석(각원)

뜻은 간절하나 형편이 안되시는 분들도 동참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종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74-1번지 무량사

061)381-1151, 010-6734-7779

관절염 · 신경통 · 오십견 · 류마티스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

윤원장은 우슬, 창출, 당귀, 백아로 60℃에서 6시간 동안 알콜추출(65브릭스로 농축), 속단, 구판, 홍화자 외 19개 약제를 특수효모와 혹설탕으로 16일간 속성발효하여 몰약을 액상화시켜 丸(환)으로 만든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관절염,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등에 주효하며 5~7일 정도 복용하면 통증완화, 부기감소가 나타나며 혈행개선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 관신환(丸)



윤량한의원 원장 윤 량

기관지천식 천연생약제로 치료한다.

윤원장은 항암작용이 뛰어난 신비한 약초로 구전되어 온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와 그 외 수종의 약제로 만든 기천탕을 처방하여 수년간 기침·가래·기관지천식으로 고생하신 환자에게 복용시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환자 증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0일만 복용해도 80~90% 이상의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환자에 따라 1~6개월까지 복용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기천탕(湯)

자료제공 윤량한의원 02-598-9832

설기문박사의 최면-전생치료, 빙의치료 세미나

아래와 같이 설기문박사의 최면-전생치료, 빙의치료 세미나와 개인상담을 실시합니다.

(1)세미나일정 : 10월 18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00 ~ 19:00 (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정 가능)
(2)교육내용 : 전통적 최면과 에릭슨최면, NLP, 전생치료 -빙의치료의 원리와 방법 (이론강의와 실습위주)
(3)교 육 비 : 150만원
(4)장 소 : 본 연구원 강의장
(5)개인상담안내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설기문박사가 직접 개인상담을 실시합니다.
(6)상담내용 : 불안증 및 공포증, 우울증,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각종 알레르기 문제, 비만문제,홧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빙의 문제



● 설기문 박사 : 상담심리전문가, 최면 및 전생치료전문가, NLP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서 1997년 이후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최면-전생상담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전생퇴행", "최면과 최면치료", "전생가기 참 쉽다"와 같은 다수의 전문서적을 저술하였음.

한국 최면-전생상담 연구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번지 안양건설타워 617호
-지하철 4호선 범계역 1번 출구
(엔시-뉴코아백화점 맞은편 시티은행 옆 17층건물)
전화: 011-1762-4598
인터넷 주소창: 설기문 또는 최면술 www.nlpplus.com
daum 카페: 설기문트랜스넷

간(肝) B형간염, 알콜성 간염 간염보균자, 지방간 환자들의 희소식!

윤량원장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해발 1,700m의 고지에서 자생하는 희귀식물로 개발한 키모탕을 B형간염, 알콜성간염, 간염보균자, 지방간 환자들에게 임상실험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에게서 만족할만한 개선효과가 나타났고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나 간염, 지방간 환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의사 윤 량

윤원장은 계속 연구하여 더 좋은 제품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키모탕을 복용후 효과를 보신 환자들이 구전으로 소개하여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 키모탕(湯)

문의전화 02-598-9832

2005년 화제신간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원통 지음/신국판/394쪽/값 9,500원

저자특별공개강좌

주요내용

● 석가모니 부처님은 미륵불 출세시 인간 수명이 팔만사천세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진위와 방법은 무엇인가??

● 중생의 상상을 초월하는 여래출현의 비밀은 무엇인가??



● 서울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 부산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 대구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시)

강좌 구입문의
053)653-9124
(저자 원통)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靑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山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월빙 자연당
1100g×2병 = 18,000원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산사조청 월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5. 11. 7 월·화반(주·야간 : 3개월 완성)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정통풍수강좌
토요일, 일요일 전문가과정 특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 3가 16번지 고영빌딩 407호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치솟는 난방비용 이제 마음껏 쓰세요"

난방비의 획기적인 절감 및 균일난방 효과로 현재보다 따뜻하게 쓰면서도 난방비는
최저 20% 최고 50%까지 절감됩니다.
(최저 15% 법적보장)
저렴하고 간단한 설치로 한여름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EPS밸브를 설치하게되면
● 내 방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난방온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침실 22℃, 거실 18℃, 공부방 20℃, 할머니방 26℃)
● 시공과 운전조작이 간편함
● 불필요한 보일러의 가동시간을 줄여 세대 내 모든 공간을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를 20~50%까지 절감시켜줍니다
● 아파트의 가격상승 및 선호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PS밸브는 이런곳에 사용 됩니다.
●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보조난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도 쾌적한 난방효과가 없는 집(화재요인감소)
● 터무니 없는 난방비에 비해 추운집 (안방은 덥고 할머니 방은 추운 곳)
● 방마다 온도조절을 따로 하거나 별도의 난방시공을 해야 하는 집
● 심야전기용량이 부족한 집
● 한여름 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집

※ 전국사찰, 개별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

(주) 이플러스세이버 TEL. 02)470-040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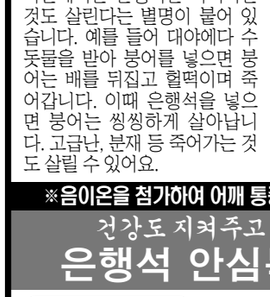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9697-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배개볼 1인용 ~~55,000원~~ → 45000원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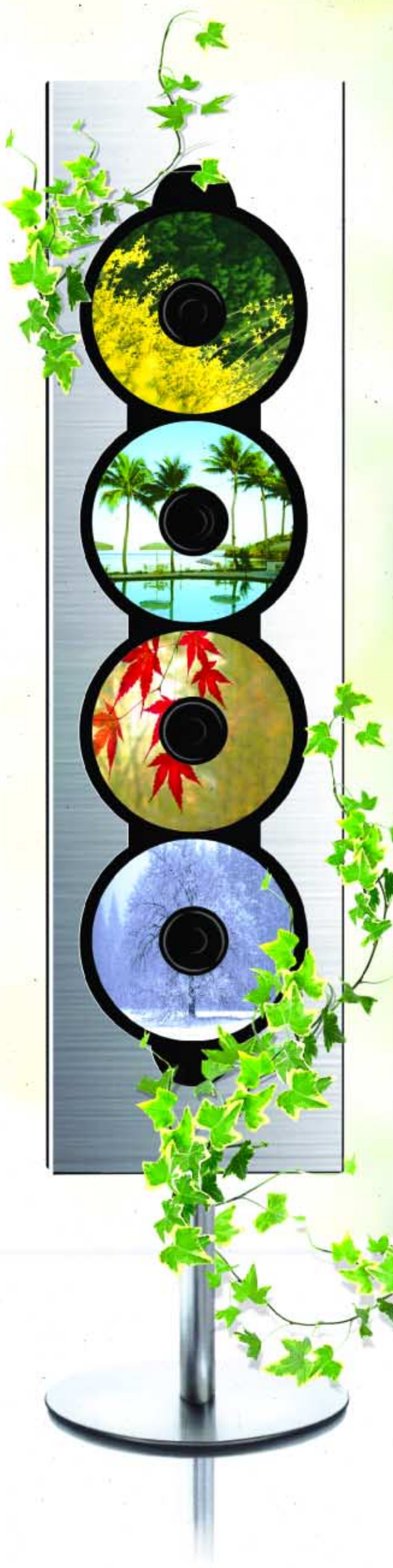
125,000원 → 95.000원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www.hallaapt.co.kr



행복을 연주하는 공간

한라 비발디

사계절을 테마로 조경부문을 특화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을 선사하는 한라비발디 -
만나보세요. 늘 머물고 싶고 살수록 돋보이는 아파트!
행복을 연주하는 공간, 한라비발디

vivaldi
한라비발디

한라건설